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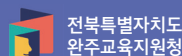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2023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사)지역+교육연구소
Locality + Educational Institute Corporatio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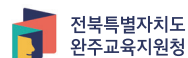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2023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사)지역+교육연구소
Locality + Educational Institute Corporation



CONTENTS

- 014 축사(대표·군수·의장·교육장)
- 018 동영상(QR코드)
- 020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10년 연대기
- 023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10년
- 026 주요 용어

2012-13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 판전피우기

- 030 태동기 방향(2012. ~ 2013.)
- 031 태동기 사업요약
- 031 2012 ~ 2013년 세부추진사업
- 032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 연구
- 037 교육공동체 발굴 양성
- 040 희망키움 이동학습 프로젝트

2014-15

우리아이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

- 051 기반구축기 비전과 방향(2014. ~ 2015.)
- 052 연도별 사업요약(2014. ~ 2015.)
- 052 2014년 세부추진사업
- 053 네트워크 출발
- 058 토론회
- 062 2014 매개자과정 동영상(QR)
- 066 생활의 숨은 고수이야기
- 070 포커스그룹
- 080 성과홍보
- 082 2014년 사업추진 성과
- 083 2014년 제언

2014-15

교육이야기, 현장과 만나다

- 086 2015 소꿈사 동영상(QR)
- 087 2015년 세부추진사업
- 088 교육네트워크
- 091 교육동아리 활동
- 094 2015 생활의 숨은 고수 삶을 재해석하다
- 096 방과후 지원사업
- 097 성과홍보
- 098 2015년 사업추진 성과
- 099 2015년 제언

2016-18

낮설고 어색한 네, 우리는 매개자입니다

- 103 적용기 비전과 방향(2016. ~ 2018.)
- 104 연도별 사업요약(2016. ~ 2018.)
- 105 2016년 세부추진사업
- 106 고산네트워크
- 108 타운홀미팅
- 109 매개자교육 자료집
- 115 2016 봉동초 흔적 프로젝트 동영상(QR)
- 116 방과후 지원사업 - 흔적프로젝트, 물꼬프로젝트
- 122 성과홍보
- 128 2016년 사업추진 성과
- 129 2016년 제언

2016-18

우리가 합의한 공부,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 132 2017년 세부추진사업
- 133 고산네트워크 토론회 결과보고서
- 137 2017 매개자교육 자료집
- 139 방과후 지원사업 -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 142 학교 프로젝트
- 143 성과홍보
- 146 완주교육지원청과 관계를 회복하다
- 148 2017년 사업추진 성과
- 149 2017년 제언

2016-18

함께 여는 새날 눈뜨는 프로젝트

- 152 2018년 세부추진사업
- 153 고산네트워크
- 154 봉동·이서지역 학부모 간담회
- 156 교육자원 발굴 육성
- 157 2018 매개자교육과정 자료집
- 164 2018 소양중 눈뜨는 프로젝트 동영상(QR)
- 165 방과후 지원사업 - 소양중 눈뜨는 프로젝트
- 168 성과홍보
- 170 2018년 사업추진 성과
- 171 2018년 제언

2019-21

조심스러운 확산

- 175 확장기 비전과 방향(2019. ~ 2021.)
- 176 연도별 사업요약(2019. ~ 2021.)
- 176 2019년 세부추진사업
- 177 이따요 삼우중 프로젝트 동영상(QR)
- 178 이따요 프로젝트
- 180 공감실험실
- 182 완주군 교육활동 지도
- 183 동아리 활동집
- 188 어떤 사람이고 싶니(?) - 자유를 원하는 사람 프로젝트
- 189 2019년 사업추진 성과
- 190 2019년 제언
- 191 학교-마을교육과정
- 194 교사가 경험한 매개자

2019-21

통합하귀

- 200 2020년 세부추진사업
- 201 교육동아리 순회미팅
- 205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 207 공감실험실
- 209 전북교육협력지구 타운홀
- 210 2020년 유관기관 간담회
- 211 성과홍보
- 215 2020년 사업추진 성과
- 217 2020년 제언

2019-21

디딤, 이 자리가 필요했어요

- 220 2021년 세부추진사업
- 221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 223 완주군 타운홀미팅
- 224 군산 타운홀미팅
- 226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 228 2021 용진중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동영상(QR)
- 229 2021 교보교육대상
- 230 미래교육지구 온라인 연수
- 231 성과홍보
- 233 2021년 사업추진 성과
- 235 2021년 제언

2022-23

끈머에 빠져보실라우?

- 239 도약기 비전과 방향(2022. ~ 2023.)
- 240 연도별 사업요약(2022. ~ 2023.)
- 240 2022년 세부추진사업
- 241 끈머 간담회
- 243 2022 그림책이 있는 다락방 동영상(QR)
- 244 지역아동센터 마을기관연계 프로그램 지원
- 245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 246 마을기록가 기초과정
- 247 어린이날 축제
- 248 연결과 매칭을 통한 그룹핑
- 248 교육자치연계 협력 간담회
- 249 신규강사 기초교육
- 251 전북미래학교 대토론회 타운홀미팅
- 251 성과홍보
- 252 2022년 사업추진 성과
- 253 2022년 제언

2022-23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 256 2023년 세부추진사업
- 257 마을교육공동체 간담회
- 258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 259 발상의 전환, 오묘한 재판기
- 259 용진중 명량운동회
- 260 용진중 명량인터뷰
- 261 지역사회 캠핑 한마당
- 262 마을 강사 역량강화연수
- 263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간담회
- 263 내부역량 강화
- 264 매개자 역량 강화교육
- 265 성과홍보
- 266 2023년 사업추진 성과
- 267 2023년 제언

- 268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자료집 목록
- 272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동영상 목록
- 274 센터 직원들 소감

대표 축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신바람나는 지역”

(사)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가 운영하는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이 목표 아래 오늘까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역의 교육문제는 기존 ‘학교교육’ 범위를 넘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까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지역에 머물러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함께 사는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또 ‘삶과 교육’이 함께하는 지역을 꿈꾸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비전이 바탕이 된 공동체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핵심 활동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공동체 과정을 통해 학부모는 매개자, 학교 강사로 교육 활동에 참여했고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육문제를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공동대응하는 것이 ‘교육통합’입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교육통합’은 2012년 8월, 완주군의 담대한 제안으로 시작돼 완주군의회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수많은 교육공동체의 활동이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정착에 노고를 아끼신 양정숙 전 이사장, 양윤신 이사, 이은영이사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10여 년간 ‘교육통합’ 가치 실현에 애써주신 임성희 센터장과 연구원들의 노력이 지역은 물론 전국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뽑히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신바람나는 지역’을 향한 발걸음이 연대를 통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 대표 **이 병 재**

군수 축사

“완주는 특별합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완주군 교육발전에 쏟아온 노력과 성과의 기록물인 교육통합지원센터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질적인 민선 8기 원년이었던 2023년, 우리 군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 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군정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주군은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완주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교육 역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주만의 맞춤형 방식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완주로 이주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전환이었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의 10년의 노고는 미래 100년을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하는 ‘선즉제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는 특별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통합지원센터 10주년 백서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의장 축사

“완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 지표 달성에 초석이 되기를”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울러 향후 완주군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백서』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教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본래 맹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득천하영재이교육지)’라는 글에서 유래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 내도록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여야 하며, 학교경영도 관료적 통치체제에서 현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로 전환 시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본 백서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미래 완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완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 지표 달성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의장 서남용

교육장 축사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1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주 지역의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육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 터전을 일구고 지역 교육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교육공동체 상생 발전의 비전을 함께해 온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이 함께하는 완주교육협력지구의 대표적인 교육협력 모델인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해주신 센터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마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양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온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노하우와 끊임없는 교육 연구의 결과는 지역 교육의 꽃을 피워낼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서는 지난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온 우리 완주 교육공동체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백서의 발간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아름다운 발자취를 통해 완주교육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멋진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난 희**

동영상(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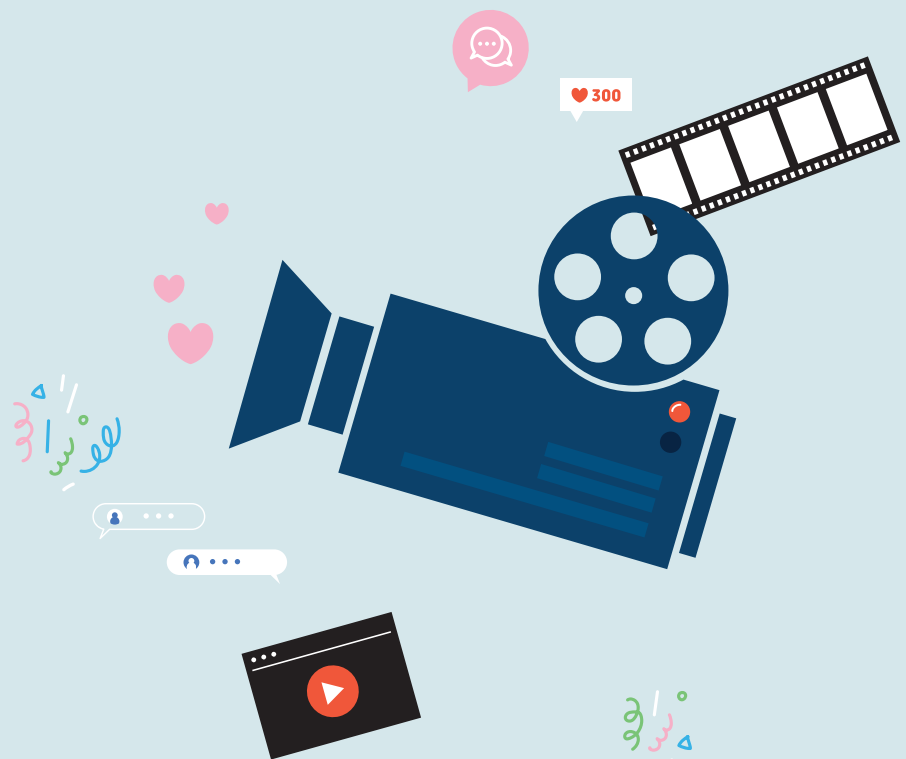
10주년 기념행사 동영상(QR)



2013 경희대 탐방 동영상(QR)



2017 봉사중 탐방왔소 프로젝트 동영상(QR)



미션 함께 사는 가치 통합적 사고 중심의 완주교육설계
비전 잠자는 교실 깨우기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10년 연대기

2012

- 08 완주군의 제안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조정
- 12 완주군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연구시작

- 01 지역별열린토크
- 04 완주군의회 조례 통과
- 05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
설립인가
- 09 교육전담중간조직의
설립 제안
- 12 가천교육공동체
'마을이학교다' 실행 보고

2013

2014

- 04 고산면 삼거리
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
- 05 교육통합실험모델 개발
교육공동체
매개자 학교프로젝트
- 07 교육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통합
- 08 매개자교육과정 개설
교실붕괴영상 공유
잠자는 아이들을 마주하다.
- 10 생활의 숨은 고수 발굴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혁신교육특구선정
로컬에듀 출범

2015

- 01 삶이 배움이 되는
교육소재 개발 보고
'삶을 재해석 하다'
- 03 뉴스레터 창간
- 04 교육공동체 활동지원
고산네트워크
용따사 소꿈사
- 08 양화분교 아지트프로젝트
공동대응 수업사례
- 10 지역과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 12 완주군 교육활동지도 제작

미션 살아 숨쉬는 교육, 서로를 살리는 교육의 장 만들어 가기
비전 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 전문 플랫폼

2016

- 04 완주군 아동안전지도제작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통학길'
- 05 구이중 117명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청소년 육 문화'
- 08 매개자교육 자료집 제작 '네, 우리는 매개자입니다'
- 09 고산고 해외이동학습물꼬프로젝트
- 10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 창의행정우수상

2017

- 05 매개자 10기 수료
- 08 문화예술관계자간담회
- 09 완주교육지원청과 관계를 회복하다.
- 12 고산네트워크경과보고 청소년공간마련 토론회

완주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고산고 공립형 대안학교 전환

- 05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국가사업선정지역사회 엄마쌤교육통합모델구축
- 06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 07 이서골목FC 교육동아리 인큐베이팅
- 10 봉동·용진지역 교육 간담회
- 11 완주혁신교육 성장보고 2.0 로컬에듀 4년 성장평가보고서

2018

학교-마을교육과정

- 03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 05 완주군 신규공무원챌린지 100℃ 타운홀미팅 "창의 행정을 논하다."
- 08 완주군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진행

2019

2020

-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자중학교 통합 이전
- 완주교육지원청 복합행정타운으로 청사 이전
- 05 어쩌다 끈머의 뜰보잡 Job진로특강 Since 2014 생활의 숨은 고수
- 08 포스트코로나 언택트 수업 실험
- 11 놀이체육지도사 양성

02 학교-마을교육과정 위탁운영

- 05 2025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차원의 '배우기와 준비'
- 10 교보교육대상 수상미래교육컨텐츠 분야

2021

2022

-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다. 사업방향 전환
- 06 지역아동센터 완주군 다함께돌봄 마을기관연계 프로그램 지원
- 08 생성형 인공지능의 미래 학교-마을교육과정 역량강화연수
- 12 교육동아리 결산보고 '에필로그'

먼데이닷컴 행정시스템강화

02 튀르키예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신묘한 자판기 제작 및 활동

- 04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간담회
- 08 내부역량강화 소셜공작소 연대 미션·비전 정립 원광보건대 BH혁신융합대학사업단 AR,VR,MR 그리고 XR(혼합현실) 교육컨텐츠 활용하기

09 마을 강사 대상 챗GPT와 함께하는 톡톡 활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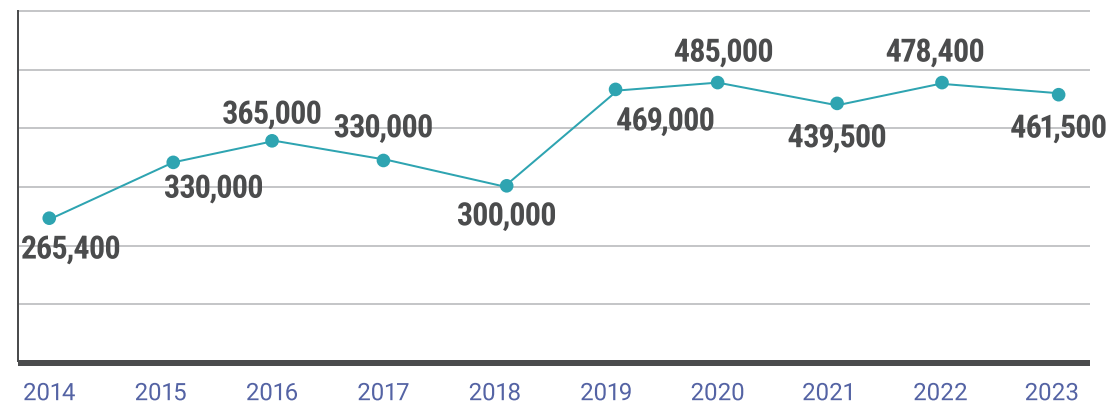
2023

10 교육통합지원센터 10주년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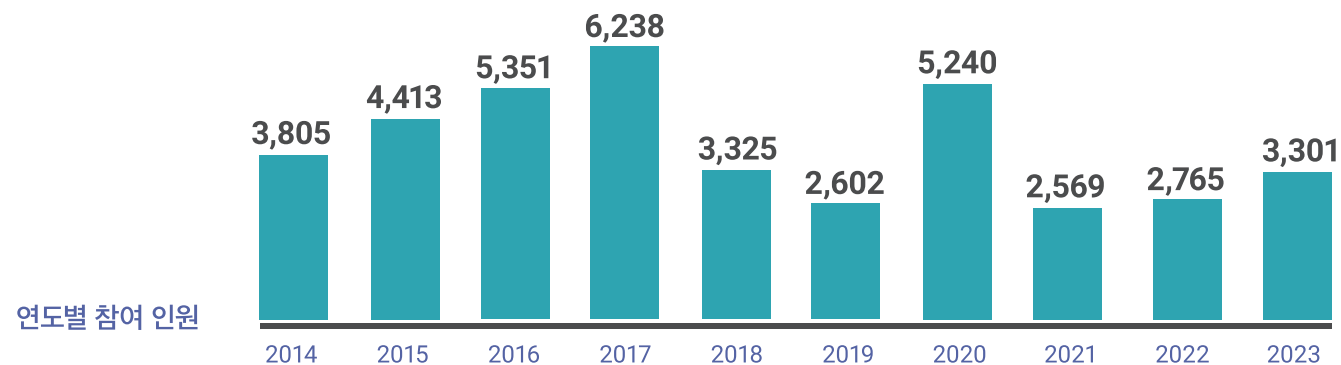
지난 10년
센터운영시간 **19,920**시간

집행 예산 누적 **4,814,2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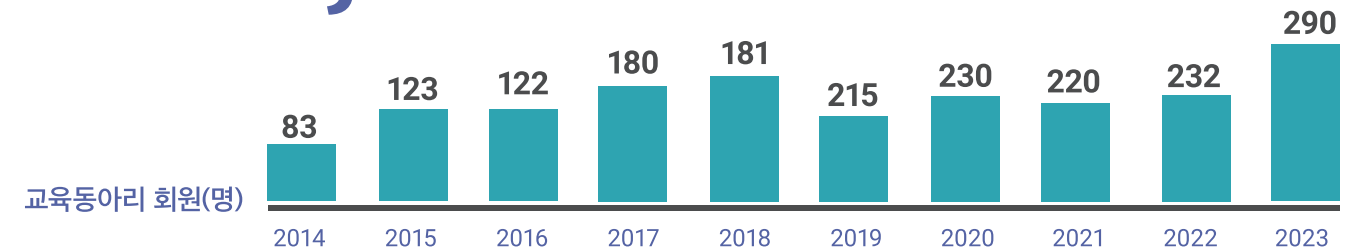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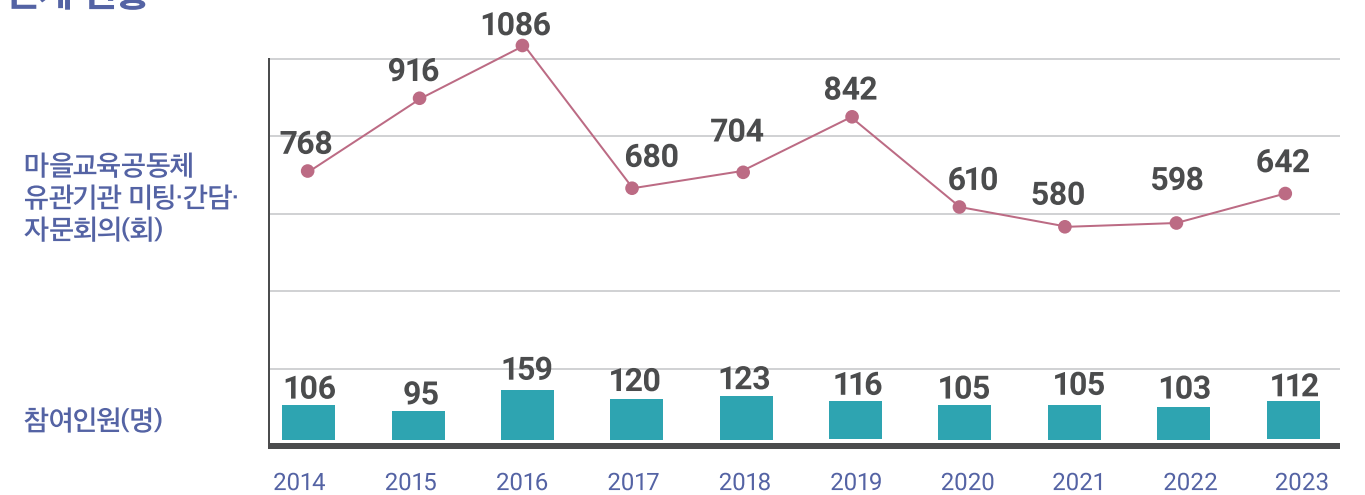
센터가 만난
교육주체 누적 **30,609**명



교육동아리
현황 **1,876**명



유관기관 연대
및 지역네트워크
연계 현황 **1,144**회 **7,426**명



10년간
완주군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초등학생	5,000	5,050	5,072	5,100	5,052	4,981	4,718	4,496	4,371	4,324
중학생	2,832	2,723	2,636	2,587	2,603	2,587	2,596	2,595	2,596	2,637
고등학생	3,643	3,433	3,270	3,021	2,658	2,363	2,117	1,921	1,774	1,692
계	11,475	11,206	10,978	10,708	10,313	9,931	9,431	9,012	8,741	8,653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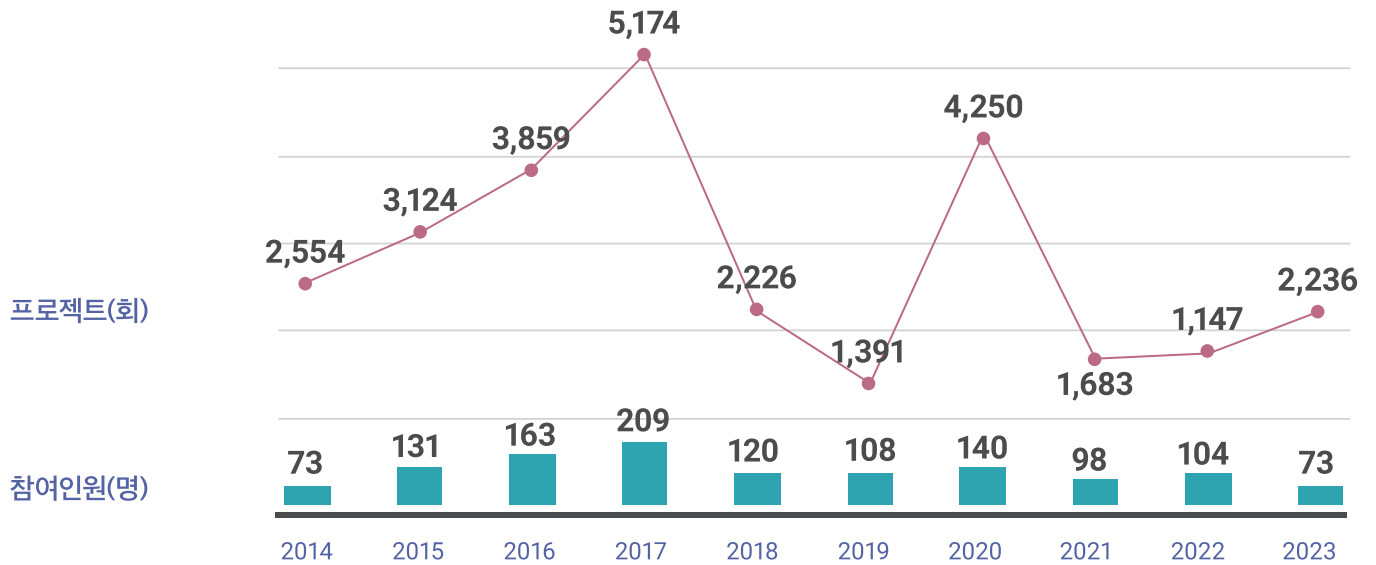
방과후 지원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
사업 현황

프로젝트(회)

744회

참여인원(명)

7,0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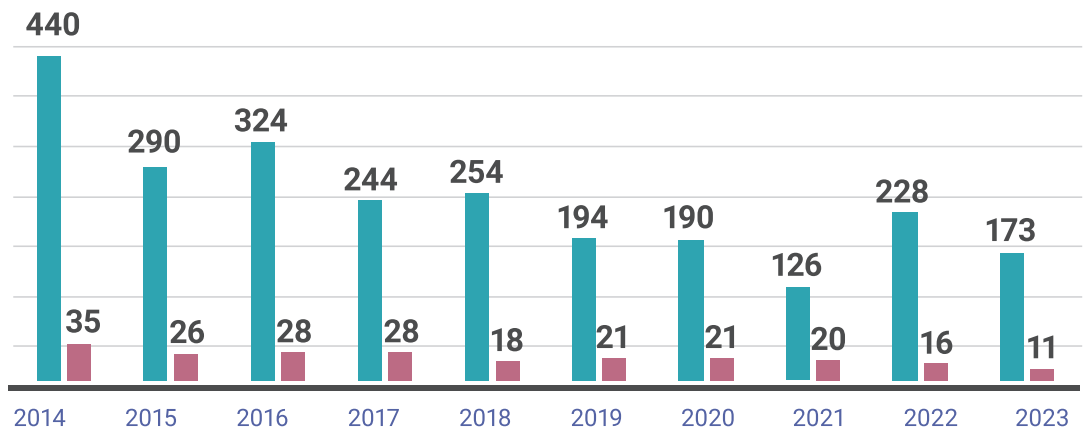
매개자교육 지원

매개자교육

224회

매개자교육 수료

2,463명



주요 용어

1

교육적공헌

MER
(Municipal
Education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에서 원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이라는 의미로 2013년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가 연구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 연구 과정에서 연구 주제로 사용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역정부로서 더 큰 책임성을 요구 받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임성희, 양윤신, 손정희, 황지호, 2013)

지역별 역할구도에 의한 유형

- **의존적인 작은학교형**: 학교가 지역자원(인적)에 많이 의존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유형. 매개자 발굴 양성이 용이하나, 확장이 어렵다.
- **준독립적인 농촌형**: 학교가 지역자원(인적)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아, 어느정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유형. 매개자 발굴 양성과 확장이 보통이다.
- **독립적인 도농복합형**: 학교가 지역자원(인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유형. 매개자 발굴 양성이 어려우나 확장성이 있다. (임성희, 양윤신, 손정희, 황지호, 2013)

교육통합

Educational
Intergration

교육통합은 기관간의 통합과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적 사고유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교육관련 시행기관(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유관기관) 간 연계와 협력 강화 및 통합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학생, 학부모-매개자, 학교마을 강사)가 다양한 사고, 판단, 인식, 경험의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임성희, 김천기, 임익산, 조아영, 2017)

교육통합 모델

교육문제에 직면한 학생은 교육청 학교, 교사가 대처하는 측면을 넘어 교육을 참여하는 주체들(학생, 매개자, 교사)에게 공동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는 것.

매개자

Mediators

‘매개자’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매개자 개념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페다고지(1970)’에서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문화예술에서 사용하고 있다.

(임성희, 김천기, 2018)

현재는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간자 역할의 의미로 쓰인다(기관도 포함한다).

에포크

Epoch

교육통합이 학교수업이나 지역사회 학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돌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사건 사고)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계획(활동내용, 역할분담, 예산설계, 팀워크, 홍보)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자발성과 흥미를 더해 통합적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동기 요인이 되는 것.

(임성희, 양윤신, 2014)

2

생활의 숨은고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지혜로운 삶에 잘 녹여내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고수를 발굴하여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교육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 고수를 생활의 숨은 고수로 부른다.

교육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역량을 강화하여 연대와 보충의 체계를 조성해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교육력 강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공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협의·조정·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입니다(우리는 교실 수업 전반에 이 과정을 적용한다).

공적가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모두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말한다.

3

의사결정 카드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의 일종이다.
학교마다 참여 학생들이 정하게 되므로 이름은 다양하다.
(예컨대 민주카드, 요약카드, 양화민주카드 등)

표현도구

의사결정과정에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예컨대 포스트잇, A4용지, 네임펜, 매직, 플립차트, 의사결정카드, 이젤패드)

감정카드

참여학생이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4각형의 두꺼운 종이 위에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새겨진 카드이다.

공감실험실

한해 동안 학교와 추진한 프로젝트의 관계 교사, 매개자, 장학사, 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성장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사례 나눔 시간이다.

(운영위원회, 2016)

2012 - 2013

“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
딴전피우기



태동기 방향

‘교육통합’은 2012년 8월 완주군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서 10월 지역교육청, 완주군, 전라북도교육청이 가)교육통합지원센터의 가교로 3차에 걸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에 걸친 논의는 서로에 입장차이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통합은 지자체 주도로 교육에 관한 고민을 실천하고자 했고 그 구체성이 교육전담중간지원조직인 교육통합입니다. 교육통합은 지역사회 교육문제를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이 ‘공동대응’하는 것입니다(해외이동학습, 대학탐방).

교육에 이해가 많지 않았던 완주군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이하 ‘CB’) 설립과정을 고스란히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에 적용합니다. CB설립은 연구, 조례제정, 희망제작소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기반이 됩니다. 완주군은 열린행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고 교육통합은 그 하나입니다.

교육통합모델은 우선 연구용역을 통한 교육방향 탐색과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려운 유사한 기관들과 비교하여 교육통합의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인터뷰를 활용합니다. 넷째 연구가 실천과 병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MER)’ 보고서로 요약됩니다.

실천 활동은 첫째, 13개 읍·면을 순회하는 ‘열린토크’로 지역주민과 소통입니다. 둘째,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따전 피우기’로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와 농어촌희망재단이 함께 하여 가천교육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셋째, 방과후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일학교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학교 밖 학습경험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토요일 교육 안전망인 ‘가사토’ 사업입니다. 넷째, 교육통합 적용은 해외이동학습(학생)과 나만의 특별한 대학(서울대, 경희대)탐방에 구현되었습니다.

태동기는 연구를 중심에 두고 완주군의 교육 비전과 방향 수립, 조례에 근거한 교육통합모델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연구와 병행하여 지역별 열린토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사업은 교육공동체 발굴양성(마을이 학교다, 가사토),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해외이동학습, 대학탐방)¹⁾을 운영했습니다. 태동기는 2012년 8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1) 2014년 1월 초에 추진되었음.

태동기

2012. 8. - 2013. 12.

2013년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 연구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 만전피우기」는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매개자 양성 가능성, 학부모 교육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실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대학찾기는 교육통합의 의미 프로젝트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대학탐방을 통해 미션수행 실천 기반을 만들어 교육통합 실천 원년이 되었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2013년 4월 25일 완주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 6조(기능)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1. 교육통합 모델 개발
2.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3. 지역주민(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
5. 방과후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부추진사업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적 공헌 연구(MER)

- 연구개관 및 조사결과 요약
- 지역별 열린공감토크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



교육공동체 발굴 양성

-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
만전피우기



희망키움 이동학습

- 경희대학교 탐방
- 서울대학교 탐방
- 중국 이동학습
(Do you remember)



2012-13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 연구(MER)

연구개관 및 조사결과 요약 (제1장, 제2장)

1장 개관은 현재 공교육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거론했다.

2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요약과 그룹별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완주군이 도농복합 지역임을 감안하여 2읍 11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작은 학교형(운주, 경천, 동상, 비봉), 도농복합형(삼례, 봉동), 농촌형(고산, 용진, 화산, 소양, 구이, 상관, 남관) 등이다.

이 연구는 완주군을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나누고 분석했고 기관 및 교육전문가 그룹, 학부모 등을 5가지 형태로 그룹화했다.

제2장 마지막에 5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유형별 사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 지원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전남 담양의 무정초등학교, 진안 제일고등학교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살리는 촉진적 역할의 계기를 만들었다.



연구결과 요약 (제3장과 세부내용)

제3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공헌의 현실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완주군 교육환경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청 등의 역할을 확인해 보고 특히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제3 기구의 역할을 탐색했다.

지역별 열린공감토크



우선 유형별로 도출된 공통의 과제 및 해결점을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의 역할을 도식화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 돌봄 중심(시기적 이해 인식이 돌봄에 집중된 환경에서 교육 방향을 잡는 것에 주목)의 교육적 공헌을 단기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범정부의 방과후 돌봄 통합추진 기조를 살펴보고, 방과후 돌봄 통합추진 기구(협의체)의 문제점으로 실행체제의 부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완주군내 행정시스템을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 차원의 돌봄(아동+주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방과후 돌봄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요약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실행체제 분석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주도형의 대내외적 환경, 실행주체의 장·단점, 협력기관의 예산, 인력, 교육문제를 전제로 교육주도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예산이 빈약하나 교육 전문성이 보완되면 지역사회 확장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열린공감토크

드림스타트 중심의 교육주도 가능성

드림스타트 센터는 전달체계의 명확성이 주목된다. 예산충족, 돌봄통합사례 관리가 최적화 되어있다. 단 12세이하 아동으로 한정되어있다. 특히 방과후(돌봄, 학습지원) 전문성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의 기구(교육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이 보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F.G.I보고서에서 도출된 위기(아동+가정)아동, 무기력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 문제는 시급한 사안으로 양대 기관의 연대 협력 속에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요약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을 위해 지역사회 + 학교 + 학부모의 연대를 전제로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을 정규교과 이외 방과후 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범정부 방과후 돌봄의 통합추진이라는 환경을 활용하여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의 한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제3의 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유형별 대안, 체제별 대안, 프로그램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내재한 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가 주는 함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열린공감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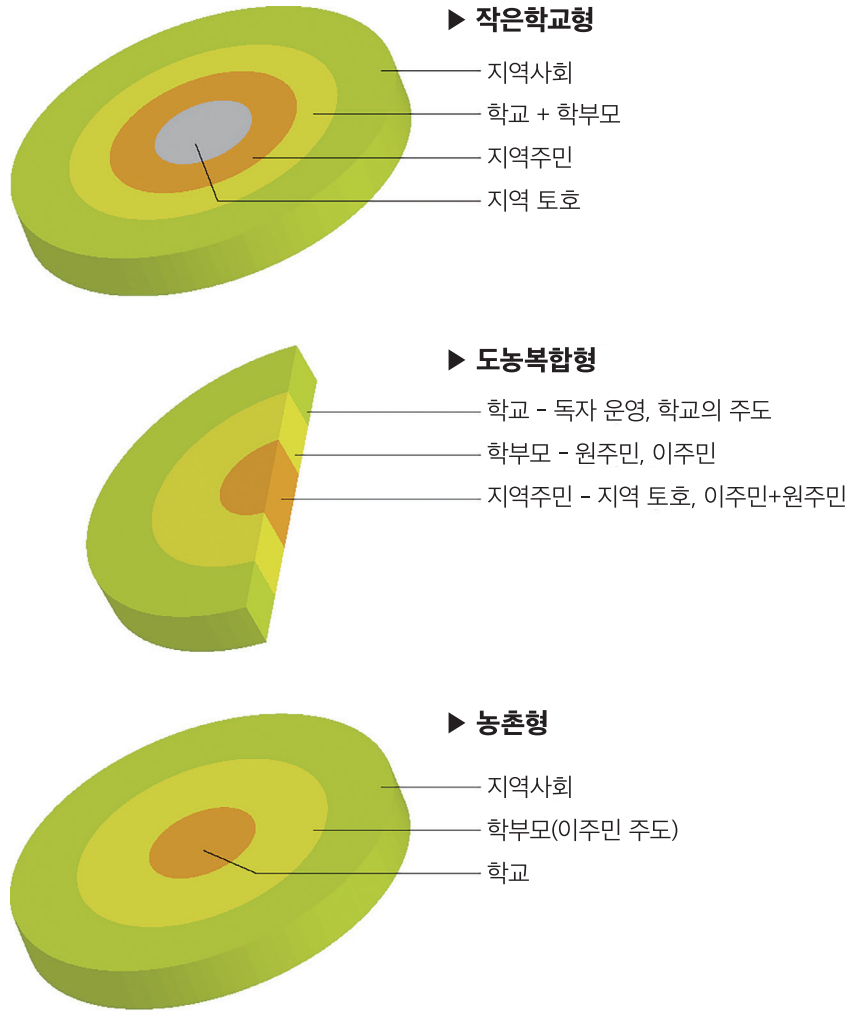
끝으로 완주군의 2읍 11개 면 중에서 작은 학교형(운주, 경천, 동상, 비봉)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형(삼례, 봉동)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간 개별화 정도가 커서 제3의기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지역으로 보여진다.



농촌형(고산, 용진, 화산, 소양, 구이, 상관, 남관)은 이주민 주도의 교육활동이 활발하지만 원주민과의 갈등 구도가 나타난다. 원주민의 활동을 유도하는 민간주도의 교육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 형태의 동아리 양성을 지원하면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지역을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도식을 제시했다.

유형별 역할구도



**교육공동체
발굴 양성**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
딴전피우기



책 [엄마와 아이들 딴전피우기]

가천교육공동체는 마을교육공동체 1호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농어촌희망재단 지원을 받았고 ‘마을이 학교다 엄마와 아이들 딴전피우기’는 가천 교육공동체가 실행하였다. 가천 교육공동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학생프로젝트, 매개자 등 3가지 측면을 통합적용하여 모델을 실험한 대표적 사례다.

가천교육공동체는 가천에 정착한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년,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부터 유치원생을 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다.

당시 함께 하는 학부모는 어려운 시기 잘 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었던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노력과 성실이에쁘다는 김창준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 위원장, 이만한 사람들 어디 가서 못 구한다며, 지역의 미래와 가천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보자던 양승학 교육분과 위원



2012년 10월 한 분의 학부모와 인연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졌다. 만남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냈고, 기성의 관점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다투며 추진과 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육의 양립된 일들은 내 아이에 한정된 책임과 역할에 익숙했기에 공동의 책임에 짓눌려 포기하려 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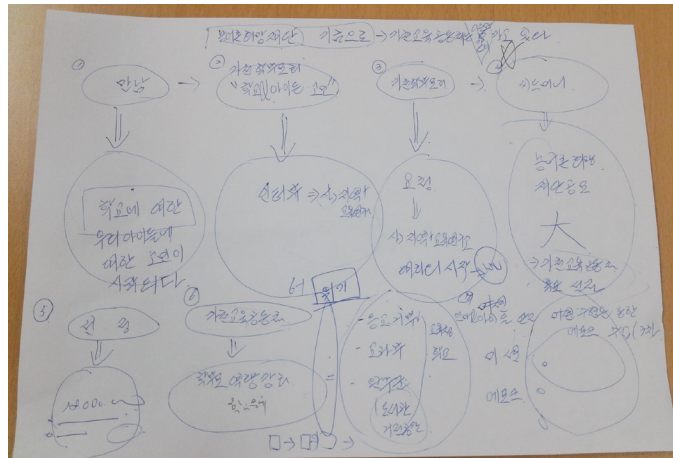
이주를 많이 고민했다. 보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었다. 같이 하면 좋다는 것을... 더 놀고 싶단다. 너무 좋았다. 행복하단다.

부안 캠프에서 결론을 제고 해야했다. 보고회 과정에 결정의 중심에 아이들이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부끄러운 고백을 서로 나누었다. 다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함께 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상기해 본다.

김민우, 신미림, 신영대, 신유림, 김유정, 김유림, 김유혁, 김지원, 김민겸, 김원겸, 고영민, 이하늘, 채세윤, 장한샘, 장현준, 서지호, 정주은, 정주혜, 최지수, 임건우, 임승연, 임나운, 임찬우.

얼마나 자랐을지 새삼 안부가 궁금하다.



- 2012. 귀촌 1년차 학부모가 나서야...
- 2013. 5. 학교운영위원장 교체
- 2013. 6. 교장공모제 추진
- 2013. 7. 교육공모제 좌절
- 2013. 9. 교육지원청 항의방문
- 2013. 9. 전라북도교육청 방문, 교육부 항의방문
- 2013. 12. 2014년 학교 교육과정 참여



지역플러스교육연구와 인터뷰를 하게 됐고, 학교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만남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가천학부모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와 농어촌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아 ‘엄마와 아이들 판전 피우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장승초등학교를 견학했고, 4차에 걸친 미션 수행을 통한 에포크 수업도 경험했다. 우리는 마을탐사를 했고, 아이들 눈으로 본 와일드푸드 축제도 함께했다. 또한 한옥마을, 동문사거리, 남부시장 등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이해하게 됐다.

가천교육공동체는 거점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도서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김창준 위원장과 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12월 9일 열린 공감 토크에서 단체장에 다시 요청했고 적극적 지원 약속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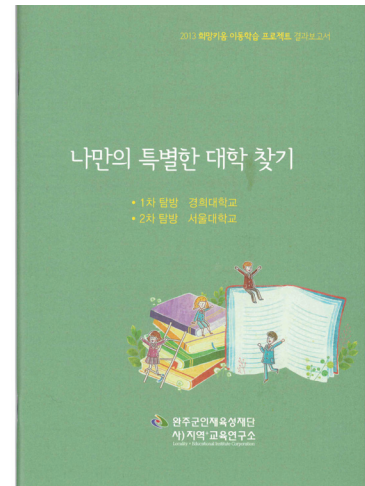


희망키움 이동학습 프로젝트

‘희망키움 이동학습 프로젝트’에서 교육통합이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사전 경험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희망키움 사업은 2013년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 후원하고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가 운영했다.

희망키움은 대학의 일반화된 탐방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호기심을 갖고 참여자가 발로 뛰며 대학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때문에 대학관계자(교수, 조교, 재학생)를 직접 인터뷰하는 과정을 유인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대학의 역사, 문화, 학과, 동아리방 모둠에서 계획한 예산을 통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나만의 특별한 대학은 즉 ‘내가 가는 대학이 명문대’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끌어냈다. 특히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 참여자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즉 팀명을 정하고 예산, 미션수행, 인증샷, 안내, 실시간 소통 등의 역할을 삽입했다. 특히 카톡으로 현장에서 주어지는 미션은 대단히 흥미로웠다 한다.



경희대학교 탐방



우리는 경희대학교 김운호(대외협력처장, 경영대학원 및 NGO공공대학원교학처장)교수 인터뷰, 입학처 김현교수(경희대학교 정치학과 국제정치학부) 인터뷰, 경희대캠퍼스 및 과별 답사를 진행했다.

경희대학교 사전 답사는 네오르네상스관, 청운관, 호텔관광, 평화의 전당, 중앙도서관, 경희대자연사박물관, 법과대, 문과대, 경영대학, 경희대소비자협동조합, 단과대별식당, 학생회관, 브라운관, 노천극장 상징물(등용문, 교시탑, 개교40주년기념관, 새천년평화탑, 세계인권선언문, 경희의탑), 학생회관개시관 등을 살펴 보았다.

경희대 탐방과정은 팀워크 구축하기, 팀워크 실천하기, 팀워크와 팀원 사후관계, 기획자와 참여자가 평가하기 등이다. 팀워크 구축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명문대 확인 과정, 참여자의 바람을 파악하는 과정, 팀워크 과정, 명문대의 개념들을 상호 합의하는 과정, 참여자가 도출한 문제를 적용해 보는 과정 등이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이병태 교수

인간은 누구나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극복하고 자기 삶을 구축하느냐 마느냐는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힘들다. 참아낼 뿐이다. 이겨내는 것이다. 힘들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하여 자신에 대한 물음이 중요하다.

‘자기 진실성의 토대’이다.

팀워크 실천하기는 대학 현장에서 미션수행으로 참여자가 궁금했던 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구체적 실천은 학과 탐방을 통해 참여자가 섭외한 관계교수, 조교, 동아리 관계자, 길거리인터뷰 등을 통해 해소하게 했다.

나만의 특별한 대학에서 느낀 한계는 정량적 측면에서 시간, 예산, 인력, 제한된 사업구조가 갖는 답답함이 있었고, 정성적 측면은 청소년의 인식이 사회 통념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의지가 곧 청소년의 의지였고, 자신이 뭘하고 싶은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이 컸다고 생각되었다.



서울대학교 탐방



서울대탐방에서 학과 탐방은 우선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정리해 보기, 없다면 마음이 가는 학과를 우선 생각해 보기, 모듬내 공통으로 탐방할 학과를 정해보기, 캠퍼스 내 거리 인터뷰 시도로 재학생의 생각을 들어보기 등이다. 특히 가고 싶은 학과를 섭외하지 못했거나 사정이 있다면 단과대학 앞에서 재학생을 인터뷰하도록 유인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서울대학교탐방 과정에서는 사전에 가고싶은 학과를 섭외하도록 미션을 주었다. 모듬이 가기로 합의한 과(복수가능)를 섭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유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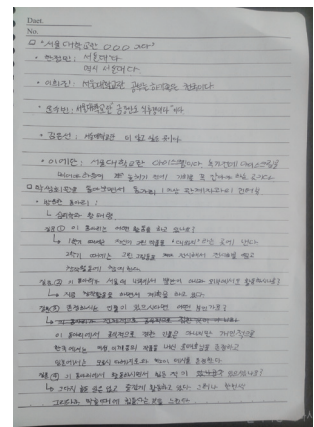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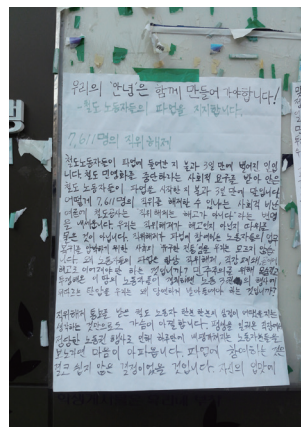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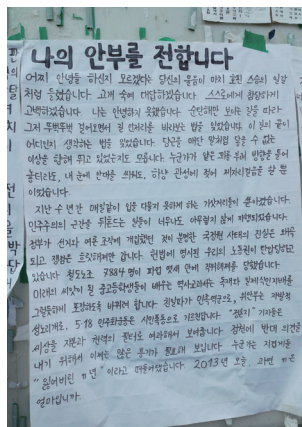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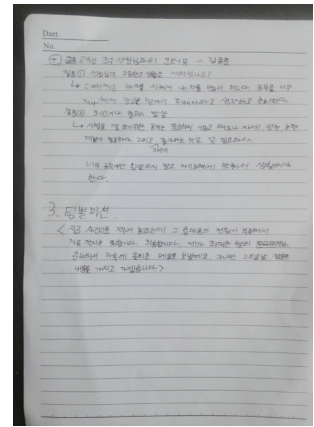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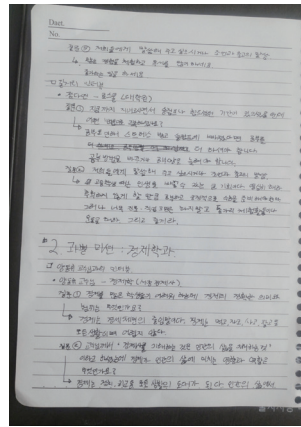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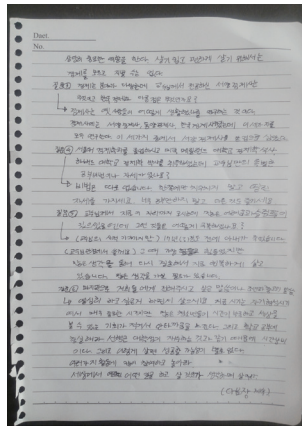
서울대 탐방에서 학과탐방, 페이퍼미션, 카톡미션, 돌발미션, 미션을 수행할 때 모듬에 조정할 수 있는 공동원칙을 두도록 촉진했다. 또한 모듬대표에게 미션이 집중되거나 주도적인 한학생에게 물리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협업의 구체적인 맥락은 협업, 자발성유도 및 시도, 자발성의 확대유도, 기획자



(매개자)의 개입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매개자는 섭외되지 않았거나, 길거리 인터뷰에 말을 걸지 못하는 소심함으로 모두가 의기소침할 때 힘이 되어 주기도 했다.

특히 우리는 참여자의 협업을 유인하기 위해 협업을 구성원을 팀으로 나누고, 한 모듬에 5명을 넘지 않게 하며, 팀웍을 위해 팀명을 정하고, 역할을 나누어 팀 중심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모듬 중심의 활동을 유인한다. 우리는 모듬별로 3분 분량의 활동 영상을 제작하는 과제를 미션으로 주었다.



중국 이동학습 (Do you remember)



해외 이동학습은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한 중국어 교육과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사전과정, 준비과정(삼례, 대둔산 동학전적지), 중국탐방에 함께했다. 특히 중국현지에서 모듈별로 미션을 수행하는데 사전과정에 학생들이 제작한 중국어 수첩을 공용으로 활용했다. 상해의 동방명주, 밀랍인형관, 프랑스 조자치, 모간산루,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 배정개학 12개조
1. 동학고포와 정부는 영인 선언을
 2. 맺고 서명(조약)에 합의한다.
 3. 일본은 조약의 비준을 조차하여
 4. 일방적 정지한다.
 5. 항복한 부분을 일방적 정지한다.
 6. 불방한 총력 및 양면의 유지를
 7. 정지한다.
 8. 노비문서는 소각한다.
 9. 길가저 전인물과 처형을 개연하
 10. 고 백성의 정정고을 없앤다.
 11. 정정고을의 처분을 허락한다.
 12. 무명지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
 13. 권력 처분은 문명을 파괴하고
 14. 인재를 활용한다.
 15. 일본인과 대항하는 자는 엄중히
 16. 처형한다.
 17. 일본 공적인 것이나 개인적 것이
 18. 나를 학살하고 기왕의 것을 무로
 19. 쓰는다.
 20. 쓰지는 영문으로 나누어 정정한다.



남경 도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대학살 기념관. 1937년 12월부터 1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약 삼십만명의 남경주민이 일본군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 당했다고 한다.

상하이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아픈 역사도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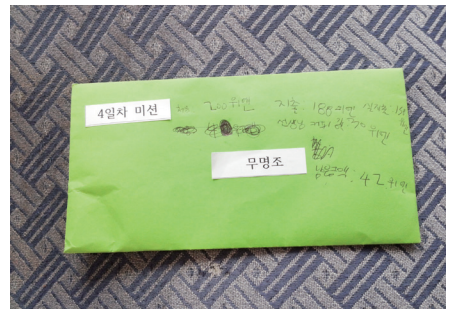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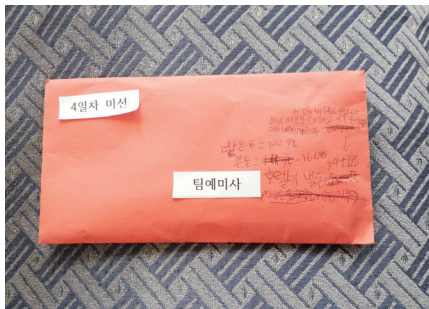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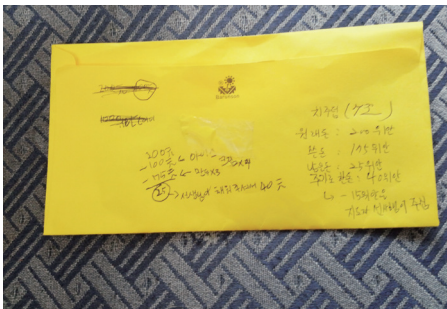
전북 완주 중학생들 중국 현지로 언어학습 떠나... 7일부터 3박4일

전북 완주군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교육연구소, 대표 양정숙)가 완주군 중학생들과 함께 해외학습을 떠난다. 교육연구소는 6일 완주군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28명이 군청 관계자 2명, 교육연구소 지도인솔자 6명과 함께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어 심화 해외이동학습을 떠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관내 초중학교에 중국어 학습을 권장해왔다. 이번 해외학습은 중학교 중국어 심화과정으로, 중국



현지 생활에서 언어를 익히고 역사인식도 제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행학습 주제는 ‘기억하는가?(DO YOU REMEMBER?)’로 삼았다. 언어학습을 역사공부와 연결하고자 한 것. 먼저 완주군은 동학혁명 2차 봉기 집결지인 삼례를 포괄한다. 삼례 동학로와 문화예술촌, 동학혁명 기념 광장을 도보로 순례한 것도 그 때문. 참여학생들은 삼례에 이어 지난주에는 역시 완주군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도 답사했다. 이번 중국 상하이 방문 역시 난징대학살과 임시정부청사 등 역사적 현장 방문의 성격이 가미됐다.

전북교육신문 2014. 1. 7.



2014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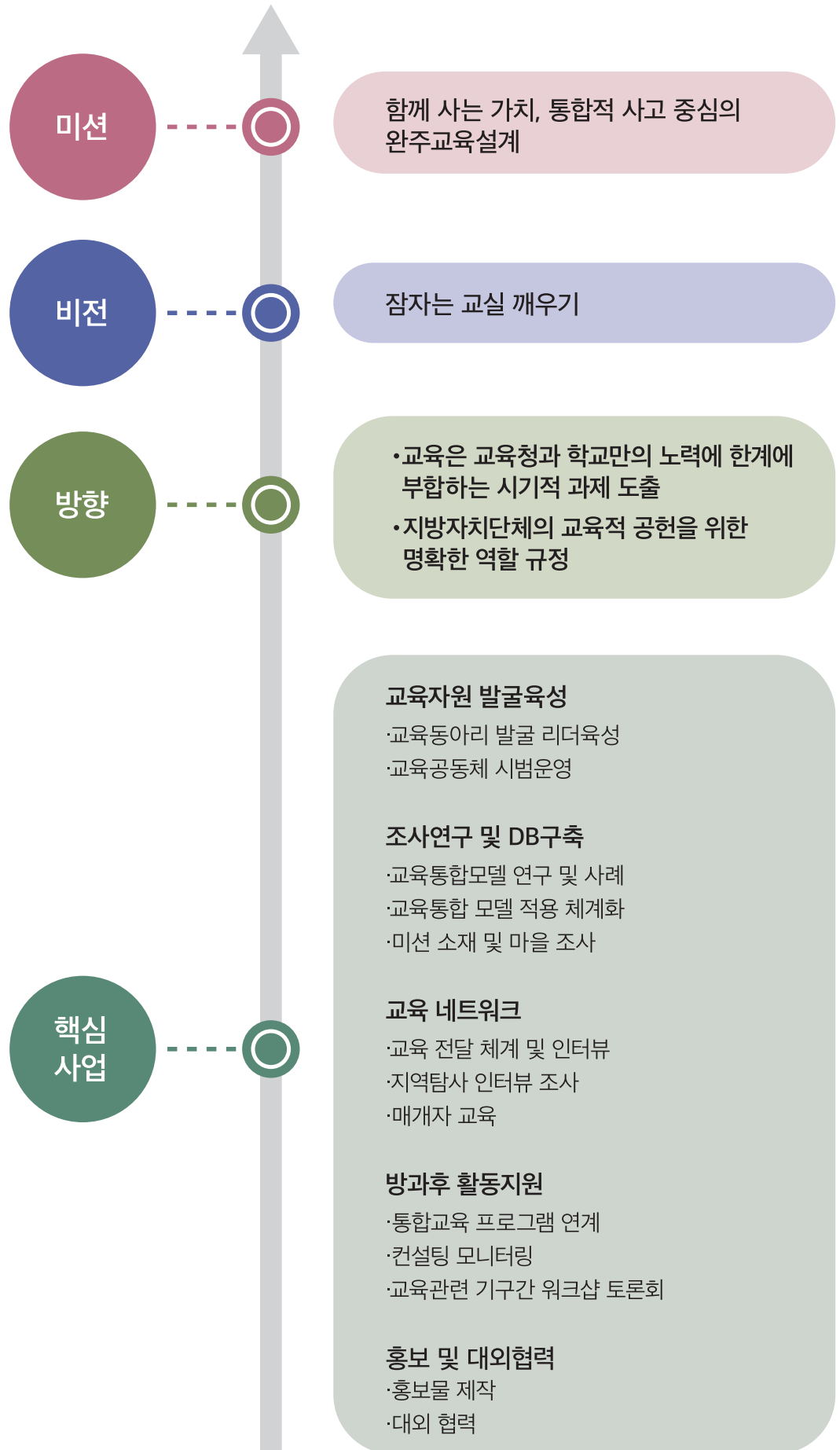
“

우리아이
어떻게
함께
키울것인가?



2014 - 2015

기반구축기 비전과 방향



연도별 사업요약

우리의 목표는 공동체의 복원과 발굴이 학생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자원 발굴을 위해 포커스그룹을 인터뷰하고 그룹내 표적 집단을 선택하여 교육하였다.

둘째, 발굴된 교육자원은 교육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고 동아리회원(학부모)의 고충을 수렴하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상호 교류하며 상보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교육공동체 출발은 엄마선생님, 동아리 형태의 작은 소모임까지 교육주체 교육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넷째, 교육주체로 성장하게된 교육리더 (매개자, 마을 강사)는 학교실행 프로젝트와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다섯째, 지역학부모,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소양, 용진, 고산에서 교육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의 발전과 정책 제안으로 확대 되었다.

세부추진사업

네트워크출발

- 고산네트워크



토론회

- 고산네트워크 1차 회의
- 고산공간 마련
- 2014 매개자 교육과정



숨은고수이야기

- 생강이야기
- 일편단심
쑥 사랑



포커스그룹

- 지역별포커스
그룹 인터뷰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14년 사업추진성과

2014년 제언



네트워크 출발

2014년 우리의 활동은 5가지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자원발굴 육성 영역, 교육네트워크(자원연계), 방과후 지원, 홍보 및 대외협력, 고유사업 등이다. 교육자원발굴 육성 영역은 교육동아리 발굴 및 리더 육성과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실행, 조사연구 및 DB구축 등이며 임성희와 도성진 연구원이 전담했다.



교육네트워크 자원연계는 교육전달체계, 매개교육, 서드&포스테이지 과정이다. 방과후지원은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 모니터링단 운영, 교육관련 기구 간 워크숍 및 토론회이다. 홍보 및 대외협력은 홍보물 제작 과 외부기관 협약등의 활동으로 양윤신과 박동진 연구원이 전담했다.

고유사업은 교육공동체, 마을미션과제 조사를 통한 교육통합사례 발굴 및 지원, 교육관련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분석교육관련 공모사업, 각종 사업을 통한 법인 자립확대, 교육관련 위기 상황 연계와 자립 조직 발굴 및 지원등으로 임성희·도성진·양윤신·박동진 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5가지 영역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살림살이는 조미영·임성희 연구원이 전담했다. 교육통합지원센터 사업은 내부규정에 의해 가이드 되었고,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가 완주군으로부터 위탁되어 운영되었다.

가천교육공동체 활동은 소양지역 학부모와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소양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우리가 고민하던 모종의 무엇과 일맥상통했다. 당시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단면의 한 자락을 가져온다.

“학생들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낙인찍는다고 보고 있고 그 형태는 ‘몇 학년은 문제가 심각해’ 등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학생들을 상대로 쉽게 사용하고 있다고... 핵심은 학교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덮어두기 바쁘지, 해결 의지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2014년 8월 21일(목) 소양주민자치센터(철쭉도서관 1층)에서 소양지

역 학교를 관계자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 같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라는 워크숍에 집중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자원조사팀은 전북대학교 문화인류전공자 한유석, 김종원, 이훈으로 구성했다.

특히 학생들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본 인터뷰도 있다.

“학교에서 어떤 일정을 결정할 때 어떤 경로로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학교의 관리자가 이를 받아들여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중략) ... 그런데 다 결정된 사항인데 위로부터 허락 받지 않고 사전에 결정했다고 해서 일정 자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전달 체계구축 ‘고산 아동·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공론장으로 이어졌다.

일시 : 2014. 12. 26(금) 19:00 ·21:00

장소 : 완주 고산면사무소

참석 : 지역 주민 100명

주제 : 고산 아동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워크샵

그날을 회상하면

고산 지역의 아동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지역민 포함 참여자가 100여 명에 육박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산의 아동·청소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지역민들이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시간이었다.

정건희 소장은 청소년 시설의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자신의 경험담을 근거로 실제로 지역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청소년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돈벌이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에서 임동빈 문화관광과 계장과 김병수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당시(2014. 12. 9) 지역 언론은...

완주군 교육통합 지원센터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고산지역 교육활동 관계자들(고산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방과후강사,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교육통합지원센터)과 모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고산에서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현황 등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대안들을 논의하였다. 시급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동안의 고산네트워크 명칭을 “고산지역 아동청소년 성장을 돕는 통합돌봄 네트워크”로 명명 첫 번째 장으로 “고산 아동청소년 공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공론장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고산면사무소 2층에서 고산지역아동청소년 성장을 돕는 통합돌봄 네트워크 공동대표 백승운 신부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기조발제로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교수가 참여하고, 문화관광과 임동빈 계장, 주민생활지원과 김병수 씨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지역 주민 100여 명이 모여 고산지역 아동청소년 공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켰다. 지역주민 송모 씨(50세)는 “이제 공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다음에는 지역주민 학부모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심도 있는 토론회나 좌담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건희 소장님께 청소년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문화의집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군에서 생각하는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복합공간을 지역주민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2014년 고산 청소년 공간마련 역동

지역사회관계자 인터뷰, 지역사회 전반적인 흐름, 고산 교육활동가 만남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견인했다. 함께 하신 분들은 고산지역아동센터·고산성당, 고산향·드림스타트·웃음꽃치료센터이다. 이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 현황 I, 지역사회 돌봄 현황 II, 지역사회 돌봄 현황 III의 논의를 모으고, 고산통합돌봄네트워크 명칭 합의, 고산통합돌봄네트워크 고산지역 학부모 미팅, 고산통합돌봄네트워크 청소년공간을 위한 워크숍 계획 등의 미팅을 진행했다.

◆ 초대합니다 ◆

고산은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있고 5개 면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동안 고산지역 교육 관련자들과 학부모, 드림스타트, 교육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논의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청소년이었고 청소년문제 가운데 공간이 시급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에 청소년 공간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합니다. “고산 아동 청소년 공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간 발걸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14. 12.

고산지역 아동청소년 성장을 돕는 통합 돌봄네트워크
공동대표 백승운 송광섭



토론회 고산네트워크 1차 회의



고산네트워크 1차 회의 기록

일시: 2014. 5. 13. 9:30 장소: 고산성당

고산성당 차운선분과장, 왕미녀계장, 김희숙, 박헌정 사무국장

양윤신 팀장·고산 지역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교육의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고산에는 여러 교육관련 기관이 있지만, 다 해결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노출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임성희 팀장·고산지역 학부모와 인터뷰를 통해서 고산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육에 관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왕미녀 계장·농촌지역의 아동은 모두 돌봄이 필요한데, 취약계층이나 일반아동이나 비슷하다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우석대와 준비하고 있다. 아동예산이 적었으니 앞으로 신 단체장에게 요구하겠다. 이런 자리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고산향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돌봄 또한 학교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돌봄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학교와 아동센터를 엮어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돌봄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삼우초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결의 좋은사례가 있다.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다인이 때문에 학교에 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학교일을 멀리하고 있다. 많은 상처가 있었고 해결하려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신경을 끄고 있다. 교사와 상담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다.

학부모 교사도 50대로 교사들이 쉬러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업무분담도 너무 예민하고 싸우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은 너무 어렵다. 학교는 밥먹으러 온다. 쉬는날은 아프거나 건강해도 집에서 케어가 안된다. 아이들은 어휘력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소통도 안되고 교육도 안된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학부모 ‘공부 못하면 고산고 간다’라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엄마들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교육은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부모가 지원하게 되었다. 완주가 교육 지원을 많이 하지만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아동과 따로 분류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나 합쳐서 통합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별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연령별로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삼우초 보낸것이 충격이었다. 무기력하고 힘들었다. 학교가 경쟁을 부추키면서 줄을 세우고 있다. 결과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권이냐?’,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냐?’에 학교와의 마찰이 있었다. 소통을 제대

로 하는 학생들이 없었다. 아이들이 너무 폭력적이다. 학교 교육이 너무 무기력하고 한두명의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진로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있고 너무 어수선하다. 가정에서도 교육을 전혀 안해서 방학, 개학하면 다시 도루묵이다. 밥도 못먹고 온다.

고산향 고산중 현재는 만족한다. 희망적이 되었다. 때가되면 공부도 하게 된다. 축구교류도 하고 있다. 고산고는 학부모가 1년에 30번 정도 간식을 주었다. 무기력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있다. 14명이 지금은 30명이 늘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선생님들도 표정이 달라졌다. 현재는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산들바람 많은 아이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치료하고 있다. 치료과정에서 고산지역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한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의 문제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봄이 필요하다. 부모의 돌봄능력이 부족하다. 부모님을 교육해서 가르치기는 어렵다. 제2의 부모가 필요, 신뢰가 필요하다. 도움을 주기위해 접근하려고 해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아기로 태어나 후천적 장애를 가진 친구도 있다.

고산향 충분하게 간식을 먹여주고 아이들 생각을 들어주면 아이들 대부분 모두 이야기하는 기억이 있다. 6월에 인문학수업에 초대하겠다.





차운선분과장·아직 나설 단계가 아니다. 마음만 가지고 왔다. 자녀가 4명이다.

고산성당신부·움직임이 있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 회의 주제가 너무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공간과 계층 또한 연대가 필요하다.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고산초 초기에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예방하면 고산중도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도 오면 좋겠다 고산지역 사회복지사도 필요하면 불렀으면 좋겠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과 점차적인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따오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것은 여러단계가 필요하다. 예산이 있어도 학교는 '업무과다로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양윤신 팀장·주제없이 만남을 만든건 모두가 참석하고 쉽게 만나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이다. 다음에도 주제 없이 만나고 차후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고 지금은 상호간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고산공간 마련



최민옥(준엽맘 고산중), 강김산하맘(고산중), 김종섭(김인수 부 고산중), 강명숙(한채희맘, 고산중), 박은라(효빈맘, 고산중), 현경할머니(고산어린이 집), 이장현 부(고산초), 손찬호(고산중), 임치우맘(삼우초), 최민옥(준엽맘 고산중), 강김산하맘(고산중), 김종섭(김인수 부 고산중), 강명숙(한채희맘, 고산중), 박은라(효빈맘, 고산중), 현경할머니(고산어린이집), 이장현 부(고산초), 손찬호(고산중), 임치우맘(삼우초), 이종인(세월호집회 위원장 고산중), 차남호(고산중), 박용범(삼우초), 여광범(삼우초), 양근식(삼우초), 이종란(고산중), 박선경(삼우초), 박수옥(삼우초), 최숙경(삼우초), 강성욱(고산중), 조영호(삼우초), 김혜정(삼우초), 조연우맘(삼우초), 문정우(삼우초), 이아진(고산초), 이명주(고산중)

2014 매개자교육과정 동영상(QR)



A YouTube video player interface. The video shows a classroom setting with a woman standing and addressing a group of seated people.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2014 매개자교육 심화과정" (2014 Mediator Education Advanced Course). The video player includes a progress bar at 12:35 / 35:00, a play button, and various control icons. Below the video, the channel name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Wanju-gun Education Integrated Support Center) is displayed with 145K subscribers, along with a "SUBSCRIBE" button and a notification bell icon.

① 매개자 교육과정 이야기

매개자 교육은 교육통합형 전문가를 그룹으로 배출하기 위한 과정.
우리는 협업을 기초한 교육통합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오리엔테이션 -양윤신(인사나누기, 프로그램 설명)

교육통합프로그램이란? -센터, 임성희

레크리에이션과 모둠 활동 -한상준

선호유형 검사를 통한 모둠 만들기 -센터, 임성희(모둠구성, 역할 나눔)

현지조사 방법과 스토리텔링 -한유석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센터(미션지 제작, 워크북제작, 미션비·예산 편성) -양윤신

인터뷰 재미있게 하는 법 -한유석

모듬의 구체화 -센터(인터뷰방법, 지역 교육소재이야기) -양윤신

첫 교육은 한상준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초빙되어 “- 아이스브레이크와 스팟으로 바라본 매개자”라는 주제의 강의와 함께 흥겨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모듬 협동 작업의 중요성과 의미 등에 대해 게임과 접목시켜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② 매개자 교육과정 이야기

한유석의 현지조사 방법과 스토리텔링

“현지조사 방법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의 주된 목적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인터뷰하는 방법과 현지조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론을 체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으로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지나친 과장과 개연성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한 매개자를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활용한 교육생들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 해보는 시간도 있었다. 각 교육생들의 다양한 성향들을 보면서 향후 모둠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MBTI의 대극차원의 ST, SF, NT NF를 중심으로 서로간의 차이를 경험했다.

현장 프로그램 실행 -김현우, 센터

(미션전달식, 공동·개별·돌발 미션, 길거리 인터뷰, 모의작당, 미션비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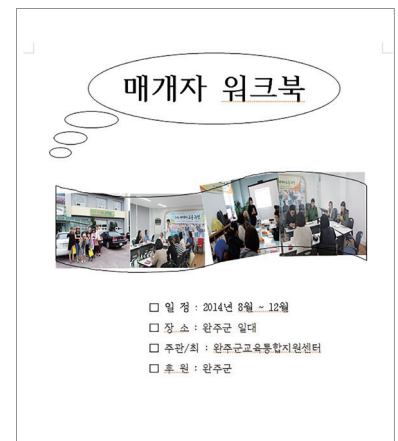
③ 매개자 교육과정 이야기

권민식의 키네마스터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방법 / 편집, 시나리오

매개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그간의 사전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소양면 일대에서 미션 수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생 11명이 참가하여 오전에는 현장 미션 수행, 오후에는 오전에 실시한 내용을 모둠별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동영상제작 방법 교육 (동영상제작프로그램 다운로드, 편집, 시나리오 작성 등)

노트북, 휴대폰 활용하여 제작



생활의 숨은 고수 이야기



“내 살아온 이야기를 허른 책으로 열권은 넘을겨 아마 몇 날 밤을 새도 다 못 허”

서드엔포스에이지는 노화의 시기로 성공적인 삶을 이룩하고 짧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준비가 아니라 단계를 뜻한다. 한발 더 나아가 서드 앤 포스에이지는 삶을 마감하는 노후 세대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교육적으로 풀어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의 달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서드 앤 포스에이지를 생활의 숨은 고수로 이름 지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는 책 열권을 보는 것이다.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을 무심코 버려두고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으로 연명하던 시절,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로 싸가지고 다니던 그때, 돈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해 한글을 터득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견디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며 세월을 보낸 그분들의 이야기가 재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2014년도 교육소재 개발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 ‘삶을 재해석 하다’는 지역의 ‘생활문화’에 주목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지역에서 만들어낸 어른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 지니고 있는 가치, 즉 ‘살아봐서 아는 실천적 삶에 대한 여러 어른들의 경험’을 새로운 교육적 가치로 발굴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조사의 목적이었다.

생강이야기

생강의 숨은고수 소귀순 어르신



Q “생강의 효능이 무엇이 있나요?”

A: 감기예방이 되고 뇌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시키고 몸도 따뜻해지고 생강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Q “언제부터 생강을 키우셨나요?”

A: 봉동에서 나서 봉동으로 시집을 갔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생강을 키웠어.

Q “생강을 어디에 보관하나요?”

A: 생강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허. 그래서 굴에다 넣어야지 생강농사 짓는 사람들은 굴이 하나씩 있지. 우리도 있어. 생강을 꺼내오려면 굴까지 가서 가져와야 허.

생강청 만드는 순서

1. 생강을 씻는다.
2. 생강껍질을 벗긴다.
3. 믹서에 갈거나 절구통에 찧는다.
4. 다 갈아진 생강과 노란설탕을 넣고 섞는다.
5. 섞어서 약한불에 약간 녹인다.
6. 물에 타서 먹는다.

생강은 향강이다. 쓸모많은 생강이 향강으로. 생강이 아니고 원이름은 향강이여. 이름이 생강으로 바꾼지 얼마 안돼요. 원래 향강이었는데, 향강이 최초에 듣는 말로는 저 봉술밀산 밑에서 약초 개는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돌아다니다 그 아주 향이 좋은 냄새가 나서 이케 봤더니 그게 지금 생강 나무여.

일편단심 썩 사랑

썩떡 고수 박동녀 할머니



▲썩은 내 운명

썩을 캐오면 친정엄니가 그놈으로 썩떡도 만들고, 썩죽도 끓이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그것말이 아니라 쌀을 한주먹만큼만 넣고 다섯 식구가 먹을 죽을 끓여. 쌀요만큼 가지고서 말여. 썩만 넣고 죽을 끓여. 그러니까 내가 계속 썩만 먹고 살았어. 거기다가 울엄니가 나같이 썩을 말려갔고 떡을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떡을 그렇게 한다는 걸. 어디 가서 배우기를 혀 넘한티 보기를 혀. 어매가 해놓은거 밤낮 먹고 하는 거 봐서 알지. 우리 어머니가 콩도 농사져갔고 계속 떡을 해놔. 나는 그것뿐이 다른거 없어.

쭈은 아무디나 또 못캐. 천지가 쭈이라도, 인자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께 암디나 못캐. 박동녀가 암디서나 쭈캐서 떡만든다는 소리 들을까 무서운게 나는 어디 산속이나 먼디 냇가 같은디 깨끗한디 가서 뜯지 이런 질 가서 안뜯어. 나는 비법이 그런 것이지. 다른 비법 있간디.

▲쭈떡 할머니로 유명해지디

항시 사람들이 먹어보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꼬. 인자 고산휴양림(와일드푸드 축제)이 생긴디. 면사무소서 알려와가꼬 거가 떡을 할 수 있다고. 면사무소서 그러더라고.

떡을 그렇게 만나게 한디때 하면서 나를 오라고 혀. 갔더니 그럼 떡을 맛을 보여 줘야 할 거 아니냐고 면사무소서 그러. 아닌게 아니라 떡을 해가꼬 맛을 보여줬어. 다들 참말로 맛나다고. 옛날 그 군수님도 내 얘기 하드라니께. 떡이 맛나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재료같이 하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좋은 쌀로 콩으로 하는 사람 없다고.

▲산 저승 갔다온 심정으로 본 면허시험

내가 운전면허 17번 만에 붙었어. 근데 대학생이 30번 보고도 떨어졌는디 그렇게 따지면 빨리 붙은 것이여. 날마다 학원을 쫓아댕겼지. 지금은 시험볼라고 하면 차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 거기 갈라면 버스타고 고려병원 앞까지 가야 됐어. 고려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또 버스타고 오고, 날이면 날마다 다녔어.

근디 맨날 떨어지니께 창피해서 하루는 혼자 버스타고 학원을 간다고 했어. 그날 합격한 것이여. 혼자하니께 잘돼드라고. 78점으로 합격했어. 강사가 와서 “아줌마 됐어요” 하는디 참말로 좋아서 날아갈 것 같드라고.



포커스그룹 지역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경천면

-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구조
- 작은 학교 살리기
- 교육통합연구 사례
-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 교육소재개발 자원조사결과
- 숨은고수이야기
- 교육공동체 형성문제
-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 교육통합연구 정책
- 운주중학교 -벽화공동작업 및 간담회
- 소양중위크숍(사전 현장, 사후)

소양면

- 이주민의 강력한 결합도 교육견인 가능
- 자발적 민간 동아리지원,인터뷰
- 소양중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 초·중등 동아리 결성 및 네트워크 지원

동상면

- 지역사회 학부모와 만나기 어렵고 이주해온 학생이외 지역사회 학생은 조부, 조모와 생활하는 경향
- 지역사회 동향 파악 추가 인터뷰
- 학교살리기

운주면

- 지역사회 갈등 조정·운주중 살리기
- 학부모 조직 역량강화
- 지역과 학교의 연결
- 교육공동체 형성

고산면

- 고산 네트워크 단계별 지원·공론장 마련
- 이주민·원주민의 갈등구조 순화 계기
-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단계별 지원





용진면

- 용진중 살리기 프로젝트지원
- 초·중등 동아리 결성 및 네트워크 지원
- 용진중 성장프로젝트(리더십, 체육대회, 축제, 진로직업)
- 지역사회 방과후 연대

구이면

- 대부분이 학부모 맞벌이
- 교육공동체 결집이 미약
- 학부모 모아낼 계기 -매개자교육
- 초등에 집중된 관심 중등에 최소화
- 지역사회 동향 파악 추가 인터뷰

이서면

- 구도심과 원도심간의 괴리
- 사립중학교의 특성
- 원주민(15년 이상 정착)과 혁신도시 이전한 주민 간의 문화적 격차
- 고등학교 문제
- 교육공동체 결집계기 -타운홀





고산면

이희석 면장, 이은종총무계장이 함께 해주셨다. 마을사업으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을 했었는데 돈이 생기니 싸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과 개인의 불신이 너무 심해지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줄게 없다고 하셨다.

경천면

하태욱 면장과 같이 했다. 특히 생활의 숨은 고수로 박정술 경천지역 품물단장을 추천해주셨고 요동마을 홍성태님을 추천하셨다. 가천학부모와 농촌학교사랑, 가천초가 만나자고 하였다.

동상면

최낙범 면장, 윤재관 부면장

도로망의 발전으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고사리 및 능이버섯 등을 씨를 말릴 정도로 채취하여 농가소득의 문제가 발생 함. 생활력은 굉장히 강한 곳이다. 노는 사람 없고 전주시내에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으며, 전주 등으로 유학을 많이 보낸다.

상관면

- 지큐빌 지역정착 기간이 짧고 교육공동체 결성이 7개월 이상 가지 않음
- 가정해체 비율이 대단히 높음

삼례읍

- 학부모 집중 공략
- 삼례중·여중 통합문제 사전탐색 인터뷰
- 삼례 매개자 준비모임(대학생)
- 삼례지역 아버지학교 개설

봉동읍

- 지역고등학교 진학을 거의 하지 않음
- 대부분이 전주로 고등학교 진학
- 매개자 준비모임을 위한 협동조합
- 지역사회동향 파악 추가 인터뷰



소양면

전영선 면장, 조유미, 박미경학부모, 강정주학부모가 함께 하셨습니다. 소양면에 학생들과 청년이 만나기 위한 공간적인 시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식 먹게 해줄 수 있는 후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2017년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서 작은도서관을 구 주민센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도서관 자리의 활용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는 학습센터,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시설등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육이랑 행정의 역할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농촌활력사업도 중간지원조직(CB)가 있어 가능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할 일이고, 문제 있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앞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원 및 후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봉면

- 신봉동과 가까운 환경
- 외곽지역 위치로 학생연결(봉서중)
- 비봉초등학교 특성에 따른 학생유입

구이면

유선희 면장을 시작으로 송재홍 교장, 주명자 교감과 만났다. 유선희 면장은 구이 지역 생활의 숨은 고수 추천 협조 요청했다. 숨은 고수로는 짚신공예와 북한식 된장(이순선님)을 연결해 주셨다. 송재홍 교장과 주명자 교감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활동 촉진을 요청하셨고 학교와 프로그램연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잘 못나오는 건 현실적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3



월 교육과정설명회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작년의 경우 외부 강사가 와서 진행했는데 수업내용은 좋았으며 다음에 이 강사가 또 오면 인원은 더 올수도 있다고 했다. 선생님과 대화 속에 모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학교와 항상 연락은 하지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다수였다.

구이초 학부모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A선생님은 학교 행사시 학부모에게 도와달라고 많이 하시고 학부모 구성은 되어져 있으나 정례화 되어져 있지는 않았다. 현 학부모회장은 활동적이기는 하나 학부모 의견은 반영을 잘 안하고 독단적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2015년 회장 선출되면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실행한다고 보고 있었다. 학부모 회의 일지에 교사에 대한 칭찬을 써줘서 그 일지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교사 회의때 교장이 그 내용을 읽어주면 교사의 힘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춤추는 교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부모 회의를 공식화해서 학교에 말하면 효과 더 크다고 했다.

구이초 학부모

돌봄(방과후) 설문을 매년 말에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반영이 안되어져 있다. 학교에 물어보면 학부모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수렴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다른 한 초등학교는 설문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을 보고 아쉬움이 많게 되었다. 이런 요



구로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만 다르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 게시를 해달라고 요청 하는것도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 회의 때 의견 모아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챙기면서 교사는 아이의 기초학력을 챙기기 시작했다(아이들 중심으로 학부모의 역할 새롭게 바꿀 필요 있음).

구이면 학부모

전주에서 전학을 온 한 학부모는 등굣길에 학생들을 보면 어깨가 축쳐져 있는데, 구이학생들은 어깨 쳐지지 않고, 등교 하는 모습을 보면 좋다고 하였다. 학부모 의견 종합해서 학교와의 이야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

현재 학부모회의 안건은 대부분 학교 사업의 예산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방과후 및 학교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다. 그럼에도 구이초에 좋은 선생님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회의 및 동아리 모임 등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의 교감을 이끌어 낼 필요 있다.





삼례면

박치규 면장과 삼례여중 유기준 교장과 배창수 교감, 삼례중학교 정나영 교장, 김동철 교감, 삼례초 곽황래 교장이 함께 했다. 곽황래 교장은 완주군의 드림스타트와 연계되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파악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다. 센터와는 실행프로젝트 요청을 하셨다.

박치규 면장은 삼례에서 생활의 숨은 고수로 부스개를 만드시는 김공순님을 연결하고 하리조사마을과 총무과 조유미 주무관과 연결해서 숨은 고수 추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다.

유기준 교장과 배창수 교감은 학교와 센터간 프로그램 연결을 요청하셨다. 정나영 교장과 김동철 교감은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소란스럽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상관면

김춘식 면장, 이정환 팀장, 상관작은도서관과 함께 했다. 이정환 팀장은 임달마(아코디언연주), 임태웅(장구연구가), 김기춘(돌쌓기 기술), 심기란(목공예가), 윤명호(화가), 유경화(고사리 끊기) 등의 생활의 숨은고수를 추천해 주셨다. 상관 작은 도서관은 온돌 독서공간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쉬었다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주부독서회의 활성화 및 지역내 인적자원을 재능기부자로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공간 연계가 논의 되었다.

지역학부모 중에는 학벌, 가정형편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은 학부모회의

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평가에서 1학년 ~ 3학년 담임은 그냥 일반적인 평가로 “다 잘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4학년 담임은 아이의 세세한 것까지 말해주며, 장점 및 단점까지 말해주는 교사를 보며 후자의 교사가 정말 좋은 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양면

소양서초 학부모(강정주 씨)는 학부모회 분위기는 기존하시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현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학교행사가 있을 때 학부모들은 다들 바쁘셔서 2명 정도만 꾸준히 참석을 하신다고 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도 신청 하려고 한다. 올해는 학부모 회장을 계속 해야되는지 고민이다. 학부모들이 거의 소양중에 있는 어머니들이다.

3월에 임원 선정되면 다른 분들과 함께 다음에 만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으며, 소양중 학부모들도 많으시다고 했다.

진훈이 어머니(정숙), 예찬이 어머니(유재희), 대현이 어머니(노다준코) 장우어머니(이지연)

교장선생님은 의지는 많으나 의견을 받아주는 사람이 교사가 아닌 학부모가 되어 있었다. 교장선생님께 좋은 교사분을 엮어 줘야 하는데라는 생각과 학부모가 좋은 교사를 찾아서 힘을 실어줘야 함을 느꼈다.





소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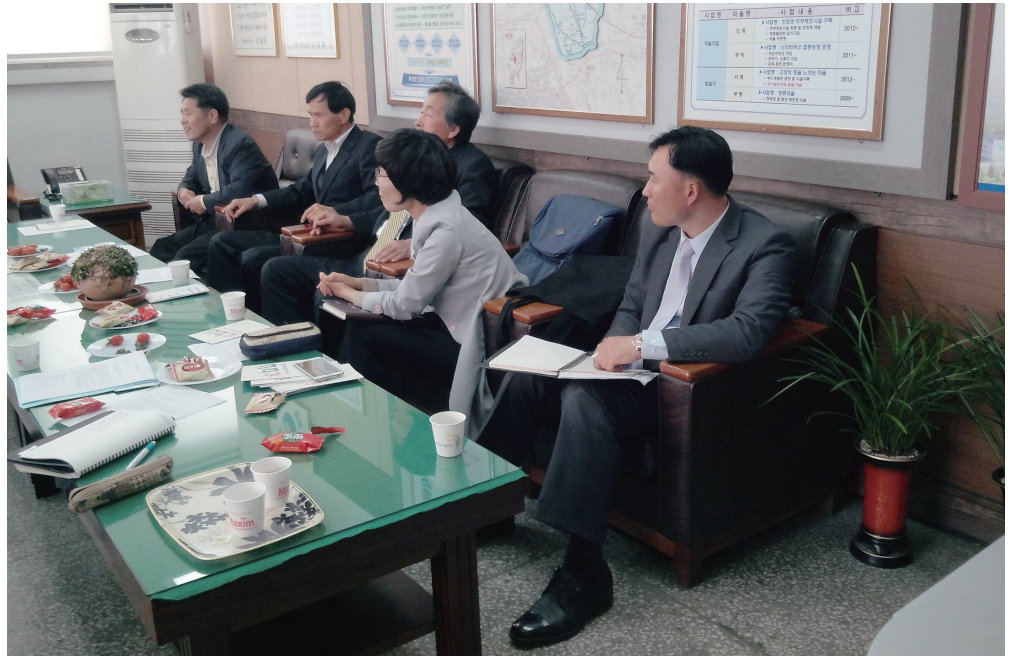
소양서초 학부모는 조직속에 들어있는 선생님과 일반으로 나와 있을 때의 선생님의 느낌은 다른 듯하다. 처음 교장선생님 만날 때는 좋아보였으나, 보다보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왔는데 겪어보니 조금 다른면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다.

2학년 선생님이 좀 좋은 분이신 것 같았다. 좋은 선생님을 찾으면 센터에서 광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모임에 팀을 이루어 들어가야 했다. 현 운영위원장은 학교에 너무 친화적이신 것 같다. 학교를 보면 길으로만 보이기에 좋은 면도 있는 듯하다. 인성은 부모님의 품성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혁신학교랑은 다르다는 느낌이다. 교감선생님 스타일은 뭐든 귀찮아 하셨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스타일이 맞지 않아 그사이에서 집행부인 학부모가 힘들어보였다. 마을 탐방 행사도 학부모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선생님들은 전혀 진행을 안하시고, 행사 때도 교장선생님은 참석하시나 선생님들은 참석을 잘 안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봉동면

채동천 교장, 기명순선생님, 이랑 최대회 대표, 웃음꽃 박혜영 센터장과 같이 했다. 봉동초(고산) 봉동초양화분교장 김민제 분교장은 봉동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의사소통이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학생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 예산 감축에 따라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요청 하셨습니다.

채동천 교장은 진로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 있으셨다. 교육복지 대상 60여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셨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협조적이어서 체험활동을 나가면 5~6명의 선생님들이 참석 다른 학교와의 연합프로그램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하셨다.

2014년 진로교육은 2학년 학생들 전체로 실행을 하였으며 각 직업군이 각 교실에 파견되어 수업을 듣는 방식(제빵, 엔지니어가 인기가 많았음). 학교의 예산과 센터의 예산을 접목에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도록 논의했다.

완주고등학교 이찬규 교장, 최낙일 교감, 권정순교사는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다. 이랑 최대희 대표는 심리운동, 언어치료, 인지치료, 단체 심리운동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점은, 단체 심리운동을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진행하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폐나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수업 진행하고 있었다.

운주면

윤재봉 면장, 장윤석 교장 등과 함께 했다. 운주는 지리적으로 완주군에 소속은 되어져 있지만 충청남도과 가까워서 지역민들이 충청남도 지역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지역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운주중학교 장윤석 교장은 2014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하였고 2015년에도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연계되길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중이며 관련 프로그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벽화 그리기 작업을 올해에도 더 진행해주길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진면

전현숙 면장이 함께 했다. 지리적으로 전주와 가까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잘 사는 지역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전주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입을 한다. 면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지역토박이 박군식 씨는 용진중학교 학부모형이며 아이가 뉴질랜드 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화산면

권현식 부면장, 이경미 주무관, 배점동 주무관이 같이 하셨습니다. 권현식 부면장님은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과 소통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의 숨은고수 추천을 요청 드렸습니다.

全羅日報

370-2022

2014. 8. 22

[전라일보홈](#)
[정치·행정](#)
[사회](#)
[경제·과학](#)
[문화·교육](#)
[레저](#)
[스포츠](#)
[지역](#)

[전라 칼럼](#) | [전라](#)

> TODAY : 114년 8월 25일 (월)
 기사검색

기획 특전
[전라일보가 만난 사람](#)
[월간기획](#)
[우리가게릴 지방시대](#)
[마법같은 당신](#)
[원한식의 핵이야기](#)
[소민우의 성을 일지](#)
[세무상담 Q&A](#)
[부동산상담 Q&A](#)
[증권 칼럼집이](#)
[우리고장 영상 순례](#)

● 전라일보 > 사회

원주 교육통합지원센터 토론회 눈길

작성시간 : 2014-08-22 이병재 기자 [메일보내기](#)



농촌지역 아이들을 지역과 주민, 그리고 교육기관이 어떻게 함께 키울까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원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대표 양정숙)는 지난 21일 오후 소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소양지역의 학생, 학부모, 초·중·고 교사, 지역사회의 교육종이리가 참여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선호 전주신일중학교 교사는 기초발제 '원주교육 발전 방향과 교육주체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통해 지역 교육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과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원주지역의 경우 관련 교육중간조직이 활성화돼 있어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명자 흥진중학교 교사가 그동안 원주교육통합 지원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학교와 교사의 눈으로 논의해 주었고 학부모 입장으로 소양중학교 박세운씨, 유관기관 입장에서 김은희씨가 각각 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와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실행한 교육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으며 공론장에 모아진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 교육전문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토론회 중간에 소양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과 자신들을 바라보는 학교와 학부모 교사들의 관점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병재기자·kanadasa@

나도 한마디
[자유 발언대](#)
[기사 제보](#)

연시이드 전라
[오늘의 운세](#)
[사랑발 새벽편지](#)

전라 문의
[광고 문의](#)
[구독 신청](#)
[제휴 문의](#)
[교출처리연](#)

80 | 81

2014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비고
교육자원 발굴육성	발굴육성	• 7개 동아리	• 8개 동아리 83명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인터뷰
	프로그램개발 실행	• 2개 학교	• 2개 학교 770명	
	교육공동체역량 강화	• 2개 지역	• 가천공동체 30명 • 운주공동체 40명	역량강과, 워크숍 간담회
조사연구 및 DB구축	연구 및 사례	• 사례회의 5 • 자문회의 8 • 토론회 3	• 소양, 용진, 가천 20회 200명	사례회의 및 자문회의, 토론회
	DB구축	• 교육미션 소재	• 소양,경천 • 생활의 숨은고수 200여 명	구슬생애 인터뷰 전사
네트워크	교육전달체계	• 간담회 7 • 워크숍 1 • 네트워크 10	• 용진간담회 7회 • 고산워크숍 1회 • 고산네트워크 13회 • 삼례네트워크 2회 500명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관계자
	매개자 교육	• 30차시	• 소양, 구이, 삼례 399명	1회 10명 ~ 15명 (기초,심화)
방과후 지원	교육통합 프로그램 연계	• 1개교 용진중	• 21회 1,350명	프로젝트, 체육대회, 진로직업캠프, 축제지원
	교육관련기구간 워크숍	• 5개 관계자	• 3회 130명	워크숍
홍보 대의협력	홍보물 제작	• SNS	• 4종	관계지역학부모
		• 리플릿 제작	• 1종	온라인발송
		• 교육지도 제작	• 1종	
		• 탁상달력 제작	• 1종	
		• 1개교	• 교육토론회	

2014년 제언

2014년 네트워크 출발은 지역순회를 통해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발굴된 자원을 동아리 모임으로 묶어 내고(일상의 사례 공유), 정보를 교류하여 동아리 활동을 확장시켜 나갔다. 동아리 활동들은 매개자 기초, 심화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굴된 사람자원들이 계속 전문화 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개자가 하는 프로젝트인 교육통합 모델(공동대응)은 학교에서 매개자가 교육활동의 기회를 넓혀 가는 과정이었다.

* 매개자 프로그램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

양성된 매개자(마을 강사)는 교육통합모델에서 학생중심수업(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모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매개자는 2개단위학교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에 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방과후지원활동인 체육대회, 진로직업캠프, 축제지원 등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갔다.

지역에서 '우리아이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라는 공론장에서 지역교육의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면서, 교육관련기구 간 워크숍과 교육토론회를 통해 지역교육에 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국 이 과정은 사람을 만나고 다시 연결하여 묶어 내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교육과정에 풀어내는 순환과정이었다. 이는 교육컨텐츠개발을 위한 숨은고수발굴, 지역별 포커스그룹 인터뷰, 공간마련 토론회의 사업 추진을 통해 구현했다.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통합(공동대응)을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 고산지역 공간마련 토론회, 교육컨텐츠개발(숨은고수 발굴)등은 교육통합의 기반이 되는 컨텐츠와 관련된 사업이다. 우리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면과읍 관계자, 초·중·고 단위학교 관계자,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12읍을 최소 2회 이상 진행했다.

현장과 밀착된 사업의 추진은 살아 있는 활동과 실재를 보여주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여 지역사회 요구와 시기적 변화에 부응하는 재구성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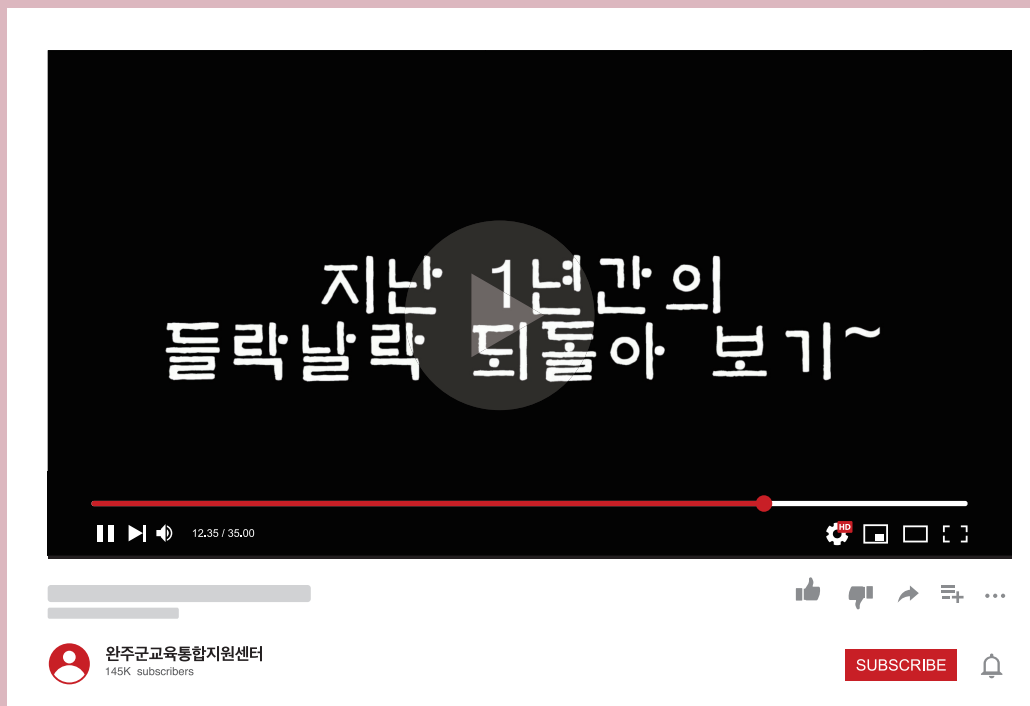
2014 - 2015

“

교육이야기,
현장과 만나다



2015 소꿈사 동영상(QR)



세부추진사업

교육네트워크

- 용진네트워크를 위한 간담회
- 간중초 학부모 모임
- 용진의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교육동아리 활동

- 맘스북클럽
- 한울타리
- 용진지역소통 공감
- 삼례지역
- 해피맘



2015 생활의 숨은 고수 삶을 재해석하다

- 비비정 마을의 맥가이버
- 봉사와 나눔의 삶



방과후 지원사업

- 봉동초양화분교 아지트프로젝트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15년 사업추진성과

2015년 제언



2015

교육네트워크 용진네트워크를 위한 간담회



· 용진네트워크 경과보고

- 간중초 학교 방문 - 교장선생님 1차 방문
- 간중초 학부모 미팅
- 용진초 학교 방문 - 교장선생님 1차 방문
- 용진농협 2회 방문
- 용진면사무소 1회 방문
- 용진초 학부모 미팅
- 용봉초 학교 방문 - 교장선생님 1차 방문
- 용진중 학교 방문 - 교사 및 프로그램 진행
- 용진중 학부모 4회 미팅

· 간담회 개요

장 소: 용진면사무소

참석자: 용진면장, 용진농협 조합장, 용진중 교장, 용진초 교장, 간중초 교장, 용봉초 교장,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목 적 : 용진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로서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교사 및 학부모를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져왔다. 이에 초등학교가 모두 모이는 중학교로부터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용진중학교는 학교 환경의 척박함 학부모의 활성화 학생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기력 기조를 어떻게 쇠신할 것인가가 놓여 있다.

· 현장의견

용진지역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구축하여 소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용진중 홍보(입학설명회)가 필요하다. 지역모임을 발전시켜 학교의 어려움도 공론화 해보자.

간중초 학부모 모임

중학교 입학 앞두고 지역 부모들의 고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완주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느냐? 전주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느냐? 라는 문제를 두고 현재 용진중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역 중학교 진학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중학생은 또래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전주지역으로 중학교 진학 시, 또래관계가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중학교를 다닐 경우, 방과후 학습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 할 곳이 동네에는 없다.”

‘지역학교를 활성화할 방안은 없을까?’



용진의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2014년 용진지역 학부모 교육동아리 용봉초, 용진초(가랑비), 간중초(슈퍼맘), 용진중(상록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15년 용따사(용진의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가 탄생되었다.

용따사 교육네트워크는 ▲미세스간중(대표 김미라) ▲또바기(대표 유미진) ▲용진중(대표 유금희) ▲용진초(대표 김민혜) 교육동아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교육동아리 활동 맘스북클럽

삼례 과일이야기 / 2015. 8. 25.(화) / 학부모 11인

삼례중·여중 통폐합 관련 의견 교류하였다.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삼례중·여중 통폐합과 관련 학부모 의견청취 및 지자체와 교육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대다수의 학부모가 지역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통합 의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 지자체와 교육청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 더 확실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나 기관과 학부모간의 소통체계가 빈약하여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부모의 의견이 관련 부처에 전해지도록 해야할 것 같다. 지속적인 학부모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자녀 교육에 대하여 학부모 대다수가 관심을 두고 있으나 각자의 소리를 한데 모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가진다.
-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삼례지역 육교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

- 삼례지역 등하곳길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다수 존재하기에 지자체에서 방안을 강구 해주었으면 한다.

한울타리

소양 들락날락 / 2015. 10. 7.(월) / 학부모 6명

- 교육동아리 지원금 사용에 있어 어려웠거나 불편했던 점은 지출하고 정산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다는 의견과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었으면 한다. 소양지역에는 각 학교별로 학부모 모임이 활성화 되어있고, 센터에서도 꾸준히 소양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경을 써 왔다.

소양지역은 모범케이스로 타 지역에 소개하고 있는 만큼 한울타리 회원을 포함한 여러 학부모들이 꾸준히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용진지역소통 공감

어울림카페 / 2015. 10. 12.

학부모들과 만나 현장에서 아이들과 겪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바쁜 일상의 와중에서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해와 사려 깊은 탐색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공유·이해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학생 관점의 모둠 형성 경험을 같이 배우기도 했다. 나의 문제를 모듬의 문제로



확장하는 과정을 나누었다. 교육활동에서 모듬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서로에게 공드리는 방법을 ‘와리가리 공드리’ 사례로 공유하고, 학생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로 가는 ‘나말고 다’ 프로젝트로 공유했다. 학부모들의 동아리 활동 고민을 공유 했다.

학부모들의 동아리 활동 마무리하는 과정을 나누고, 교육주체 100인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사전 설명회의 내용을 공유했다. 매개자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삼례지역

고가네 -한방닭칼국수 / 2015. 11. 26.(목) 11:00 / 대표 및 학부모 9명



동아리 비용 가이드라인 보완(프로그램 참여 아동 간식비)이 필요하다. 지역간 학부모 동아리간 정보교류(강사 공유, 문제의식공유)하고, 동아리 운영에 대한 사전교육(회장, 총무 회원)했다.

동아리 운영에 대한 설명과 지원(2015년도 학교에 상의함)학교별 환경의 차이 크므로 간식비용은 학교에 따라 사용원칙을 정했다. 간식 비용 가이드라인은 센터 상황에 따라 반영하기로 했다.

동아리 활동 정산 마무리, 학교 지원 관련 논의(타운홀미팅)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매개자 과정) 개설 제안했다.

삼례지역에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게 되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실 의향 있었다. 타운홀미팅 2016년도 진행하면 지역의제로 만날 수 있다. 타운홀미팅을 통해 아이들이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피맘

소통 공감 / 2015. 12. 16. / 학부모 10명

- 지원금 사용 중에 어려웠거나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내년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적용할 것을 공지했다. 지출서류 정산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원금 지급에 앞서 동아리 실무자 미팅을 제안했다.
- 올해(2015) 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학교 관련 사업 및 100인 타운홀미팅을 소개하고, 내년(2016)도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센터 추후 활동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점을 들어봤다.



2015 생활의 숨은 고수 삶을 재해석하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명제아래 방과후 활동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마을이 학교가 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들이 사는 곳부터 누구를 만나는지 동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옆집 할머니 뒷집 할아버지의 일상을 보면서 손때 묻은 호미에 울고 웃는 과정을 들어보고 사진에 담아내면서 마을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일상에서 담아낼 것인가 과제를 풀어볼 기회로 삼고자 한다.

다음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삼례, 고산, 소양지역의 숨은고수 찾기 프로젝트 조사보고(조사자: 장인석) 내용의 일부이다.

비비정 마을의 맥가이버

장희서 어르신

장희서 어르신은 맥가이버다. 마을회관의 스피커가 고장 났을 때도, 앞집 이장님 댁의 문고리가 빠져 헛 돌때도, 마을 초입에 경운기가 빠져 털털 거리고 있을 때도 늘 장희서 어르신이 다녀가시면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딱히 배운 적은 없지만 하다 보니 늘었다는 겸손한 자랑을 하시는 어르신은 늘 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다.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주로 소를 키우시는데 이번 가을에 찾아 갔을 때에는 소는 외양간을 비웠었다. 주로 송아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시는데 매번 팔 때마다 울적해지신다고 한다. 막상 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키우다 보면 정들어버리신다고 한다.

그럴 때 마다 어르신은 노래를 한 자락 뽑아내신다. 사실 어르신은 마을의 으뜸가는 노래꾼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중동에 가서 외화벌이 하실 적에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한다. 젊은 세대인 나로선 생소한 노래들이지만 그 구슬픈 목소리는 정



말 일품이라고 생각 될 만큼 대단한 솜씨이셨다. 노래와 함께 가꿈, 아코디언을 켜시는데 그 아코디언 솜씨도 중동에 계실 때 연습하신 거라고 한다. 일전에는 전국노래자랑 예선전에도 나가신 적이 있으시단다. 물론 가사를 완전히 까먹는 바람에 떨어지셨다고. 하지만 그 재주는 쉬이 어디 안 간다는 부녀회장님의 말씀이 와 닿는다.

봉사와 나눔의 삶

이야기 할머니 원경자 어르신

소양면에 거주하신지는 어언 20년이 되어가지만 그 이전의 원경자 어르신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사셨다고 한다. 지금은 돌아가신 남편분의 직업이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이라고. 소양에 정착하고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봉사활동이었다. 그 활동들이 이어져 현재도 어르신은 이야기 할머니로 아이들을 만난다.

처음 목욕봉사를 다니실 땐 혼자였다고. 혼자 다니시기에 힘든 점들을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다니신게 2년여 정도라고 하신다. 그렇게 2년을 봉사활동을 다니시다가 다시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시고 혼자 하게 되시다보니 이동이 너무 힘에 부쳐 봉사를 그만 두려 하던 와중에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알게 되셨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 멀리 대전까지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고 이수를 하여 지금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방과후
지원사업
양화분교
아지트프로젝트**

회차별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모듬구성 및 브레인스토밍



2회차: -전체적인 작업 일정(전 과정) 계획

3회차: -모듬별 서각작업(이름 새기기)

4회차: -모형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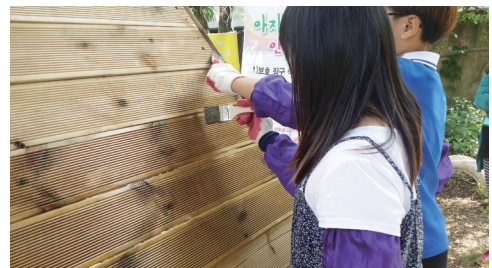
-모듬별 기념사진



5 ~ 14회차: -플레이하우스 터 닦기
-면 작업하기

-땅 가꾸기

-구조대 만들기
-디딤판 작업하기



15회차: -전시기획

16회차: -전시회



완주봉동초 '양화분교 아지트' 건설

원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5.07.23 15:46 | 댓글 0

네이버 메인에 #전북도민일보 추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봉동초 양화분교(교장 전은희)에서 다모임시간을 활용, 삼각형프로젝트를 18회차에 걸쳐 진행해 왔다.

삼각형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견을 구해 목재를 활용한 화푸는 공간인 아지트를 짓는 것으로서 합의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모형을 구성·제작하고 자로 재고 톱질과 못질까지 하면서 아지트를 완성했다.

이들 어린이들은 교육통합모델을 적용 모형을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어 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주카드를 활용해 의견수렴을 하는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여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갈등과 합의를 반복하면서 안전규칙 공정과정 등을 합의하는 과정 중 운동장으로 나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지트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거듭된 투표를 통해 '양화분교 아지트'로 정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모 학생은 "우리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아지트니까 오래도록 학교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완주=정재근 기자

완주 봉동초 양화분교 아지트 건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의미는 봉동에서 양성한 매개자들이 모두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면서 교육통합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해가는 가운데, 사고의 확장성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2015년 사업추진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비고
교육자원 발굴육성 (인적·물적 자원)	교육동아리 구축	• 11개 동아리	• 11개 동아리	동아리 활동집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적용	• 4개 사례	• 4개 사례(구이중, 상관중, 완주중, 고산고)	영상 및 보고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 2회	• 3회 (운주, 소양, 고산)	보도자료
조사연구 및 DB구축	교육통합연구 및 사례발굴 미션소재 및 마을 적용조사	• 연구사례 1건 • 학교적용 1건	• 생활의 숨은 고수 학교에 가다(1건) • 학교폭력 1회	결과보고
	DB구축 및 활동집제작	• 보고서(1권)	• 교육소재보고서 1권	보고서
		• 보고서(1권)	• 교육소재원재료 보고서 1권	보고서
교육 및 네트워크	교육전달체계구축 • 기추진관계자 순회미팅 • 사업별 포스트 미팅 • 표적 집단밴드 간담회 및 워크숍	• 순회미팅 (13회) • 사업별 포스 트(7회) • 밴드간담회 (2회)	• 순회미팅(16회) • 사업별 포스트(7회) • 밴드간담회(2회)	
	매개자 교육 • 간담회 • 교육 및 시연 • 토론회	• 매개자 과정 (40차)교육, 시연, 간담회, 토론회	• 매개자 과정 3회 (봉동, 구이, 삼례)	매개자 교육 1종
	서드&포스 에이지 과정	• 서드&포스 에이지과정 (13회)기초데 이터 확보	• 서드&포스 에이지 과정 13명	
방과후 지원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	• 교육통합프 로그램 연계	• 양화분교(32차) • 삼례동초(16차) • 봉동초(16차)	교육통합모델 적용과 지속적인 관계의 효과성
	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 (6회)	• 컨설팅자문 모니터링(8회)	전문가 집단을 통해 방과 후 사업 교육관점 확대
	교육관련 기구간 워크숍 및 토론회	• 워크숍 (분기별 4회)	• 워크숍 9회 • 토론회 1회 개최	연대폭 확대

홍보 및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 • 뉴스레터 (9호) • 홍보리플렛 (2종) • 교육지도 제작 • 홍보물(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운영 • 뉴스레터(9호발송) • 홍보리플렛 제작2종 • 교육지도제작 (1000부) • 홍보물(형광펜)300 	온라인 소식지 발송함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12건) • 교육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12건 체결 • 100인 타운홀미팅 	교육주체 100인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2015년 제언

2015년 교육자원 발굴 동아리는 11개로 증가하였고, 교육통합개발 실행은 4개교(구이중,상관중, 완주중, 고산고)프로젝트 수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육공동체 양성은 운주, 소양, 고산지역으로 확장되어 프로젝트 하나가 마무리되면서 굵직한 동아리가 하나씩 잉태되었다. 학부모들과 1년 간 학생들의 활동 공유는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콘텐츠의 확장에서 교육소재, 미션소재발굴, 생활의 숨은 고수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학교로 진입하여 연구사례로 기록유지 되고 있다. 숫자를 넘어 활자가 DB로서 구축되어 DB가 강화되었다.

교육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추진관계자 순회미팅으로 정례화를 시도하였고, 사업별 포스트 미팅, 표적 집단과 추가 밴드간담회 및 워크숍등을 통해 지역민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으며, 매개자교육은 기초, 심화과정에 매개자들의 시연을 추가하여 역량을 끌어내고 지역 자원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며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는 방과후 지원활동 3개초등학교(양화분교, 삼례동초, 봉동초)로 영역을 넓히면서, 모니터링과 워크숍, 전문가 집단을 통해 방과 후 사업을 교육적 관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교육주체 100인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지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하였다.

2015년도는 발굴육성한 사람자원들이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유관기관들이 연대협력하여 사람자원에 관한 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지역민이 지역교육을 위해 주역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을 앞으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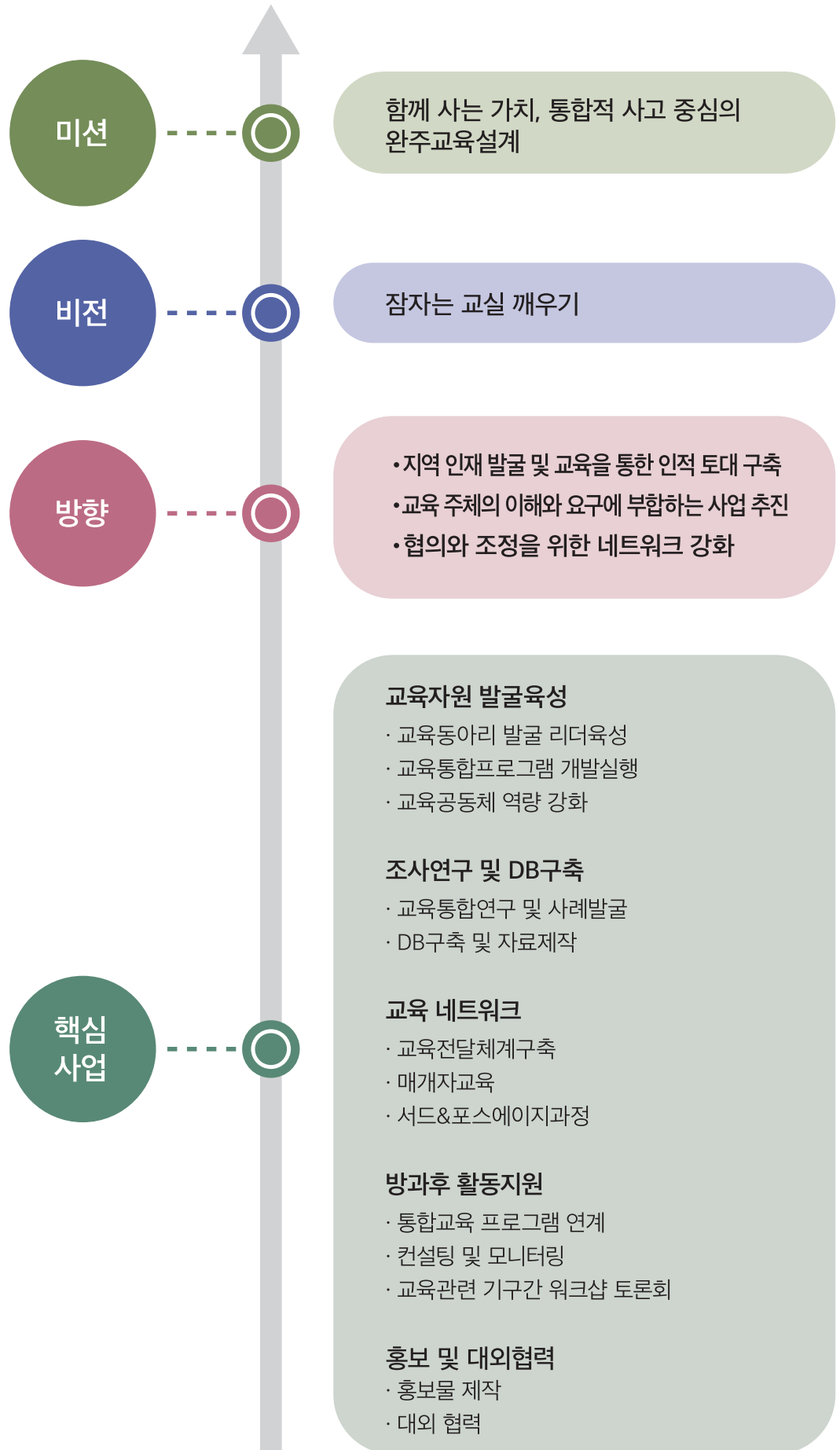
“

낮설고 어색한
네, 우리는 매개자입니다



2016 - 2018

적용기 비전과 방향



연도별 사업요약

첫째, 교육통합모델을 기초로 2014년 매개자 교육과정이 개설된 이후 우리는 학부모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학부모를 주체로 ‘학부모 매개자 되기’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의 이해관계자인 매개자가 학생들과 함께 주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용봉초의 사계절이 행복한 학교, 다모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완주중의 우리모해, 이음 프로젝트, 상관중의 핵꿀잼이 있는 진로체험, 구이중 오늘모해? #WYD프로젝트, 고산고 리더십캠프, 결핍이 명품이 되는 학교, 물꼬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이동학습 프로젝트는 이 시기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살아있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둘째, 고산네트워크는 주민자치 4년간 지역교육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해 의제를 만들고 현재 공립형 대안학교인 고산고등학교 설립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사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마을주민이 모였고 고산향과 함께 센터가 참여해 고산지역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완주군 전역에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교육아동지도 제작활동은 여성가족부와 완주군과 함께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완주지역 16개 초등학교와 함께 진행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통합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확산 연계를 통해 지역의 아이들과 마을탐구 활동을 진행했다.

2016 - 2018

세부추진사업

고산네트워크

- 고산초 학부모 모임
- 고산네트워크 3차 모임



타운홀미팅

- 이서지역 타운홀미팅
- 봉동지역 타운홀미팅



매개자교육 자료집

- 자료집을 내면서
- 매개자 사례



방과후 지원사업

- 봉동초 틈새프로젝트
- 고산고 1학년 물꼬프로젝트
- 틈새 프로젝트 '회차별 활동'
- 에필로그



성과홍보

- 보도자료
- 뉴스레터 16호



2016년 사업추진성과

2016년 제언



2016

고산네트워크 고산초 학부모 모임

2016. 12. 20. / 고산초 시청각실

고산지역 마을교육지원센터 구성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다.

고산지역 고산초, 삼우초, 고산중, 고산고, 화산초 관계자들과 학부모회장들이 모여 마을 주도의 방과후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다. 다음은 논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완주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단체가 정해지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고산청소년문화공간을 맡아서 운영하는 씨앗협동조합이 가능하고 연계 가능성이 높으니 맡아주시면 좋겠다. 현재 김주영 대표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 온누리살이와 진로새미랑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일년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진행하기 어렵다. 행정적인 절차도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지난 회의 후 씨앗 온누리살이 진로새미 이야기해 보았지만 우리가 현재는 '받을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내년에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강사지원만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고, 강사는 지역에 강사를 쓰되 질적인 부분은 낮춰져야 한다고 본다.

학부모 설득이 가장 큰 관건이고 학교도 교사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일단 이번주 내로 학교에서 교사협의를 마치고 27일 화요일 학부모 설명회를 한다. 장소는 장소는 고산주민자치센터, 시간은 오후 7시로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자.



고산네트워크 3차 모임

2016. 4. 1 / 고산성당

고산지역 돌봄공간 운영에 관한 논의 돌봄공간을 운영 할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에 관한 정보 공유. 2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 청소년 시설의 규모로 보면 큰 규모이다.



돌봄공간의 구성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해야하는가?

구성원이 모인다고 해도 그 운영에 있어 출자금의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예전 CB센터 등에서 구성되었던 협동조합들이 사전 협의,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수가 와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이들 스스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가는 장소라는 인식이 많다.”

고산네트워크의 활동에 관한 논의 여러 공간이 생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산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으로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인가? 아이들 스스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가는 장소라는 인식이 많다. 고산네트워크 주변부터라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고산고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에 관한 논의, 공립형 대안학교의 지정은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 정도로 시작 되는 걸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고산고를 선택하지 않고 완주고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에게도 수시경쟁에 있어 고산고가 경쟁력을 주지 못하는 상황. 사소한 격차로 인해 등급이 나뉘어버리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기에 수시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고산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논의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타운홀미팅 이서지역 타운홀미팅

2016.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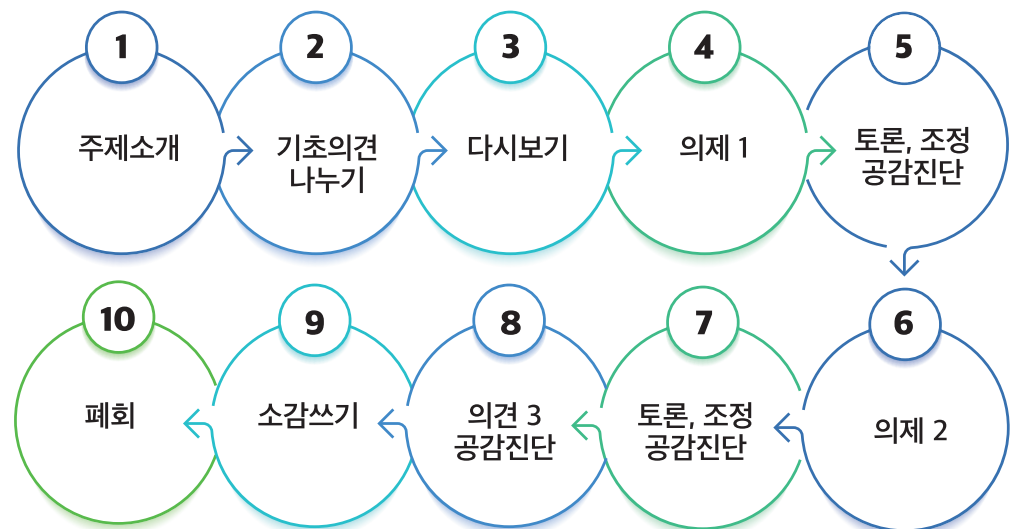
중학교 학부모 활동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서지역 교육주체와 함께 ‘중학교 학부모 활동 활성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참여자 중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타운홀미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동시에 함께 참여한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협의와 조정으로 서로 배운다.

의제 활동 과정 타운홀미팅의 흐름



봉동지역 타운홀미팅

2016. 11. 28

지역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떻게 바꿀 것인가?

봉동지역 교육주체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역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논의 전, 간단한 기초의견을 작성해서 모둠별로 공유해보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나에게 OO이다’라는 주제의 기초의견을 나누었다.

실제, 참여자들은 이에 대하여 쉽터, 꿈터, 희망, 자랑 등의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슬픔, 아픔, 고민, 그냥 의무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왔다.

그렇다면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논의의 의제로 설정되었다.

다채롭고 변덕이는 여러 의견들 중 참여자들은 장학금, 방과후 수업 등의 확대지원, 학교 홍보, 학교 시설 확충, 교사의 질 향상순으로 공감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이번 타운홀미팅은 짧지만 지역의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매개자교육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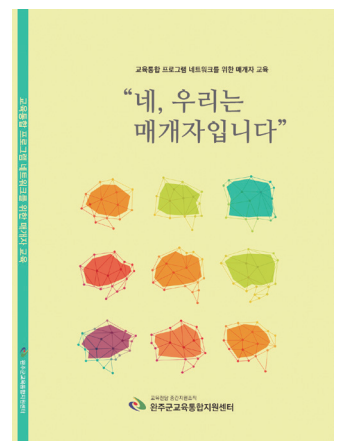
매개자 자료집을 내면서

교육네트워크를 위한 매개자교육

“네, 우리는 매개자입니다.”

‘매개자’란 단어는 낯설고 어색하다. 원래 매개자란 용어는 어원적인 게 있지만 문화예술파트에서 많이 쓰고 있었다. 교육학에서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페다고지(1970)에서 사용했다.

매개자 교육의 초기 목적은 교육통합모델을 개발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지원이었다.

매개는 효소 촉진 중간 역할 등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괄하는 내용에 가장 적절한 말이기도 하고 다른 단어를 아직 찾지 못 했다는게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다.



교육통합모델 적용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거나 맞닥뜨려야 하는 프로그램인 측면이 있다. 일상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삶의 고민이든 교육현장이든 질문도 해답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매개자는 교육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모양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촉진자인 것이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3년 동안 매개자를 양성했다.

매개자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교육에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적 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개자의 기수별로 경우가 다르지만 일년 정도 학교 수업에 함께 참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개자란?

그야말로 교육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모양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매개자 활동을 통해 내 아이보다는 우리의 아이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매개자 사례

“배려해야 진심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

완주에서 목공강사로 일하며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효정(33) 씨.

이 씨는 목재 가공품을 생산하는 인트리협동조합에서 청소년 교육팀장으로 일하면서 ‘매개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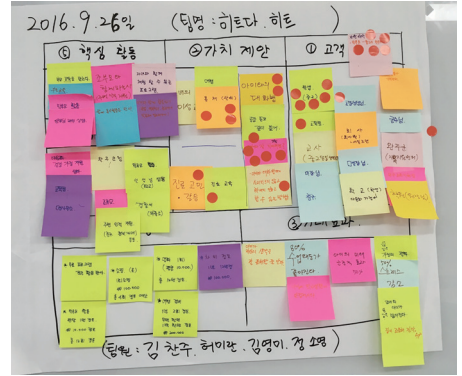
이 씨는 “주로 아이들에게 ‘만들어 보니 어때?’라는 결과 중심의 수업만 하다 보니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며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과,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교육

이 좋을까 고민하던 차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제안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개자 교육의 가장 재미있었던 점으로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었다. ‘퍼실리테이션의 5단계(마음열기→창의적 아이디어 수집→아이디어 체계화→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결론 정리하기)’를 각 단계별 의미와 실제 적용 방안을 교육받았다. 매개자는 각자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걱정, 불안, 불만, 아쉬움, 답답함 등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았다. 이 씨는 “짧은 시간의 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기에는 두려움이 많았다”며 “그나마 이전에 센터와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적응해 나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매개자의 역할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으로 봤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의사들이 뚜렷해지고, 이를 절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다”며 “매개자는 남녀노소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끌어내고, 이를 적절하게 조율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개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배려심’을 꼽았다. 이 씨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진심을 보지 못 하거나 듣지 못하게 된다”며 “들으면 일단 이야기하고, 풀어주면서 소통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개자 수업을 통해 그녀의 삶은 물론, 인트리협동조합의 목공 수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업 시작 전에는 자기의 현재 느낌,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공감하게 하는 시간이 생겼다. 전에는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만 물었던 시간 들에 소통하기가 먼저 들어온 것이다. 이 씨는 “매개자 교육 이전에는 개별작품이 많았는데 교육 이후 모두 작품 위주의 활동을 중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뭐가 필요하고,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논의하고 조율하는 시간의 비중을 크게 뒀다.”고 밝혔다.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협의 활동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주로 ‘교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매개자 교육 이후에는 전적으로 아이들의 의견과 행동에 집중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든 ‘삼례동초등학교 트리하우스’, ‘봉동초등학교 도서관 좌식 공간 꾸미기’ 등은 학교관계자와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정해진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목공 수업에서 의견수렴하고 토의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일회성이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토론, 아이들 자각 일깨움’

삼례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독서지도 활동 등을 해왔던 정미화(45) 씨는 지난 2014년 봄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와 만났다. 이전에는 ‘아청인친(아름다운 청소년 인문학 친구)’이라는 단체에 소속돼 초등학교 방과후 독서지도와 NIE수업을 진행해 왔다.



정 씨는 센터가 “아청인친에 매개자 교육을 접목을 시키면 어떨겠냐”고 연락을 받았으며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단체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수업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 10주 남짓의 교육이 매번 새로웠다. 감정코칭과 퍼실리테이터 등 소통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고, 실제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씨는 매개자 교육의 장점으로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꼽았다. 정 씨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저런 것 까지 건드려야해.”, “저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매개자는 다 캐치해 내서 공론화하고, 토론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등학교 5·6학년 수업시간에 욕을 한 경우 그것에 대해 왜? 욕설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전체 토론화를 시켜 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 씨는 “일단 한 번 공론화를 시켜서 그것이 왜 나쁜지, 선생님의 훈계의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각’을 하게 되고, 재발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사의 역량만으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정 씨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타운홀미팅(원탁회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경기도 등 경계를 넘나든다. 정 씨는 “이천 지역현안 문제,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에 관한 문제, 영호남 통합 등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의견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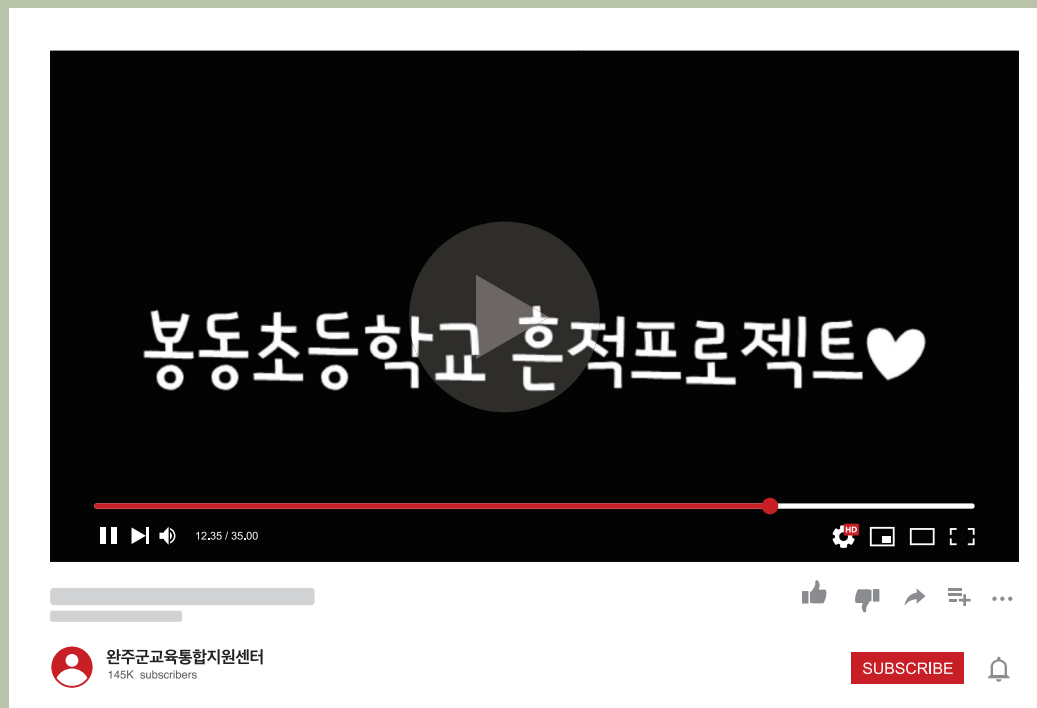
매개자 교육을 통해 자녀양육이나 삶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 씨는 “많이 느끼고 접목을 하려고 노력 하는데(웃음). 끊임없이 계속 느끼고 있어서 갑자기 ‘욱’할 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며 “2명(초5, 중1)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매개자 활동에선 협업이 유난히 강조된다. 정 씨는 협업을 곧 소통으로 지칭했다. 그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에서도 분업화 됐지만 나만 잘해선 가정의 제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소통이 이뤄지면 그게 바로 ‘협업’이 아닌 소통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씨는 “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을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다만, 심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2016 봉동초 흔적 프로젝트 동영상(QR)



방과후 지원사업

봉동초등학교 탐새 프로젝트 '흔적'

주제별 지도계획

• 오리엔테이션

1차시: 사전 설명과 이해 그리고 공감하기

모둠의 민주적 구성과 관계 설정하기

2차시: 프로그램 진행 과정 기본 원칙을 서로 이야기하여 정하기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세밀하게 세우기

• 의사결정방법

3차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그 방법을 서로 논의하여 찾아본다.

• 주제 정하기

4차시: 서로가 표현된 감정 중에 공통점을 찾는다. 감정의 공통점에서 주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 협동학습하기

5차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동하여 학습한다.

• 공동작업하기

6차시: 주제에 대해 논의된 것들에 대해 정리한다.

토의된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 미션정하기

7차시: 정리된 주제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하기

미션이 정해지면 미션발표 준비하기

8차시: 준비한 미션을 모둠별로 발표하기

- **작업 구상하기 1**

9차시: 주제를 적용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고 이를 분석한다.

10차시: 사진을 통해 손쉬운 주제공유방법을 익혀본다.

- **작업구상하기 2**

11 ~ 12차시: 각 모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토의해본다.

- **주제 표현하기**

13 ~ 16차시: 구상된 작업방향에 맞추어 진행한다.

각 모둠의 작업들의 진척상황을 서로 긴밀하게 공유한다.

- **마무리**

17차시: 주제 선정을 통해 진행한 활동을 공유한다.



프로젝트진행과정

- 1회차: 모둠구성 매개자 소개
 - 모둠 조직, 5개 모둠으로 구성
- 2 ~ 3회차: 여행에 대한 경험 나누기/ 학교안에서 일상나누기
 - 여행에 대한 경험, 서로 이야기 해보기
 -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후, 이번 활동에 기대되는 점(바라는 점) 공유해보기
- 4 ~ 5회차: 해외이동학습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해외이동학습을 위한 캄보디아 및 NGO에 대해서 알아보기**

 - 국내의 경우 '도서지역', 해외의 경우 '제3세계 국가'로 한정한다.
 - 이동학습에 임하여 우리가 배울 것과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본다.
 - 캄보디아의 이모저모에 대한 조사 진행하기
- 6 ~ 9회차: 해외이동학습 준비 / 해외여행에 필요한 물품챙기기
 - 모둠별 현지활동 키워드로 준비하기 / 캄보디아의 핸드북 만들기**

 - 스포츠, 뷰티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해본다.
 - 물품 구비나 모금활동, 교육 등의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한다.



- 10 ~ 12회차: 사전오리엔테이션
 - 모둠별 활동내용
 - 암흑다크왕 모둠
 - 언어전달 활동: 조사 했던 캄보디아 단어들을 다시 한 번 정리, 카드로 휴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휴대용으로 제작한다.
 - 엽기오렌지 모둠
 - 사진촬영: 사진을 찍는데 드는 비용, 필름 혹은 인화지 구매비용과 기기대여비용을 명확하게 산출한다. 사진을 찍어서 현지 아이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프레임(액자)을 만들어본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여 미리 준비해간다.
 - 알루미늄 모둠
 - 벌레퇴치제 준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발표한다. / 큰 통에 전체 인원이 쓸 수 있는 퇴치제를 만든다. / 재료구매까지 직접 함께 한다.





•한번싸우조 모듬

전통놀이 전달: 어떤 놀이를 할지 고민한다. 실제로 시연도 해보고 ‘룰’을 명확하게 만들어본다.

•다밀어버리조 모듬

홍보영상 제작: 다른 모듬의 활동을 기록하여 영상으로 만들어본다.

• 13회차: 최종준비사항점검

- 해외이동학습 일정공유

캄보디아 현장실행

- 럽댕초등학교 방과후활동

- 다일공동체와 싸르새벽시장 장보고 아침준비하기

- 식사준비와 배식봉사

- 양코르왓트 문화탐방

• 14회차: 시사회 및 평가

- 모듬별 영상제작 발표

- 한국정변 캄보디아 정착기(길상외4인)



특새 프로젝트 '회차별 활동'

수업진행과정

모듬나누기 '첫 만남의 설레임'

- 모듬명 정하기
- 잠이들고 말았어요
 - 보라돌이
 - 아무생각 없는 여자들
 - 드래곤볼

모듬별 사진찍기

- 우리학교 주변

찍어온 사진 중 하나를 골라 OHP필름에 덧입혀 그려보기

덧그림을 직접 벽면에 가서 그려본다.

덧그림에 물감으로 색칠한다.

마무리 후 소감 나누기

“5학년은 1학기 때 안전지도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알다 보니 조금은 편하게 바라 보는 부분이 있었다.”

“모듬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름도 지었다.”



에필로그

프로그램을 마치며

일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아이들은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다. 모둠활동을 통해 협업을 하고 역할은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름 노력하는 과정이 돋보였다. 준비에서부터 실행하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아름다웠다. 1학기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2학기에는 추운지도 모르고 프로젝트를 끝내 가는 과정이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한 번의 떨림이나 만족의 기쁨은 인생에 정점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아쉬웠던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이었다. 학교의 절차와 외부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상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다. 그래도 지혜롭게 풀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또 배운다.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의 소통이란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중심에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다. 특히 2학기 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도 우리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과 모둠활동이 원활해졌다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항상 수업 과정을 교사와 공유하고 더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공유하다 보니 함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시간이 흘러 내용은 잊혀지고 마지막 한 단어조차 기억을 못 할지라도 그때 경험했던 느낌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성과홍보

보도자료(전북일보)

2016. 6. 13. 발췌

全羅日報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지역 광주·전남 문화 스포츠 기획&시리즈 오피니언

교육일반 입력 2016.06.13 17:42

봉동초, '흔적 프로젝트' 주목

日報 봉동초, '흔적 프로젝트' 주목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16년 봉동초등학교(교장 전은희) 6학년 24명과 '흔적 프로젝트'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센터에서 진행해왔던 교육통합모델(모둠, 역할, 과정중심)을 적용, 모듬별 매개자가 프로젝트 촉진자가 되어 모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난 과정을 통해 6학년에 대하여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교의 대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모듬에서 계획을 짜고 과정과 수행에 필요한 규칙들을 직접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6학년으로서 학교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여 학교 전체에 낙서된 곳 훼손된 곳 녹슬고 무너진 곳을 새롭게 재탄생하게 하는 흔적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각 모듬별 논의와 발로 뛰어 낙서된 곳 훼손된 곳을 선정하고 밑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함께 만들었고 지난 10일부터 현장에 나가 작업을 시작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봉동초등학교 흔적 프로젝트

각 모듬별 논의와 발로 뛰어 낙서된 곳 훼손된 곳을 선정하고 밑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함께 만들었다.

지역기사 입력 2016.10.28 11:24 수정 2016.10.30 16:47

'완주 교육정책' 전국적으로 인정받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창의행정 부문 우수상 수상... 2014년부터 474억 투자 효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을 지향하는 완주군의 교육정책이 전국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사례'가 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중 창의행정 부문에 선정,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창의행정과 협력행정 등 두 개의 부문을 나눠 신청받아, 주인이 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인 우수사례를 뽑았다.

완주군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지역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 교사가 함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을 위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의행정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정부의 3.0 서비스에서 주민참여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교육 중간 전달조직으로, 군에서 2014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해왔으며, 학교 현장의 고민과 특성에 맞는 자존감 회복 및 리더쉽 향상, 진로직업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기획에서 실행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 학생·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교육 중간역할 매개자로, 양성 교육역량을 강화해 프로그램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인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할 등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완주군은 민선6기 군정방침 중 하나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을 내걸고,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올해까지 474억의 투자로 교육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아이저

3報 '완주 교육정책' 전국적으로 인정받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주민 참여, 지역사회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부 3.0을 실천하고, 완주군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실현에 앞장서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창의행정부문 우수상 수상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교육 중간 전달조직으로, 군에서 2014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해왔으며, 학교 현장의 고민과 특성에 맞는 자존감 회복 및 리더쉽 향상, 진로직업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기획에서 실행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 학생·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초·중·고 입력 2016.11.07 17:15

고산고 학생 캄보디아 봉사활동

日報

고산고 학생 캄보디아 봉사활동



고산고등학교(교장 장경덕) 1학년 학생 22명과 고산고등학교 교사,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양정숙) 연구원으로 구성된 해외이동학습단이 지난 4일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7박9일의 여정으로 캄보디아 씨엠피의 림땡초등학교와 다일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고산고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완주군,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기부물품 등 다양한 지원 속에서 이뤄졌다.

주요 활동으로 캄보디아 림땡초등학교에 우물설치와 학교페인트 책상 니스칠, 다일공동체에서 밥퍼와 빵퍼, 아이들이랑 방과후활동을 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과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젊은이와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고산고등학교와 교육통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15회차 걸쳐 자신과 만나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10회가 넘는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병재기자 kanadasa@

고산고등학교 해외이동학습 '나를 찾아가는 여정'

주요 활동으로 캄보디아 림땡초등학교에 우물설치와 학교페인트 책상 니스칠, 다일공동체에서 밥퍼와 빵퍼, 프싸르 새벽재래시장 장보기와 아침준비하기, 아이들 이랑 방과후활동을 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과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젊은이와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01. 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용봉초등학교 여름행복주간

일정 : 2016년 7월 13일 / 장소 : 용봉초등학교, 전주시 일대



지난 5월, 봄행복주간에 이어 여름행복주간을 기획하고 진행한 용봉초등학교의 이번 여름행복주간은 ‘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모듈별로 물놀이, 물총놀이, 스케이트, 수영 등 모듈별로 합의 된 여러 활동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예산의 집행까지 마무리하였다. 봄행복주간 보다 더 성장된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여름행복주간이었다.

02. 선후배가 친해지는 시간 상관중학교 현장실행 속으로

일정 :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 장소 : 전주시 일대

상관중학교는 목요일, 개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Dreamee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학생자치동아리 활동은 이번 7월, 현장실행을 통해 학기를 마무리 하였다. 전주 객사를 중심으로 ‘먹방여행’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모듈별로 계



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같은 활동 내용이라도 다른 스케줄과 다른 방법들로 실행되었던 개성 넘치는 이번 활동은 선후배간의 사이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3. 일상을 기획하다. 고산고등학교 2학년 프로그램

일정 :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 장소 : 완주군, 전주시 일대



학교 안과 밖의 일상에 대하여 돌아보고 그것들에서 여러 키워드를 뽑아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들을 행한 고산고등학교 2학년은 이번 마지막 수업을 현장활동으로 마무리 하였다. 여기활동, 운동, 게임, 휴식, 독서 등의 키워드 별로 각각의 색깔에 맞게 진행한 이번 활동은 그 주제부터 활동 시간, 예산 등의 모든 내용을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였다.

04. 봉동초등학교 6학년 116명과 함께하는 원탁회의

일정 : 2016년 7월 20일 / 장소 : 봉동초등학교 강당

1학기 동안 6학년 2반 아이들과 함께 한 흔적 프로젝트는 학교의 낙후된 공간을 아이들 스스로 재창조하는 소규모 벽화 프로젝트이다. 이번 흔적 프로젝트는 1학기를 통해 마무리 되었지만 이를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그 연결성을 찾고자 하였다. 6학년 아이들 스스로 흔적 프로젝트를 지켜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고 후배들에게 그 규칙을 물려주는 방법을 통해 흔적 프로젝트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낸 규칙은 ‘훼손 시 벌칙’을 주자는 의견과 ‘낙서하지 않기’, ‘소중하게 대하기’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현장스케치

05. 구이중학교 타운홀미팅 오늘 모해? (#WYD)

2016년 1학기 중 진행 된 구이중학교 프로그램은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있을 전교생 현장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방학 다음날 구이중학교와 센터는 강당에 모여 회의를 준비했다. 2학기에 있을 현장 활동에 앞서 그동안 논의 들을 공유하고 전체 의견들을 모아내는 시간을 위해 ‘구이중학교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기초의견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에게 구이중은 OO이다.’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성장 발판이다.’, ‘놀이터이다.’, ‘친구를 만나는 곳이다.’, ‘지옥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었다. 구이중은 행복, 배움, 추억, 친구 등의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운 공간’ 그리고 교육, 배움터, 공부하는 곳 등의 ‘학습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의견으로는 폰(없으면 엄청 불편한), 오징어(‘구이’라는 명칭에 착안) 등의 재미있는 의견들도 나왔다.



2016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내용	목표량	달성량
교육자원 발굴육성	교육동아리 구축	• 12개 동아리	• 16개 동아리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실행	• 2개 사례	• 4개사례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 2회	• 7회
조사연구 및 DB구축	교육통합연구 및 사례발굴	• 학부모연구회운영 • 자료전사분석	• 학부모연구회(1회)
	교육통합모델개발 및 체계화	• 매개자인터뷰	• 매개자인터뷰(7회) • 매개자교육과정개발
	미션소재프로그램개발	• 자문회의(2회) • 자료전사분석(2건)	• 자문회의(2회) • 자료전사분석(2건)
	서드앤포스페이지	• 자문회의(2회)	• 자문회의(2회)
	DB구축 및 활동집 제작	• 활동집(1조) • 보고서(1조)	• 자료집(1조) • 지역주민화보고서(1건)
교육 및 네트워크	교육전달체계구축 • 기추진관계자 순회미팅 • 사업별 포스트 미팅 • 표적집단 간담회 및 워크숍	• 순회미팅(12회) • 사업별포스트(5회) • 밴드간담회(10회)	• 순회미팅(12회) • 사업별 포스트(10회) • 밴드간담회(10회)
	매개자 교육	• 매개자 교육과정 (40회차)	• 매개자 교육과정(4회) - 봉동, 무한상상, 봉동행, 파란의자
방과후 지원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	• 교육통합프로그램 학교실행	• 용봉초(42차) • 봉동초(38차) • 고산고1학년(44차) • 고산고2학년(28차) • 삼례청소년지원(10회) • 봉동초타운홀미팅(1회)
홍보 및 대외협력	홍보 및 결과물 제작	• 홈페이지운영 • 뉴스레터(12호) • 리플렛제작(2종) • 교육지도제작(1종) • 홍보물제작(300) • 영상제작(1종)	• 홈페이지운영 • 뉴스레터(12호) • 리플렛제작(2종) • 교육지도제작(1,000부) • 홍보물제작 - 수첩, 필통, 손수건, 에코백 • 영상제작(1종)
	대외협력	• MOU 체결(10건) • 교육토론회 개최	• MOU 체결(4건) • 명예교사위촉 • 연찬회

2016년 제언

2016년 매개자교육은 지난 3년간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한해였다. 무한상상 5기를 시작으로 6기 봉동, 7기 봉동행, 8기 파란의자 까지 총 35명의 매개자를 배출하였다. 기수별 경우가 다르고 특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교육통합모델 개발(2014) 이후 교육통합이 목적했던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과였다.

방과후지원활동은 용봉초 다모임프로젝트, 사계절이 행복한학교, 고산고 물꼬 프로젝트. 자존감 회복을 위한 해외이동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봉동초, 구이중, 완주중 구성원 총 391명과 함께 학교프로젝트, 청소년 욕 문화 등 민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적용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의견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이끌어 냈다.

2016년 6월부터 진행된 아동안전지도제작은 여성가족부와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교육통합모델을 적용, 실제 아이들이 통학길을 오가며 느낀 안전과 위험을 반영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삼례초 외 5개소가 참여했다.

2014년 매개자교육 개설 이후 2016년은 교육통합이 제시했던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학교수업에 참여한 매개자 간 학부모동아리는 지역별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내 아이에서 우리의 아이로 생각이 전환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현재 학교-마을교육과정의 출발지점과 일맥상 통한다.

매개자는 학부모가 새로운 교육주체(교육과정 재구성)로서 서는 새로운 출발점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매개자 교육과정 자체가 시간과 전문성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참여자의 고충이 계속 제기된다. 때문에 양성된 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2017년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2016 - 2018

“

우리가 합의한 공부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세부추진사업

고산네트워크 토론회 결과보고서

- 보고서를 내면서
- 고산네트워크
경과보고



2017 매개자교육 자료집

-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 매개자 사례



방과후 지원사업 - 공부 좀 재미있어요

- 용진중학교
실행보고서
- 회차별 활동

학교 프로젝트

- 진행과정



성과홍보

- 보도자료
- 뉴스레터 17호



완주교육지원청과 관계를 회복하다



2017년 사업추진성과

2017년 제언



2017

고산네트워크 토론회 결과보고서 보고서를 내면서

고산네트워크는 2014년 고산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어느덧 4년을 넘기고 있다. 고산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혁신학교의 전국적 모델을 잉태하는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모임인 고산향 사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산향의 활동을 배우고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함께 논의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보자, 고산성당 신부님, 고산향, 센터(교육통합지원센터),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행정까지 큰 부담 없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정기적으로 만나 10회의 만남을 진행했다.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하자 다양한 패널을 구성하고 많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불러보자. 전문가를 누구를 섭외할까? 사회를 누가 볼까? 참여를 위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할을 나누고 열심히 홍보하였다.

80여 명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고산네트워크가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방향 전환에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공간이 마련되었으니 바로 운영될 줄 알았다. 그러나 예산확보와 인적 자원 확보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고산지역에 군립지역아동센터가 마련되고 청소년센터 고래가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의 방과후를 지역에서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풀뿌리교육지원센터까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고산네트워크로 모여 지역의 의제를 만들고 고산지역 초·중·고 캠프에도 적극 지원하게 되었고,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씨앗을 뿌렸다.

어떤 회원은 고산의 아동·청소년 공간이 마련되고 나니 그동안 네트워크 활동들에 대해 새로운 감회를 느낀다고 전했다. 물론 공간 마련이 어찌 우리들만의 힘으로 다 되었을까? 다만 작은 불씨가 되었다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년의 공간이 마련되기까지 인식 전환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아마도 불씨가 아니었을까 싶다.

공간 마련이 되었고, 인적 역량도 있으니 잘 갈 수 있으려니 싶었다. 해서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잠시 내려놓았다. 그러나 생각처럼 잘 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 내 진학, 이대로 충분한가?'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진학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지역에 환경은 진학이 아닌 다른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지?”

‘초·중고 진학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충분한가를 놓고 토론회를 해봤다. 아직도 내 아이 중심으로 보고 있는 인식을 확인 하였고 교육에 있어 진학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지역에 환경은 진학이 아닌 다른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8년 공간 운영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어떻게 참여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지역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과제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안내용

교육의 통합적 접근처럼 돌봄도 통합적 의제 설정과 통합시스템 필요 제안 받음.

• 1회차 2014. 4. 2. ~ 30. / 개별방문 및 인터뷰 진행

대상 : 고산성당 백승운 신부, 송광섭 고산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왕미녀 계장, 고산 학부모, 교육동아리 산들마을

기존 논의들이 있어 교육통합지원센터 미팅요청에 부정적인 분위기 일부 형성
1단계 목표로 3~4번 정도, 일단 만나보는 것으로 설정했다.

• 2회차 2014. 5. 13.

기존 진행되어온 고산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흐름과 활동들을 리뷰 하고, 현재적 과제 확인 및 통합적 사고의 필요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 3회차 2014. 6. 13.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내는 시간이 필요. 공동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3~4회 정도 더 모이면 형태 잡아질 것. 고산향의 그동안 역할 리뷰 및 유관기관 연대회의 형태 제안. / 장애인 경계선에 아이들과 부모교육 필요. /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필요.

• 4회차 2014. 7. 15.

직접적인 역할을 할 인력풀 모색 필요 제안서 준비, 단체장 전달 (전달은 교육전담중간지원조직 통해) 시책보고(9월)에 필요한 청사진 필요.(틀, 사람, 예산, 기획서)

• 5회차 2014. 7. 29.

성격, 방향, 정체성에 대해 정리 .명확한 청소년의 연령 규정 필요, 실제 대상 발굴이 관건이다.

• 6회차 2014. 8. 7.

새싹돌봄의 탄생에서 접기까지 새싹나눔에 대한 과정 및 보안점 리뷰 / 전북만 새싹돌봄이 없는 상태에서(생명보험사 + 고산향(재정발생) + 돌봄시작 하게 됨) 최종적으로 시스템, 지도력, 재정이 짜임새 있게 구조화 되지 못함에서 오는 지도력 부재 / 개별화 되어 있는 활동,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고산향은 임의 등록단체로 공간 부재) / 공청회 또는 워크숍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 필요. / 향

후 모임의 명칭을 “고산 아동청소년 성장을 돕는 통합돌봄 네트워크”로 정하는데 전원 합의했다.

• 7회차 2014. 8. 29.

대상에 대한 우려 / 특정한 아이들을 선정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자칫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벤트성 사업으로 가셔도 안 됨. 심리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8회차 2014. 10. 7.

맞춤형 부모교육 절실 /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양육 방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 고산지역 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 교육> 실시했다.

• 9회차 2014. 10. 22.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조직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함. / 우선 대표단을 수립하고 차후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꾸리는 것으로 합의. / 공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고산지역 청소년 공부방 장소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 10회차 2014. 11. 14.

고산네트워크 운영진을 확정해야 함. 공론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며 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4. 12. 7. 고산면사무소

기조 발제 정건희 소장과 문화관광과 임동빈 계장 주민생활지원과 이덕순 계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건희 소장: 아동청소년 공간이 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전문가는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임동빈 계장: 고산문화예술촌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예술촌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청소년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아 군에서 적극 고민하고 있다.

이덕순 계장: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봉동에 있어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

• 고산문화예술촌 지역주민 참여 방안 워크숍 2015. 4. 2.

고산 2015년 주민참여사업 계획 논의

주요사항

- 1) 주민참여사업명 모색
- 2) 초,중,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방안논의
- 3) 2014년 사업진행 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전 문제 관련 컨설팅 진행
- 4) 자문기관 제안

• 11회차 2016. 2. 24.

청소년공간마련에 관한 논의 / 현재, 고산면 일대에 청소년 공간들이 조성되는 움직임들이 있다.

• 12회차

기존의 모임을 다시금 이어 나가는 첫 모임

고산지역 돌봄공간에 관한 논의 / 돌봄공간을 운영할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고산네트워크의 활동에 관한 논의.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변화.

아이들 스스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가는 장소라는 인식이 많다. 고산네트워크 주변부터라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함. / 고산고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에 관한 논의.

• 18회차 2017. 11. 1.

타운홀미팅 제안 / 다음달 공감토크 시 제대로 된 정보 소통체계의 부족. 고산네트워크 지속성 필요성 절실.

2017
매개자교육
자료집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2016년 “네, 매개자입니다.”라는 자료집을 처음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어떤 매개자 자료집을 낼까 고민이 많았다. 이번에는 매개자교육과정을 설문조사에서부터 교육과정 종료까지 또한 매개자사업단 준비과정까지를 담았다.



매개자라는 이름이 낯설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매개자는 중요한 용어이다. 센터 역시 중간지원조직으

로서의 위상이 있고, 매개자 역시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에서조차도 중간자로서 역할이 다양하여 더욱 확대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 진다.

10회차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다는 명분이 크지만 사실은 자신을 좀 더 잘아야 상대를 볼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매개자 교육과정은 어떤 기능을 익히는 곳이 아니다 기능보다는 인문학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간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아이들과 소통이 원활하기도 하고 또 교육 관련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매개는 항상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혁명시대에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매개자는 앞보다 옆을 지키면서, 곁을 내어주고 함께 가는 역할에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갈 것인가? 계속 고민에 고민을 더 해 갈 것 같다.



매개자 사례
‘새로운 도전으로
두려움 극복하기’

가선자 매개자

처음에는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 아이들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초등 방과후 독서수업에 참여하다 매개자 교육과정을 했다.

매개자를 사전에 찾아보니 사람이나 일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이어주고 보아주는 사람이다.



“매개자가 가장 해야 하는 역할은 관심과 애정이다.”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써서 진행해보니 훨씬 더 다양한 생각이 제시 될 수 있다.”

보통의 수업에 있어 의견을 내지 않을 때 넌 왜 안 쓰냐고 무안을 주지만 매개자의 경우는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줘야 한다. 꿈은 아직도 진행 중 새로운 도전으로 계속된다.

매개자 사례

‘매개자로서
나의 정체성 찾기’

정미화 매개자

매개자를 시작하면서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내가 뭐 하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다.



방과후 지원사업

용진중학교
실행보고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어쩔 땐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용진중학교와는 오래된 미래 같은 곳이다. 리더십에서부터 진로수업 체육대회 축제까지 3년동안 함께 해왔다. 다양한 방식과 수많은 시행착오속에서 단단해졌다고 할까? 이제는 용진중학교 하면 오고 싶은 학교가 되고 있다. 이번 역시 교육특구 마을-학교연계사업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학교가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열정과 더불어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의 목표는 아이들과 활동하는 것은 많이 해봤지만 아이들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고 싶었다.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란 가장 험난한 코스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아이들에게서 묻고 가다 보면 답이 보였다.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게 틀리지 않으리라는 믿음 속에서 항해를 시작했다. 어쩔 중학교 1학년 3월은 초등학교 6학년의 티를 벗지 못한, 아직 솜털이 남아 있는 얼굴들. 그러나 몸은 커서 어리게만 보면 안 되는 쉽지 않은 아이들이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마음을 모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론을 지었다. “공부란 우리가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다시 선택하게 한 것은 ‘음악’이었다. 모듬별 가요부르기, 랩 개사하여 부르기, 팝송 부르기, 뮤직비디오 찍기, 방송댄스하기 등 참 다양하기도 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따라해보는 가운데 각 영역에 전문가로 활동하는 가수 활동을 하시는 분, 래퍼로서 활동하는 분, 연극연출을 하시는 분 등 딱 두 번 만났는데 이렇게 몰입할 수 있을까? 좋아하던 간식을 뒤로 하고 두 시간 내내 연습하는 모습에 우리도 모두 놀랐다.

마지막 발표시간

각 모듬별 연습 과정을 영상에 담아 발표하고 준비해 온 공연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그냥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모두 한마음이 되어 호응과 환호 속에서 공연이 이어졌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랩 가사를 변경한 팀에게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상’이 주어졌다. 아이들의 반응은 역시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공부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팀도 잘했지만 다른 팀도 잘 했어요.”



“마지막이라는게 믿기지 않아요.”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소감이 줄을 이었다. 아이들의 바램대로 앞으로의 아이들에 수업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회차별 활동

수업진행 과정

학교 관계자 협의

수업시간협의 학생 진단도구를 통한 분석 필요 / 학생정보 공유

모듬명 정하기

아리가또 / 엿조 / 에리조 / 레알밥조

우리가 합의한 공부는 공부란 어떤 것인지

재해석하기

“공부란 무엇일까?” 노는 것, 새롭게 하는 것
공부‘춤’ 천국과 지옥 / 공부는 거름 같다.

모듬별 하고 싶은 것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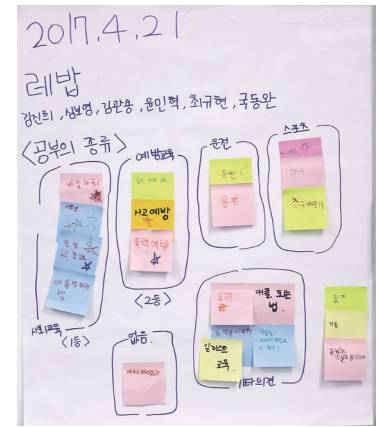
팝송을 부르자 / 방송댄스를 배우자 / 뮤직비디오 찍어보기 / 가요 부르기

실행하기

‘메리유’ 팝송 / ‘언니쓰’ 노래에 맞춰 방송댄스 / ‘오빠야’ 뮤직비디오 / ‘사랑으로’ 가요 부르기 / 송민호의 ‘겁’ 개사해서 부르기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후 인터뷰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물었다.

‘공부처럼 안 느껴지는 것이 좋음.’ / ‘새로운 경험에 감사함.’ / ‘다른 과목도 이렇게 했으면 함.’ / ‘집중과 협력이 중요함.’ / ‘팝송을 통해 영어를 극복하고 싶음.’ / ‘다른 주제로 더 하고 싶음.’ /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은 연습 뿐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어쩔땐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학교 프로젝트 진행과정

1. 계획과 준비

- 교육통합실행 과정
- 연구과제 도출
- 운영 배경 및 추진방향
- 기획과정 및 일정
- 회차 흐름 및 의사소통 도구들



2. 사전 인터뷰

- 처음 만나다 / MMTIC 검사



4. 현장실행

- 현장실행



3. 교육과정

- 마음열기, 프로젝트명 정하기
- 모듈명, 구호 정하기, 존중의 정의, 전체 규칙 정하기
- 현장실행 계획 I
- 현장실행 계획 II



5. 사후 평가

- 사후 시사회
- 못다한 이야기



6. 사후 인터뷰

- 사후 인터뷰
- 교사 다시 만나다

성과홍보

보도자료(전북일보)

2017. 7. 2. 발췌

全羅日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오피니언

용진중 프로젝트 발표회

이병재 기자 | 승인 2017.07.02 | 14면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 | - | | 인쇄하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30일 용진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어쩔 땐 공부도 재미있어요' 프로젝트 발표회를 진행했다.

'어쩔 땐 공부도 재미있어요'는 용진중학교(교장 이강휴) 1학년 29명과 3월~6월까지 진행한 마을학교 연계 사업 프로젝트다.

교육특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학교 연계 사업은 교육통합지원센터의 교육통합적모델을 적용 1학년 29명 5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공부란 무엇이며,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부터 시작되었다.

5개 모둠이 하고 싶은 공부의 영역을 음악으로 정했고 음악의 종류로 팝송, 뮤직비디오, 가요, 댄스, 랩이 선정했다.

프로젝트 마지막 평가에서 최고팀은 '겁이라는 랩가사에 개사해오기를 진행한 모둠' 6중 1초'였고 이 학생들에게는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상'이 주어졌다.

/이병재기자kanadasa@

용진중학교 프로젝트

어쩔 땐 공부도 재미있어요.

용진중 1학년은 “배움이란 모둠원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고 스스로 실행하며 역할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01. 아동안전지도제작 / 이성초등학교

일정 : 2017. 6. 8 ~ 22. / 장소 : 인근 마을 / 대상 : 이성초등학교 3학년 23명

참여 : 매개자 2명, 센터 4명, 교사 1명

“안전한 등·하굣길이란?”

아동안전지도에 앞서 모듈별 이름과 안전한 등·하굣길에 정의를 합의하였다.

- 1모듈(우리는 안전조) 신호등,
- 2모듈(안전조) 횡단보도 만들기,
- 3모듈(뺨띠시그널) 안전한 길 가기,
- 4모듈(뺨로로) 횡단보도가 나왔다.



“차와 함께 걸어가니 위험해요?”

학교를 주변으로 지도를 가지고 네 모듈이 나누어 현장탐방을 나갔다. 마을 어른들을 만나 동네에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물어보고 이성초 졸업생인지를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느 모듈에서는 2회 졸업생을 만나 신기해하기도 하였다. 뺨띠시그널(모듈명)에서는 인도가 없고 차와 함께 걸어가는데 경우 뒤에서 오는 차를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경구가 많다, 외국에서는 차를 보면서 걸어가는 나라가 많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뺨로로는 경운기와 보호수에 대한 역사를 듣기도 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과정 후”

3회에 걸쳐 제작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 하고서 소감은 신나고 재미있었다. 마을을 돌면서 오디를 따먹으니 맛있었다. 마을을 가던 중 개가 너무 무서웠다. 마을의 모습이 신기하였다. 또 하고 싶다 등이었다.

02. 아동안전지도제작 / 대덕초등학교

일정 : 2017. 6. 21. ~ 28. / 장소 : 대덕초등학교 인근 마을

대상 : 대덕초등학교 3 ~ 4학년 27명 / 참여 : 매개자 2명, 센터 4명, 교사 2명

“모듬 이름 정하기”

모듬별 이름을 정하고 안전한 등·하곳길에 대한 정의를 해보았다. 1모듬은 안전 N.O1을, 2모듬은 천사를, 3모듬은 BTS를, 4모듬은 아미조를 뽑았다. 이 외에도 안전히, 안전을 지키자, 악마라는 이름이 나왔다. 모듬원 이름을 정한 후 안전한 등·하곳길에 대한 논의를 거쳐 아이들의 시각으로 재정의 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 경찰아저씨가 보호해주는 곳 신호등 그리고 범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였다.

“대덕초를 중심으로 4개마을 현장조사 활동”

모듬구성은 마을에 사는 학생들을 위주로 나뉘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게 되니, 엄마, 아빠의 지인들에게 인터뷰도 하게 되었고, 할머니의 밭에 들러 오디를 따 먹기도 했고, 소



꿍 놀이를 하던 아지트를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모듬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학교까지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어서는 상용마을과 대모마을 그리고 염암마을까지 담임선생님 두 분이 수고를 해주셨다.

“픽토그램을 활용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

그림 아이콘(픽토그램)을 활용해서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체크하고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픽토그램에



나와 있지 않는 표시는 직접 기록하여 부착하기도 하였고, 모듬원 전체가 나와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처음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마을 주변 쓰레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힘들었지만 인터뷰 하는게 좋았다.”라는 아이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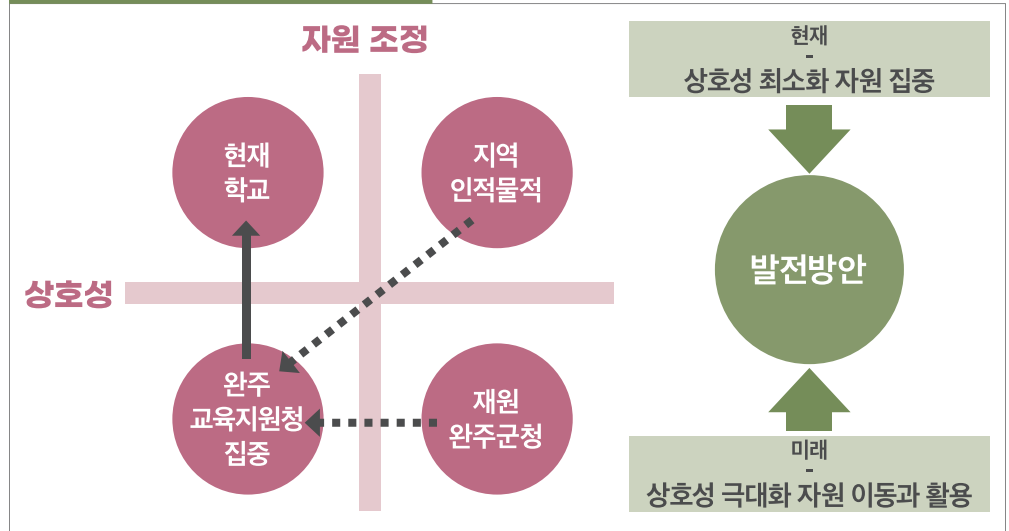
완주교육지원청과 관계를 회복하다

2017년 완주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순환전보제에 의해 인사발령 되었다. 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감토크에 함께했다. 신입교육장은 물론 장학사들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교육청과 센터는 상호 이해와 공감이 커졌다. 그해 11월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관계 장학사들이 센터를 방문했다. 얼었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교육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 교육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는 그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로컬에듀 사업에 대한 연구를 맡게 됐다(교육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8). 또한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의 협력 사업의 일환인 학교-마을교육과정을 위탁받게 되었다. 센터는 지금까지 강사를 발굴·양성하는 역할에서 배치와 프로그램 개발까지 추가 되어 센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센터는 완주혁신교육성장보고 2.0 연구에서 분석 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영역(지역의 인적·물적)은 자원이 완주교육지원청을 거쳐 단위 학교에 투입된다. 2영역(재원, 완주군청)은 지자체의 재원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지

완주혁신교육성장보고 2.0



출처: 임성희·이은영·양윤신(2018)

원된다. 3영역(전라북도교육청 혁신교육특구 예산, 전라북도 교육청 농어촌 교육특구 예산, 완주군의 창의적 교육특구 예산이 교육지원청)은 완주교육지원청에 집중된 자원이 단위학교에 지원된다. 4영역(현재학교)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단위 학교가 운영한다(임성희·이은영·양윤신, 2018).

1영역에서 4영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분석한 결과 단위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크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체 간 자원을 상호 조정하고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집중된 자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할 조직이 필요했다.



2017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내용	목표량	달성량
교육자원 발굴육성	교육동아리 구축	• 14개 동아리	• 16개 동아리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실행	• 2개 사례	• 4개사례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 2회	• 5회
조사연구 및 DB구축	교육통합연구 및 사례발굴	• 학교프로젝트 영상분석 (8건) • 자료전사분석(2건)	• 영상자료분석(2건) • 분석자문회의(1회) • 현장실행사례영상(4건)
	교육통합모델개발 및 체계화	• 포커스그룹인터뷰 • 자료전사분석	• 매개자인터뷰(11명) • 교사인터뷰(8명)
	미션소재 프로그램 개발	• 포커스그룹인터뷰 • 자료전사분석(2건)	• 매개자인터뷰(22명) • 분석자문회의(1회) • 자료전사분석(2회)
	서드애프에이저	• 학교현장 매개역량 실행영상(2회)	• 자문회의(2회) • 실행영상
	DB구축 및 활동집 제작	• 활동집(1조) • 보고서(1조)	• 자료집(1조) • FGI 보고서(1건)
교육 및 네트워크	교육전달체계구축 • 기추진관계자 순회미팅 • 사업별 포스트 미팅 • 표적집단 간담회 및 워크숍	• 순회미팅(15회) • 사업별포스트(5회) • 토론회 및 워크숍	• 순회미팅(12회) • 사업별 포스트(5회) • 고산타운출미팅
	매개자 교육	• 매개자교육과정 (30회차)	• 매개자교육과정(3회) - 이서 2회, 용진
방과후 지원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	• 교육통합프로그램 학교실행	• 용진중(22차) • 삼우중(24차) • 소양중 2학년(24차) • 소양중 3학년(24차)
	자문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2회)	• 모니터링(15회) • 컨설팅자문
	교육관련 기구간 워크숍 및 토론회	• 워크숍(4회)	• 신년회(1회)

홍보 및 대외협력	홍보 및 결과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운영 • 뉴스레터(12호) • 교육지도제작(1종) • 홍보물제작 (리플렛 외 3종) • 영상제작(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운영 • 뉴스레터(12호) • 교육지도제작(1,000부) • 홍보물제작 - 리플렛 3종, 텀블러, 에코백, 수첩 • 영상제작(1종)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10건) • 교육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9건) • 연찬회

2017년 제언

2017년 14개 교육동아리에서 삼례지역 2개 신규동아리가 인큐(Incubating)를 거쳐 구성되었고, 16개의 교육동아리가 활동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확장되는 동아리 수에 따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효과성 논의와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예산지원 이외 동아리 지원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7년 매개자교육과정은 이서, 봉동지역에 걸쳐 10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매개자 교육과정을 통해 다수의 마을 강사가 마을교육, 방과후, 돌봄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매개자의 지속적 활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회를 제공했지만 마을 교육과정의 강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로 마을 강사의 전문성은 센터가 운영되는 한 끝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2017년 F.G.I 조사 보고서는 매개자 지원을 넘어 교사의 이해도, 교육청 과제, 지역사회와 연계, 마을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 포커스그룹 미팅을 통해 교육통합모델 정착과 매개자교육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현장중심의 F.G.I연구가 이루어졌다.

2017년은 다양한 성장사례를 연구하려는 시도와 교육통합모델 확장에 대한 노력이 이어졌다. 학교 밖 토론회와 공감실험실에서 논의된 교실사례는 그동안 참여 한 학교, 학생, 수업 횟수 같은 수치상 담기지 못한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센터의 4년을 대표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교육통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센터 홍보에 있어 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2016 - 2018

“

함께 여는 새날
눈뜨는 프로젝트



세부추진사업

고산네트워크

- 1차 모임 결과보고
- 2차 모임 결과보고



봉동·이서지역 학부모모임

- 사업별 포스트미팅

교육자원발굴육성

- 이서골목FC 교육동아리 미팅



2018 매개자교육 자료집

- 자료집 발간에 앞서
- 봉동지역 매개자 교육
- 매개자 사례
- 플레이백시어터 (매개자교육 12기)



방과후 지원사업

- 소양증 눈뜨는 프로젝트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18년 사업추진성과

2018년 제언



2018

고산네트워크

1차 모임 결과보고

2018. 3. 22. 고산 다락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를 위한 멤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산네트워크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신규회원 영입에 적극적 노력과 홍보로 교육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고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래, 풀뿌리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였다.

고래나, 풀뿌리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외에 사각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각에 있는 아이들이 케어 받을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우선시 되어야 할 구체적 논의가 지역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 여론을 만들어서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래나, 풀뿌리센터는 지역의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서포트하고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육아모임 형태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기부공간이 오픈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차 모임 결과보고

2018. 12. 11.

고산 에너지 덕암마을

지역의 청소년 공간이 보편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방안은?

고산지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이용공간이 다양한 아이들의 장이 되기 위해 지역 학부모와의 간담회 필요성. / 지역의 청소년 공간이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공간이 되기 위한 방안은?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장 마련의 필요성 / 아이들이 방과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2019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회원들의 적극성 협조 당부. / 자체적 규약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익의 경우, 지역의 합의를 통해 인정해 준다. /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아이들 케어 맞벌이까지도 지역적 합의를 통해 시작한다.



봉동·이서지역 학부모 간담회

사업별 포스트미팅

2018. 12. 7.

- MMTIC과 MBTI의 비교
- MMTIC과 MBTI 이해
- 성격유형에 따른 태도 및 특징
- 16가지 MBTI유형의 이해

• 그룹활동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 말하는 방법, 말 듣는 방법



- 에너지 방향의 차이(E 외향성/ I 내향성)
-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S 감각형/ N 직관형)
- 판단과 결정(T 사고형/ F 감정형)
- 이행 과 생활양식의 차이(J 판단/ P 인식)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 소감나누기

“아이들에게 유하게 해주어야겠다.”

“새로운 성향에 대해 알게 돼서 기쁘다.”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참 사람은 신비롭다 생각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내 아이에게 왜 반응이 먼저 일까?”

“내 아이에게도 적용해야겠다.”

“나에 대해서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를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다.”

“이해 수용능력이 확장되는 시간이었다.”

“유형을 세세히 알아 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교육자원 발굴 육성 이서골목FC 교육동아리 미팅

- 일 자 : 2018. 7. 25.(수) 17:30
- 장 소 : 이서면 지사울 공원 축구장
- 대 상 : 이서골목FC 동아리 회원(회장: 한은주)
- 참 여 : 회원 8명, 센터 2명
- 이서골목FC 동아리 회원과 센터 관계자 인사
새롭게 시작하는 이서골목FC의 회원들과 센터 관계자간 인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교육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눔.

• 동아리의 방향

- 동아리 회원들만의 아이들이 아닌 주위에 소외되거나 한부모,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동아리로 성장해 나가며 지역 안에서 울타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우리 아이만이 아닌 지역의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함.

• 동아리 활동

- 사춘기 아이들의 에너지를 표출하지 못해 친구들과 싸우거나 핸드폰 중독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축구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갈 것임.
- 동아리의 예산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며 내 아이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함께 나누며 모두 즐겁고 땀 흘려 운동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할 것임.
-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아이, 자존



감을 높아지는 아이로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함. 서먹하던 아이들도 인사도 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임.

2018 매개자교육과정 자료집

자료집 발간에 앞서

2004년부터 시작된 매개자교육은 어느덧 5년이 되었다.

매개자교육의 특징은 인문학적으로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 가는 과정이다. 많은 교육과정은 기능을 익히고 배우지만, 늘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피에 그치고 만다. 왜 그럴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없고 대상만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도 나는 없다. 매개자교육을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에게 대한 성찰이 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부모와 자녀사이, 친구와 친구사이, 이웃사이 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시작점이다.”라는 것이다. 2018년은 12기 매개자교육과정과 용진, 봉동, 이서 교육생의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에 대한 성찰이 되었을 때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시작점이다.”라는 것이다.

봉동지역 매개자 교육

자녀와의 눈높이 성교육 “부모는 자녀의 성적모델입니다.”

· 청소년의 특징

“나는 누구일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는 시기(자존감 향상), 혼자 있고 싶어함 / 변덕이 심함 / 부끄러움(짝사랑)과 반항심이 동시에 보여지는 시기 / 자신감이 강하면서도 소심함 / 대중매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연예인 스타병) /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하는 시기 / 정체성 혼란 및 확립으로 성적 호기심 급성장하는 시기

· 성폭력에 대한 이해

통념상 폭력을 동반한 강요된 성관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 특히, 힘의 차이를 이용한 권력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협박, 폭행, 괴롭힘, 음란물, 몰래카메라 등을 포함.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 성폭력 피해자 특성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지 못한다. 가해자의 숨겨진 의도와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쉽게 유인된다.(돈, 음식, 인형, 애완동물, 놀아주기, 결혼 등)

사건 전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통합적 사고의 어려움이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주변 사람이다. (친인척, 아는사람 69%)이 가장 많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50% 이상, 10% 신고율)

•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폭력 상황을 왜곡하고, 가해 이후 끊임없는 위협과 회유를 한다. 돈이나 물건을 주어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애정, 연애,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르친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는 피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킨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 가해자들은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힘이 없고 취약한 사람을 범죄대상으로 선택한다.





·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되며 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듣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지속 요인들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형식적인 성교육)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유해환경: 음란사이트, 눈, 조건만남 등 성폭력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용적인 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인 요인: 신변중 업소에 취업 / 아이들이 성폭력 문제를 호소할 곳이 부족함.

교육통합모델 목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례의 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이를 통해 결핍된 보살핌의 강화로 건강한 청소년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매개자 사례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한은주 매개자

매개자 10기 한은주입니다. 현재 세 아이 엄마고요. 셋째까지 낳고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마을학교 돌봄강사를 시작했어요. 24살에 결혼해서 7년 가까이 애만 낳고 키우고를 반복했으니 얼마나 일이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일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학교로 들어가 돌봄강사도 하게 되고요. 학교 사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쯤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살에 결혼해서 7년 가까이 애만 낳고 키우고를 반복했으니 얼마나 일이 하고 싶었겠어요.”

처음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할 때는 몰랐는데 학교 안에서 사서를 하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정작 돌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사서와 학교 밖 돌봄을 같이 할 때 책을 너무 잘 읽는 한 문학소녀를 알게 되었어요. 머리는 너무 안 감아서 머리가 딱지고 왕비듬이 떨어지는 그 위로 언니도 있었는데 두 아이는 학습 부진을 겪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학교 밖은 위험하다고 동생들 데리고 그냥 집에 오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하는 돌봄교실에 들어와라. 간식도 주고 동생들 공부



도 도와줄 수 있다.” 하면서 엄마한테 말해보라고(돌봄신청) 한 후, 아이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학교 밖은 위험하다고 동생들 데리고 그냥 집에 오래요.”라고 말하더라구요. 너무 안타까웠지만 부모님이 신청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더라구요.

학교 밖에서 보니까 다 부모님의 관심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보였거든요. 학교 안에서 관심이 필요한 아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막상 그 부모님들은 관심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이해가 떨어져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알게 되거죠.

“3학년이 골을 넣으면 4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3학년 학생들을 위축시켜요.”

매개자 교육을 듣고 있는데 교육을 들을수록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전체 아이들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요. 또 수업의 내용과 방식이 맘에 들었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권력관계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돌봄을 할 때 축구를 하면 3학년이 골을 넣으면 4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3학년 학생들을 위축시켜요.

매개자가 들어간 수업에서는 평등한 의사소통구조를 배우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자신감이 없는 아이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관심이 부족한 아이도 매개자로서 관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왜 막내딸을 그렇게 미워해. 막내가 나중에 제일로 잘 살 건데.”

어린 시절 아빠에게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못난이인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주시니까 나도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안거죠. 비록 아빠가 성적표를 열어보신 적은 없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빠가 고2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뒤로는 어쩐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제가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이 늘 믿어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린시절에 술에 취해서 코가 늘 빨갛던 동네아저씨가 늘 구박 봤던 저에게 안쓰러워서 해 줬던 “잘 살 거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살짝 품었던 희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개자 활동을 하면서 소외

된 친구들에게 관심이 갔고...”

내가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개자 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관심이 갔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에 아이들을 지지해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매개자 공부하시면서 매력을 느끼신다면 나는 왜 이 수업이 좋았는지, 왜 매개자가 되고 싶은지 맘 속 깊이 물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매개자가 되고 싶은지 맘 속 깊이 물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례발표를 준비하면서 덕분에 내 안의 마음을 깊숙히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고 갑니다. 정말 필요했고 중요한 공부였어요. 여러분 덕분에입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백시어터
(매개자교육과정 12기)
2018. 2. ~ 3.

플레이백시어터 벽을 깨다

표현예술치료와 플레이백시어터 소개

집단신뢰쌓기, 감각깨우기 / 참가자 인사나누기

몸으로 나를 소개(동작, 소리) 릴레이, 무브먼트, 몸의 상징과 은유 / 소시오메소
(내적, 외적 나의 모습) / 연기, 감각 연습(2인 1조 즉흥연기)/ 생활에서 자주 접
하는 상황 / 컨덕터, 텔러, 무브먼트 등

“플레이백시어터란?”

스토리텔링과 음악을 결합한 연극형식으로 텔러의 이야기를 배우가 즉석에서 재
현하는 즉흥연극이다.”

플레이백시어터 속의 역할을 활용한 핵심질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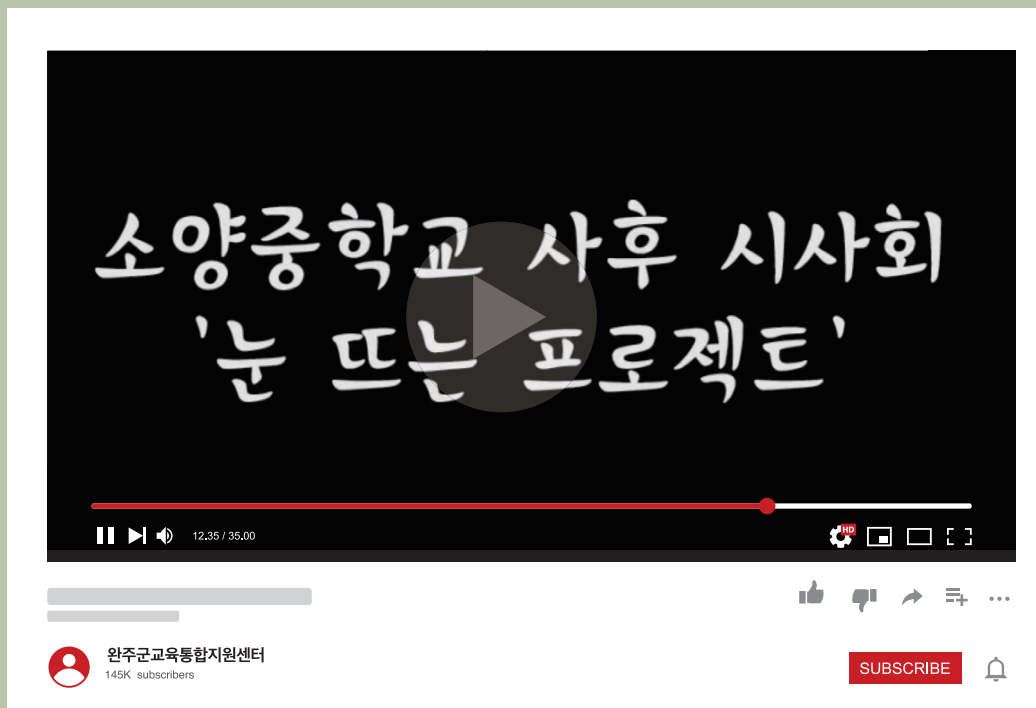
말하기·듣기·연기하기 / 질문과 표현의 상호작용(이야기 끌어내기)
스토리를 듣고 페어, 액터, 뮤지션 상황극 역할

프로그램 전과정 나눔

플레이백시어터 공연 및 소감나누기



2018 소양중 눈뜨는 프로젝트 동영상(QR)



방과후 지원사업

소양중학교 눈뜨는 프로젝트

(회차별 사후피드백
2018. 8. ~ 9.)

· 1회차 사전회의

프로그램 진행 순서

A4를 6칸 접고 눈의 명칭에 대해 2개씩 적고 12개까지 나오게 한다.

8장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아는 아이들이 생각해 쓰게 한다.

생각이 안 나면 교과서를 보고 쓰도록 한다.

매개자 소개 및 의사소통 활용을 실행한다.

모둠명 정하기를 진행한다.

· 2회차 사후피드백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

한은주 매개자: 테이블 아이들 개인적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소통을 시도 해보면서 아이들 흥미를 가져올 수 있다면 큰 효과이다. 매개자로서 내 수업 전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찬주 매개자: 선생님 공부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짰음. 수업 전에 하는 것이라 설명을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했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음, 두서없이 이야기 하고 하게 되었음. 카드 활용 매우 유효 했음. 당황해서 모둠명 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 모둠발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짜 온 시나리오 그대로 짤 수 없어서 순서대로 이야기 하게 되었음. 순서대로 하다 보니 소감도 늦게 하게 되었음, 애들도 인지가 안됐을 것 같음.

김진아 매개자: 카드가 괜찮았던 건 계속 적으라고 하면 포스트잇은 쓰는 것을 거부감 느꼈음. 카드 돌아가면서 퀴즈 내면서 하였던 것 같음. 괜찮았음. 포스트잇 사용. 이름 두 개 쓰고 보완하고 이름 카드 활용 원활. 써야 하는 것은 불만 없이 썼음.



• 3회차 사후피드백

지난회 복습 효과

대답 잘 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계속 하다보니 지루한 감이 있기는 함. 시각에 대해서 했던 걸 한 시간 잠긴하면서 지루함이 있었음. 질문하긴 하는데 승목이는 바로 대답을 못하는데 책을 찾아봐서 대답은 함. 질문한다고 해서 잘 아는지 잘 모르겠음. 승목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즐거나 하는 태도를 보임. 계속 질문은 계속하니깐 찾으려고 책은 보고 대답은 함. 모든 것에 소극적인 태도.



• 4회차 사후피드백

의사소통도구 활용

하나 쓰고 돌리고 수업시간 태도가 불순하면 자극이 필요함.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규칙 정하지 않고 들어가다 보니 중구난방이 되었음. 시작 전에 의사소통도구사용이 규칙이라고 말하고 들어갔어야 했음.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 과도하게 케어하지 않아야 하며 어린양을 받아줄 시기는 아님. 다른 데서 하면 다독여야 하는데 정리만 해줬음. 다른 아이들에겐 그림 그리는 걸 시킨 상태라 말하고 다시 진행 하였음. 승목이가 소극적이었음. 쓰라고 하면 씬. 적극적으로 수업을 잘 듣고 그러지 않을 뿐이지. 수업에 흥미가 없음. 뭘 하라고 하는 것은 함. 수업 중간, 질문하면 찾아보고 함.

• 5회차 사후피드백

현장실행을 위한 자료 찾기 및 역할 정하기 활동.

휴대폰으로 자료 찾기 중 다른 것 찾으려 뺏는다(휴대폰)고 하니 하는 척 함. 주환이는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못 찾음. 자료를 주환이한테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핸드폰 보면서 찾아라 했는데 남학생 3명은 거의 참여를 안 함.



역할 정하기의 경우, 각자 하고 싶은 거 적어 가위 바위보 해서 할까 했는데 예산 짱 맞게 떨어져서 금방 끝났으며 대부분 하고 싶다는 역할로 결정.

· 6회차 사후피드백

질문지

눈에 대한 것을 하나씩 썼고 미션지도 쓰라고 하니 하기 싫는데 도원이는 사진을 찍기로 썼고 찬혁이는 쓰지 못 했고, 주환이는 카톡도 안 해서 카톡상에서 이야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면서 써야 한다고 하니 하나는 간신히 쓰고 감. 너무 산만하고, 혜진이는 너무 좋아짐. 마스크를 쓰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했지만 나형이랑 장난도 치긴 했지만 많이 밝아짐. 남자셋은 다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수업하는데 힘들었다고 함. 왜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다음시간에는 잘 하겠다고 하고 이야기 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함. 수업하면서도 몇 번을 이야기 하였음 계속 판짓만 하고 있어 마지막에 이야기 함. 너무 힘든 시간이었음.

· 현장실행 사후피드백

실행 시, 협업 활동

자기 역할 숙지했는데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음. 아라, 가영이가 예산에는 의지를 다짐. 영상 만들만한 사람이 없음. 승목이도 못할 거라고 함. 다른 친구들 섭외하라고 하니 돈주고 사야될 것 같다고 함.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됨. 만들 사람도 없고 쉬운 어플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 가영이가 안되다고 하니깐 시간을 빼라고 하니깐 점수에 들어가느냐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임. 영상 제작 일정 보면서 순서 참여하면 됨. 공지사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상의하긴 함.

심화인터뷰

3명이라 3번 돌려서 이야기 나눔. 아라가 일정세우기까지 열심히 하였으나 심화 인터뷰 질문하라고 하니 머리가 아팠다고 함. 자기 심리라고 붙여달라고 함.



성과홍보

보도자료(전북일보)

2018. 3. 13. 발취

全羅日報

日報

완주 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심화교육 진행

교육일반 입력 2018.03.13 17:27 수정 2018.03.13 19:17

완주 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심화교육 진행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양정숙 이하 센터)는 매개자들의 요청으로 매개자심화교육 특별과정을 지난달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5차로 완주가족문화교육원 2층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매개자양성과정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11기가 양성되었다. 또한 매개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교육통합지원사업, 아동안전지도사업, 학교-마을 연계사업에 매개자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플레이백시어터

“자녀들의 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액터를 통해 벽이 깨지는 느낌, 이제부터는 나는 이걸 진짜 못해! 라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무엇이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교육참여자 소감이 특이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2024-01-03 16:04 (수)1 전북농협, 지부장-단장 인사2 한중문화

소양중 '눈 뜨는 프로젝트' 현장실행

완주 | 입력 2018.10.22 14:05 | 수정 2018.10.22 15:25

박태요 back3313@jijn.co.kr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은영)는 소양중학교 2학년과 과학수업과 연계 '눈 뜨는 프로젝트' 수업을 9월부터 진행하고 19일 현장실행을 진행하였다.

과학수업과 연계하여 교육통합모델을 적용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에 대한 구조와 기능 이해, 모둠별 시연, 모둠별 질문을 만들어 상호피드백 순으로 진행 학습에 인지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눈 뜨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과학수업이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실제 시연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 평소 수업과 다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실행은 국립 중앙과학관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둠별 미션수행 활동과 심화인터뷰,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사이언스 데이 부스 체험관에서 다양한 거리를 체험했다.

과학기술관은 근·현대과학기술,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기관이며, 감각기관과 관련한 생애 주기별 인체 영상 체험을 통해 몸 안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양중학교 과학담당 교사는 "현장실행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과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국립 중앙과학관 공간에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소양중학교 눈뜨는 프로젝트

국립중앙과학관 방문

'눈 뜨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과 연계한 현장 활동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평소 수업과 다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2018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내용	목표량	달성량
교육자원 발굴육성	교육동아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동아리 • 동아리순회교육(30회) • 권역결산(5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동아리 • 동아리순회교육(54회) • 권역결산(6권역)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사례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
조사연구 및 DB구축	교육통합연구 및 사례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미한성장(10건) • 분석사례(10건) • 공감실험실(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미한성장(15건) • 분석사례(15건) • 공감실험실(1회)
	교육통합모델개발 및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커스그룹인터뷰(5그룹) • 국민디자인단(10회) • 학부모 매개자 연구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커스그룹인터뷰(5그룹) • 국민디자인단(10회) • 학부모 매개자 연구보고
	미션소재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커스그룹인터뷰 • 자료전사분석(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자인터뷰(22명) • 분석자문회의(1회) • 자료전사분석(2회)
	DB구축 및 활동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활동집(1조) • 동아리영상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집(1조) • 동아리영상제작(1건)
교육 및 네트워크	교육전달체계구축 • 기추진관계자순회 미팅 • 토론회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미팅(12회) • 토론회 및 워크숍(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산네트워크순회미팅(10회) • 토론회 및 워크숍(1회, 50명)
	매개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자 교육과정(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자 교육과정(2회) • 삼례봉동 기초과정 13명 수료 • 용진지역 심화과정 15명 수료
방과후 지원	교육통합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사례
	자문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4회) • 컨설팅자문(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5회) • 컨설팅자문(1회)
	교육관련 기구간 워크숍 및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1회, 50명) •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1회, 50명) •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홍보 및 대외협력	홍보 및 결과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 • 뉴스레터(12호) • 교육지도제작(1종) • 홍보물제작(리플렛 외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방문(98,370명) • 뉴스레터(12호) • 교육지도제작(1종) • 홍보물제작(리플렛, 쿨토시, 담요)
	대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15건) • 교육토론회(1회) • 신년하례회(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30건) • 교육연찬회(1회, 100명) • 신년하례회(1회, 100명)

2018년 제언

2018년은 이서지역 골목FC, 용진지역 아이들과 노라조 등 신규교육동아리 구성과 함께 봉동 외 9개 권역 18개 동아리가 활동했다. 동아리 순회미팅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교육주체로서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돌봄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했다.

2016년부터 지난 3년간 진행된 아동안전지도는 2018년 용진초 외 4개교와 함께 마을 탐방을 통해 학교주변 지형뿐 아니라 마을주민, 마을의 이야기를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듣고, 우리가 엮은 것들을 지도에 담아낸 결과물이다. 완성된 각 학교의 지도는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디자인단 최종과제로 ‘가정 내 돌봄결핍 지역사회 엄마쌤 교육통합모델 구축’이 선정되었다. 이는 결핍아동과 학부모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중간조직인 교육통합이 행정기관인 완주군과 함께 지역의 삶의 주체인 엄마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매개자가 함께 했다.

엄마쌤의 기본모델은 매개자이다. 2018년 매개자교육과정은 12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같은 해 공감실험실의 주제는 조심스러운 확신이었다. 2017년 공감실험실의 주제 ‘애매함을 견디는 인내’에서 조금씩 성장된 것이다. 그야말로 매개자 교육의 자리매김 시기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우려와 행정의 한계는 존재하고 있다.

교육통합모델이 모든 주제의 수업에 적용되느냐와 매개자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 책임소재 발생 시 행정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등 매개자 활동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매개자의 역량은 끝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매개자는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자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전문역량이기 때문에 이를 견인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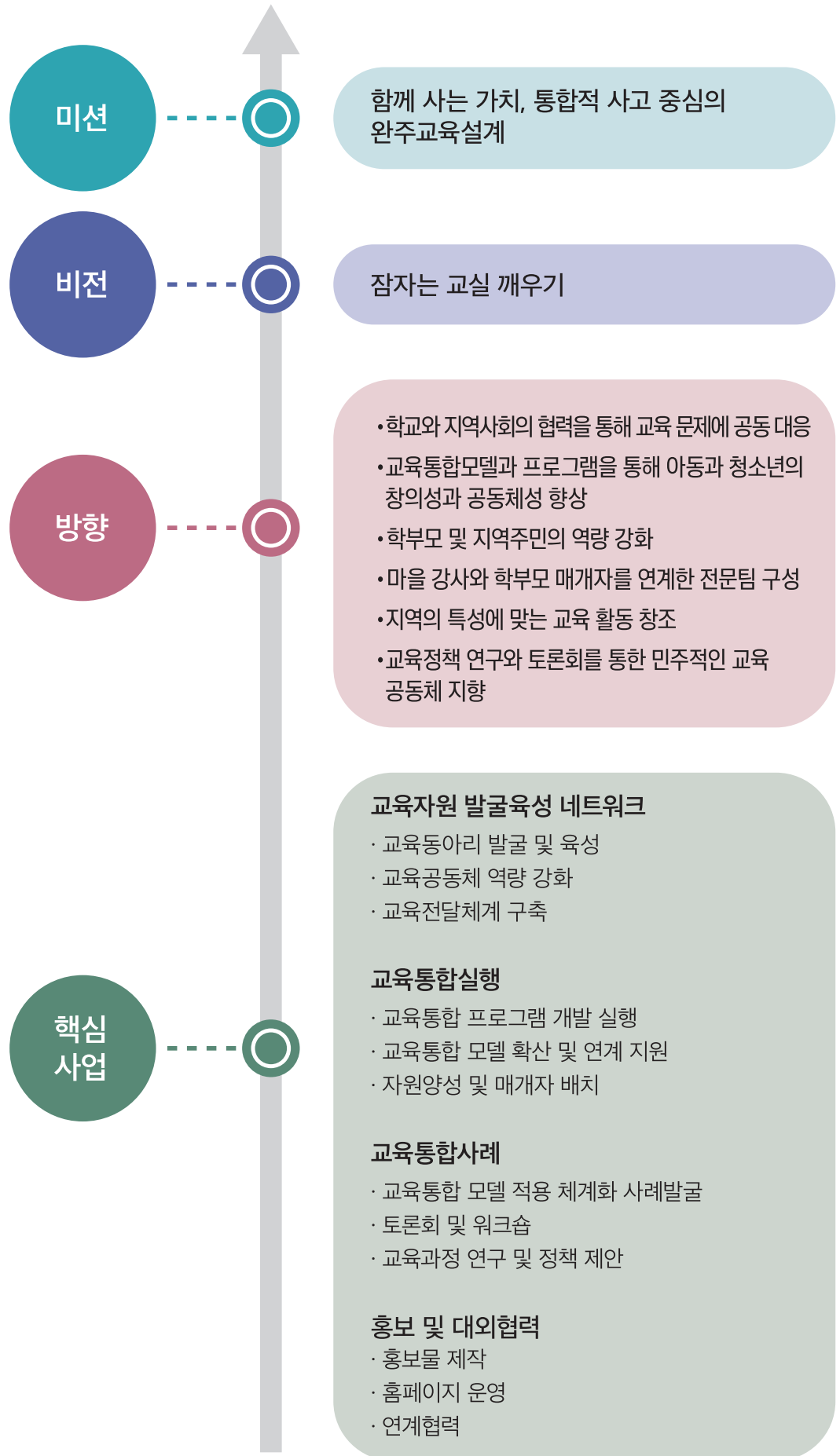
“

조심스러운 확산



2019 - 2021

확장기 비전과 방향



연도별 사업요약

첫째, 교육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 전문가 등 매개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동아리와 전문 영역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했다. 목적은 학부모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그들이 교육 과정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셋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맞춤형 학교 지원과 완주군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학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추진사업

이따요 프로젝트

- 삼우중학교



공감실험실

- 조심스러운 혁신

완주군 교육활동지도



동아리 활동집

-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 결과 보고
- 보고서를 마치며



어떤 사람이고 싶니(?)

- 자유를 원하는
사람 프로젝트



2019년 사업추진성과

2019년 제언



학교-마을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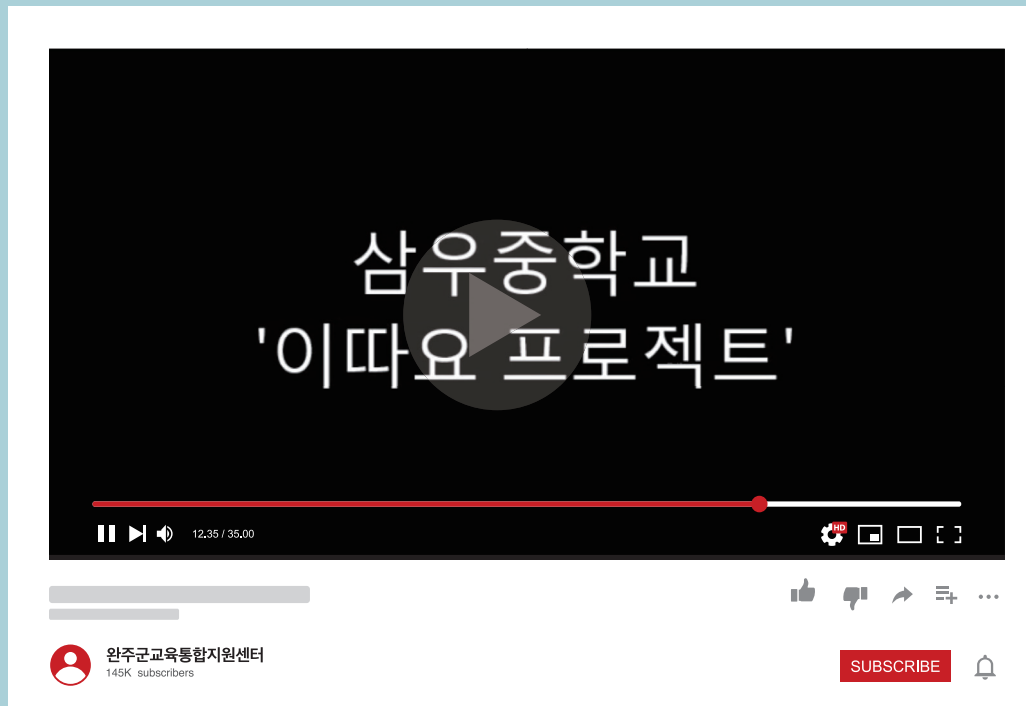
- 학교-마을
교육과정 로드맵

교사가 경험한 매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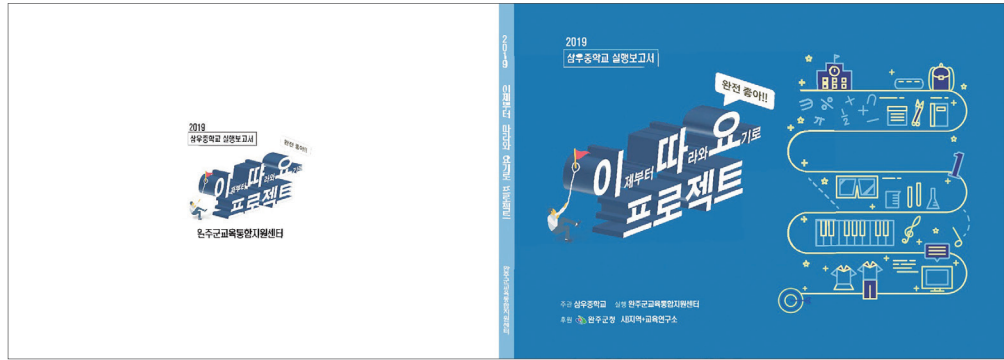


2019

2019 이따요 삼우중 프로젝트 동영상(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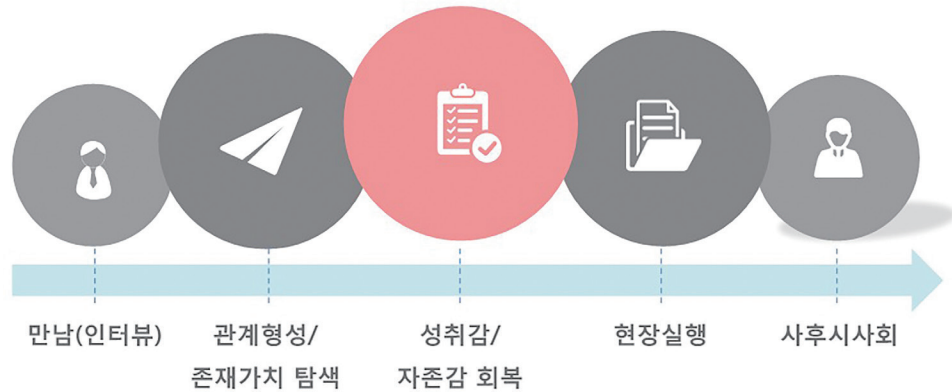


이따요 프로젝트 삼우중학교



삼우중학교의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습장애 요소를 줄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기존의 ‘떠저리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갈 25명의 정예 멤버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은 무작위로 섞여 모둠을 이루고, 흥미롭고 참여적인 게임을 통해 멤버들을 선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논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교육통합실행 과정



프로젝트는 말하기, 쓰기, 듣기, 발표하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합의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천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젝트 방식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통제력을 키우며,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었다.

“공부는 거름같다”, “냄새나고 드러운데 장난으로 똥”이라고 하면서 논의하였다.

목 차

01

계획과 준비

- 교육통합실행 과정
- 연구과제 도출
- 운영 배경 및 추진방향, 목표
- 기획과정 및 일정
- 회차 흐름 및 의사소통 도구들

02

사전인터뷰

- 처음 만나다

03

교육 과정

- 친해지다
- 모둠 구성
- 전 과정 계획
- 이따요 프로젝트
- 같이하자 영화보기
- 영화보기
- 준비와 시나리오

04

현장실행

- 현장실행

05

사후평가

- 사후시사회
- And 공유

06

사후 인터뷰

- 사후 인터뷰
- 뒷 이야기

삼우중학교의 교육통합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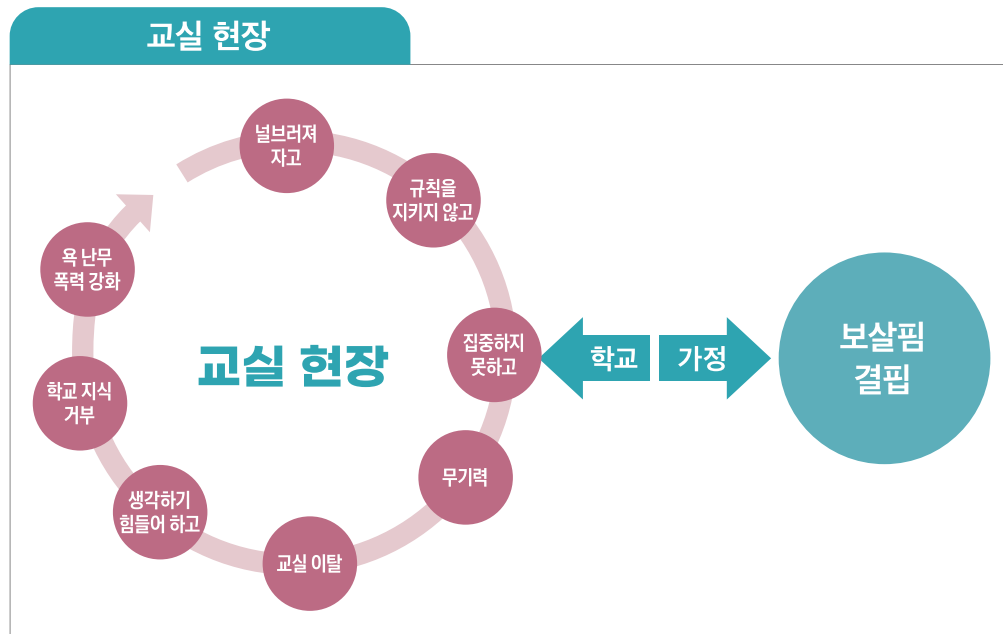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업하는 법을 배웠다.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그들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감실험실 조심스러운 확신

공감실험실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삼우중 학교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경험했을까(?) 우리는 2017년 애매함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 조심스러운 확신을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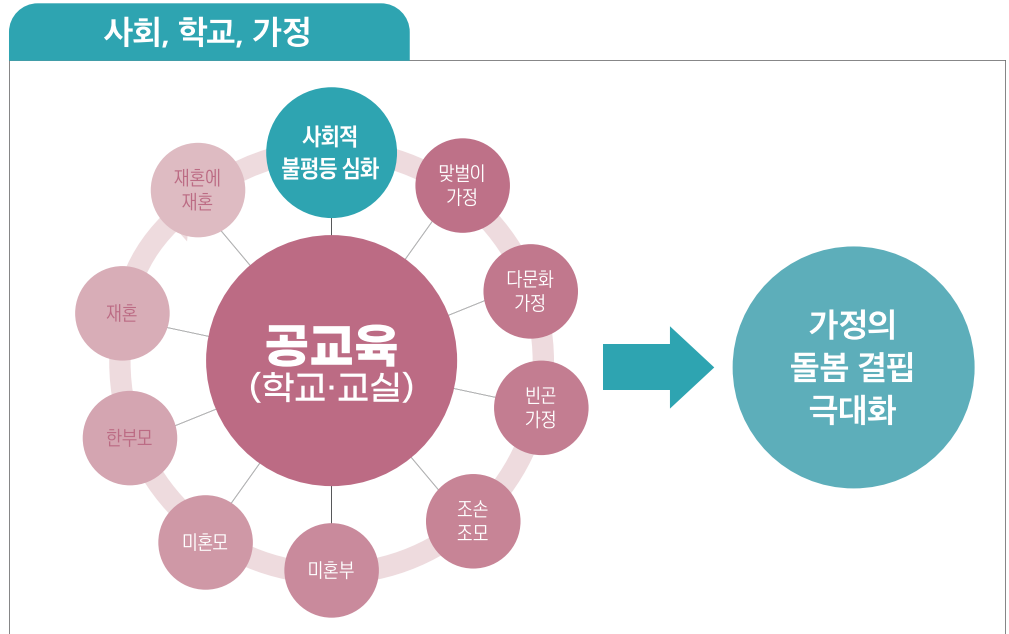
김○기 학생은 장난스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했고, 오○현 학생은 밝아지고 참여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서○혁 학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견을 잘 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욱 학생도 점차 참여하며 발표를 시도했다. 아이들의 다양한 변화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매개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선생님들은 따뜻한 마음과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소감을 나누셨다. 학교와 아이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선한 영향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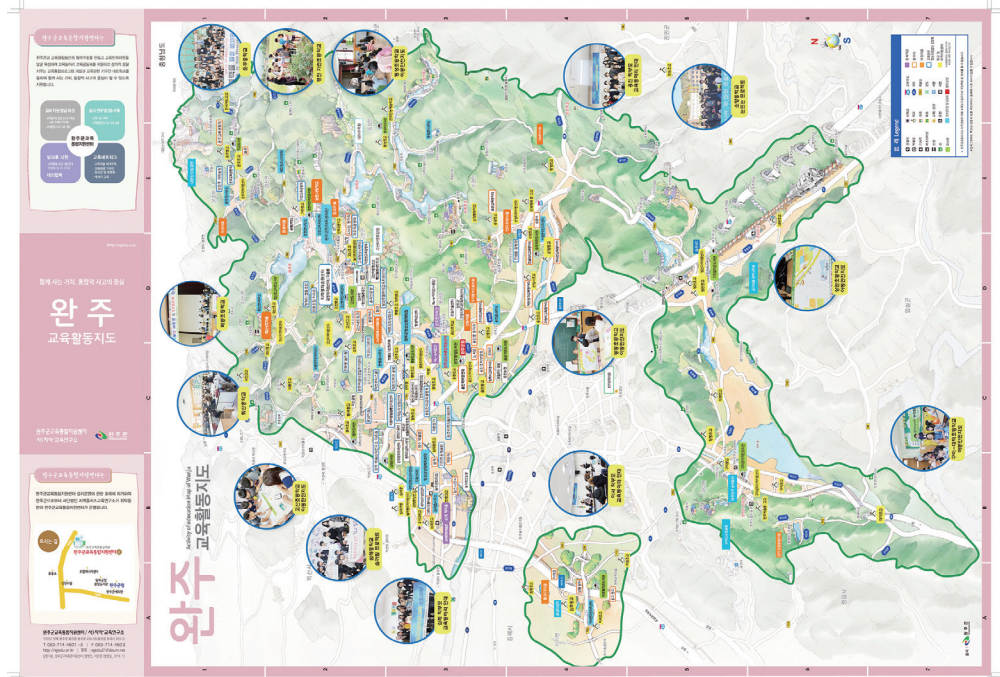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자부심 있게 여기셨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깐 동안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희망찬 바람을 품고 계셨다.



또한,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센터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따뜻한 소망을 나타내셨다.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처음에는 모호했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다. 선생님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완주군 교육활동 지도



※ 교육활동지도란 교육통합지원센터가 2014년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통합활동을 확장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맵이다.

동아리 활동집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올해 교육동아리를 통해 자녀와 지역의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주신 교육동아리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교육동아리가 뿌리를 튼 지 벌써 7년이 되었다. 교육동아리는 학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마다 동아리 하나가 '잉태' 된다.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동아리가 완성되기까지 학교 관계자의 노력이 담겨있다.

그러나 학교 여건과 상황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 수업의 영향이 매우 큰 터라 학교의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과 어찌면 동일시 될 수 있겠다.

2018년 기준 우리 사회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58%를 넘어 가정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구나 가정해체라는 사회적 위기는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더욱 양극을 달리고 있는 현재, 혹 아이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하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가정교육을 전제로 출발한 학교 교육은 가정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엄마'의 마음을 가진 성인 여성들을 요구한다. 그 끝 자락 어디가 학부모 동아리가 아닐까?

따라서 우리는 교육동아리가 아이들을 지역에서 함께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일조할 수 있는 기초 연대체이기를 소망한다. 예컨대 혼자 키우던 아이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나의 지지자와 동료로 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주체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적 지원과 리더 육성을 통해 교육 주체로 거듭나고 나아가 학부모간의 네트워크 근간을 마련하여 내 자녀와 지역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도모하는 모종의 교육적 안전망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되고자 한다.

지역의 동아리들이 활발히 활동 할수록 지역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관심과 헌신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2019년 교육동아리 활동을 해주신 학부모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더욱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란다.

결과 보고

간중애애했 교육동아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결속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쉼을 찾는 주말 야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카라테 교육동아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성장이 가득 한 곳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성장하는 아이들,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까지 포용하며, 모두가 함께 웃고 배우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카라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대회 참여를 통해 더 큰 꿈을 키웠다.

매아리 교육동아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매개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피치 교육과 청소년 심리 상담, 명상기법 등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집중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이들과 노라조

아이들과 노라조 교육동아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력과 책임감을 키웠다. 아이들은 역할 분담, 규칙 설정, 예산 관리 등을 스스로 해내며 독립적인 사고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범이 되었다.



늘봄 교육동아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자녀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창의적인 활동과 긍정적인 교육 방식으로 회원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에게도 넓은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있다.

이매모 교육동아리

학교 교실 붕괴 문제와 문제 행동 아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접근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이 동아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늘봄 교육동아리

성교육과 가족 소통을 촉진하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지식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자녀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키우며, 지역 내 아이들과 외각 지역 아이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활동을 통해 인간애와 공익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응기종기 교육동아리

학부모들의 재능기부와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들에게 역사탐방 및 컵과일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맘소리 교육동아리

상실되어가는 공동체의식 회복과 학교교육의 본질회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이 지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방문하여 동화연극 공연 및 학생들과 동화읽기, 동화연극 제작을 통해 창의성과 리더십에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

명랑독서회 교육동아리

이서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안을 생각해 보고자 모인 학부모. 청소년들에게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갖게 하고자 낭독회를 기획하고 있다.

용진중 교육동아리

용진중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및 학생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인 학부모. 유대감 형성과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체육대회 경기참여 및 학생 간식 만들

기를 주최하여 학생들의 의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용진초 교육동아리

자녀와 함께 생활 속 과학을 이해하고, 교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며 생각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학부모. 용진초 참관수업 및 역사탐방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있다.

보고서를 마치며

순회미팅을 시작으로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면서 부담감이 점점 작아졌다. 내 아이와 지역의 아이를 품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부담감을 줄여 주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매번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적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시간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런 학부모들의 헌신이 우리 완주군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활동 지원금이 완주군 지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정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엄격해 서류 준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교육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동아리들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고민들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내 자녀를, 지역의 아이를 품기 위한 시발점이기에 행복한 고민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교육동아리 및 비예산으로 운영된 운주, 고산, 화산 지역의 여러 동아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교육동아리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진 진정성 있는 실천하는 동아리가 되기를...

2019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비고
교육자원 발굴육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동아리 발굴 및 육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동아리 발굴 지원 (20개) 교육공동체 육성 (5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동아리 발굴 및 지원(7개지역 18개) 동아리 인큐베이팅 (소양, 봉동, 용진) 동아리 순회미팅 (30회, 300명) 동아리 결산보고회 (4개 권역, 140명) 교육공동체 교육 및 간담회 개최 (34개 기관, 8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집 1종 영상 9건 PPT 9건 보도자료 결과보고
교육통합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 프로그램 개발 실행 교육통합 모델 확산 및 연계 지원 자원양성 및 매개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연계 (3개교) 매개자 및 마을 강사 연계 및 배치 학교 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매개자 기초·심화 교육(2회) 워크숍(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프로그램 실행(4개교, 115명) 용진·완주·삼우·고산중학교 프로젝트 학교지원프로그램 모니터링 (20개교, 300명) 매개자교육 기초·심화 (3회, 26명 수료) 완주군 정책특강 연계 매개자 실습과정 - 타운홀미팅(3회) 고산고 진로프로그램 연계 실행 드림스타트 연계 프로젝트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5종 영상 20건 PPT 수업자료 보도자료 결과보고
교육통합 연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 모델 적용 체계화 사례발굴 토론회 및 워크숍 교육과정 연구 및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실험실운영(2회), 질적사례연구 토론회 및 워크숍(2회) 정책제안 학부모, 학생, 마을 강사 모니터링(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실험실 운영 학부모 교육동아리 타운 홀미팅(73명) 컨설팅 자문회의 (2회) 모니터링단 회의(10회) 사전·사후 모니터링 (2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자료 결과보고
홍보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연계협력 (신년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소식지(12회) 홍보물제작(3종) MOU 체결(15건) 연계협력 신년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상시) 홈페이지 방문 (55,768명) 온라인 뉴스레터 46호~57호 발행(870명) 홍보물 제작(1종)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 영상 제작 교육활동지도 업데이트 교육관련 유관기관 신년간담회 개최(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1건 보도자료 결과보고

2019년 제언

2019년의 가장 큰 특이점은 완주군의 신임과 선임 공무원 간 상호 다른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자 추진된 ‘챌린지100°C타운홀미팅’으로 기억된다. 타운홀 과정에 다수의 매개자들이 참여하여 모둠 내 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또한 소양·봉동·용진에서 학부모 교육동아리가 인큐베이팅에 참여하고 있다. 잘 성장된 동아리의 활동을 기대한다.

학부모와 마을 강사·매개자들 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통합시스템의 실제적 운영 근거를 현장에서 공동체 차원, 학교지원차원, 전문가 양성차원, 지역사회 사람자원발굴 차원에서 마련함으로써, 교육통합의 구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완주군과 완주교육청 간의 공동논의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완주군의회에 직접적인 방문과 미팅을 통해 센터를 알리고 이해하게 하는 노력을 병행했지만, 교육통합이 어렵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실행과 교육융합모델 확산 및 연계 지원 사업의 학교(정규과정, 방과후과정)지원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학부모 동아리가 잉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 (방식, 매개자태도, 교육통합적용확장의 한계) 이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와 동아리 잉태는 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긴장감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학교-마을 교육과정



‘학교-마을교육과정’은 2015년 완주군의 창의적 교육특구와 완주교육지원청의 혁신 교육지구가 협약한 협력지구 사업으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단위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완주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학교와 마을이 아이의 꿈을 찾아 키우는 행복한 완주교육을 위한 실천이다.

학교-마을교육과정은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이 협력구조를 만들어 완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한다.

특히,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마을교육과정은 강사 즉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매개자는 학교마을 강사의 출발이다. 학교-마을교육과정은 완주 관내 47개 다양한 유관기관(동아리, 협동조합, 사단법인)이 15개 영역 2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강사를 위한 연 2회 상·하반기 필수 교육이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기본교육(소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CPR교육)을 이수한다. 또한 매년 신규기관을 모집하여 학교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단위 학교에 활동할 수 있게 돕는다.

학교-마을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열어줌으로써 코칭교사와 마을 강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매년 프로그램 안내서와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학교-마을교육과정은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가 협력구조를 만들어, 완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합니다.

2024년도 학교-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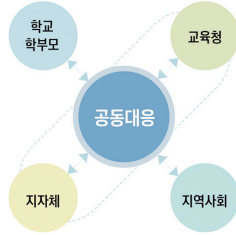
- 공예(6)
- 문화예술(6)
- 제과제빵(1)
- 환경·생태(2)
- 역사·문화(2)
- 스포츠(4)
- 전래놀이(1)
- 진로(4)
- IT·과학(3)
- 프로젝트수업(3)
- 기타(5)

37개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찾아 키워는 행복한 완주교육

함께 사는 가치 통합적 사고 중심의 교육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

①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 456-39 가족문화교육원 2층
② 전화: 063-714-4601~2 | 팩스: 714-4603
③ 이메일: wjedu21@daum.net

(사)지역플러스연구소

2024년 완주군 학교-마을 교육과정 프로그램 안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2024년도 완주군 학교-마을교육과정 운영기관

공예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광혜이숙(의)	전통경화장본으로 활판지르기	5,000~10,000	과학 환경
2	밴드플라워	페이퍼아트	6,000	예술 진로 창작
3	대안공간	캐릭터 배구나 스탠드만들기, 가물안뜰가	15,000	기타 미술 창작
4	미소공방 공예공동체	생활주제, 바느질, 두개질, 입사리공방	5,000~10,000	기타 미술 창작
5	올리브공방	프랑스자수, 전래제품, 입사리공방	5,000~10,000	기타 과학 미술 사회
6	애호니꾸	죽공, 난타, 오가	15,000	과학 수학 음악 체육

문화예술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기린무용 예술원	병선댄스, 오가, 라간댄스, 발레 등		체육
2	공강독서회	그림책 인문독, 음악적으로 이어지는 그림책		국어 미술 사회 음악
3	극단부른송	꿈치불 만들기, 연극 만들기		국어 무용 음악
4	완산지역발전 전문회	교과서 속 국악, 민요, 안소리, 강강술래, 놀이대잔		음악
5	극단 향연	교과 연극		통합 교과
6	완주북동 풍물굿보존회	사물놀이, 풍물놀이, 장구놀이		음악

제과제빵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부드러운두 애덕꾸기	교과통합 쿠키, 케이크, 피자, 예쁜 만들기	10,000	과학 국어 기타 미술

환경·생태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드림활판공방	환경교육, 환경서문, 텃밭가꾸기, 텃밭놀이, 농약관리	10,000	과학 기타 사회 진로
2	송정어생동조합	송정생물놀이, 동시 워크숍, 송은 어린이도서관, 생태지도 그리기	5,000~20,000	과학 국어 사회 체육

역사·문화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로컬컨텐츠연구소	생태체험학습, 박물관 견학, 역사교육	5,000~15,000	과학 국어 미술 사회 융합 체육
2	완주학원	완주지역 체험학습		사회 국어

스포츠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라안놀이	통합놀이체육		통합체육
2	완주군 송성기합회	음악울림기	7,000	체육
3	전북북춤 아카데미	북구, 농구, 로상		체육
4	조동호스포츠클럽	뉴스포츠 놀이체육, 축구, 배드민턴		체육

진로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다티움에듀	진로탐색, 진로특강, 진로심리, 직업개발, 창의력강화 화가기합	10,000	국어 도덕 사회 진로
2	파라유점동조합	비즈니스, 입사서류작성, 취업준비수업	5,000	과학 경제 사회 통합
3	완주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모-자녀관계프로그램, 대안학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예방프로그램		진로
4	하브루타스쿨	하브루타 교육, NE는송, 독서지도		과학 국어 사회

전래놀이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용수동	전래놀이, 전통춤, 전통놀이		음악 체육

IT·과학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메이커팩토리	로봇, 커리큘, 예뻐바스, 코딩, 드론 등		과학 음악 미술 수학
2	완주군청IT공공청	코딩, 드론, 로봇		과학 수학 음악
3	드림에듀	코딩, 예뻐바스, 드론, 로봇과학		과학 수학

프로젝트 수업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K-메이커사업단	지문인상 프로젝트, 인문체험 프로그램,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학 과학 역사 통합
2	해·사물넷공동체	창의수학, 책놀이, 보드게임, 드론, 전통놀이, 놀이체육, 기후위기변화교육, 생활과학		과학 영어 국어 음악 기타 정보 수학 창의 역사 체육
3	지천가세상	찾아가는 찾아가는 지천가 안전교육		과학 역사 환경 체육

기타

순	학교마을 기관	프로그램	재료비 (1인 기준)	교과 연계
1	같이뛰어놀자	놀이책, 전래놀이, 뉴스포츠, 리듬울림기		국어 음악 역사 정보 통합
2	대경안재개발 안전교육관	전기자동차, 스마트건설기계, 전기안전, 용접 등		기술 진로 과학 사회
3	모두누리	원예, 환경, 뽕, 코딩, 전래놀이, 입사리공방, 송골, 송애		기술 과학 가정 미술 통합
4	지피티스	CharGPT 이해, 활용, 그룹활동		과학 기술
5	진로포럼	나비 삶의 이야기		진로

학교-마을 교육과정 로드맵

순	일정	내용	세부내용	비고
1		위탁 서류 제출		
2	1월	신규 장학사 학교-마을교육과정 안내		
3		학교와 기관 간 프로그램 매칭 및 예산 조정	• 학교별 확정된 교부금에 맞게 기관 간 프로그램 매칭	
4	2월	기관계약 체결	• 기관별 계약서 제작 • 기관별 예산확인서 제작	
5		전체 연수(행정교육 포함)	• 학교-마을 운영 방향 공유 • 변동사항(홈페이지 포함) 관련 공지	
6		서류 제출	<기관>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강사총괄표 • 업무협약서 • 이행각서 <강사> • 강사카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성범죄조회동의서 • 채용신체검사서	기관 -> 센터
7	3월	학교-마을 수업 시작		3월 ~ 11월
8	7월	설문조사		학교, 기관
9	8월	전체 연수	역량강화 연수 진행	
10		신규기관 모집	• 5인 이상의 교육공동체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필요(완주)	
11	9월	신규기관 간담회		
12		차년도 프로그램 안내 책자 제작	• 신규기관 포함 • 변동 및 추가되는 부분 업데이트	
13	10월	신규기관 교육	• 교육 이수해야 진입 가능 • 80% 이상 참석시 수료증 발급	
14	11월	원탁협의회	•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 신규기관 홍보 필요	
15		학교-마을 수업 종료		
16	12월	금년도 학교-마을 결과보고 책자 제작	• 학교별 매칭 기관 확인	
17		교부금 확정	• 교육청에 확인	

교사가 경험한 매개자

학교 현장에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직접 진행하다...

2019년 3월 처음 센터에 입사하여 들은 단어들은 교육통합프로그램, 프로젝트, 의사소통도구, 매개자, 자원개발 등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입사 후 매일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매번 의견을 내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신선했다. 재미있었다. 특히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인 활동이었다.

다만 이런 의문이 들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아닐까? 굳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 의견을 모아야 할까? 중학생들이 과연 의견을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수업이 용진중학교 '존딱 프로젝트'였다.

'존딱! 존중 딱 좋아'의 줄임말이다. 모둠을 정하는 첫날! 모둠 하나를 정하는데 2시간이 넘게 소요되었다.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아이들 이름을 집어넣어 몇 초 만에 모둠을 정하던 것과 완전 달랐다.

어떻게 하면 모둠을 공평하고 친구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게 모둠을 구성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몇몇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말했다.

용진중 수업을 참관하면서 나는 매개자의 활동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둠마다 배치된 매개자의 역할이 이 프로젝트 수업의 8할을 차지했다.

학부모 매개자! 각 모둠에 배치되어 아이 한 명 한 명 관찰하고 눈을 마주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자의 도움이 이 수업의 매력이었다. 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때로는 연인처럼 밀당하는 매개자와 아이들은 이 수업의 꽃과 같았다.

수업을 마치고 한 매개자의 소감이 생각난다. "화내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들과 함께 모둠을 이끌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이들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재미있고 '내가 수업의 주체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매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흥분되었어요."라며 수업을 통한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랬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치기까지 수십 번의 의사소통 도구를 돌리고 의견을 모으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현장 실행에서 아이들은 또 한 번 성장한다. 스스로 사용할 돈을 계획하고 여행 일정을 짜고 역할을 나누고 어느 하나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길거리에 서서 아이들은 기나긴 의견을 또 모으고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인다. 요즘처럼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연구원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모둠 안에서 낯설지 않은 소재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학교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내 수업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 함께 진행하고 싶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자기 성장 프로젝트’였다.

시골에 있는 학교! 전국 각지에서 온 도시의 아이들! 시골 마을! 이 조합은 마을과 잡음의 시작이 되었다.

아이들은 ‘산책을 한다’라는 핑계로 마을 밭 농로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온갖 쓰레기가 농로를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그뿐 아니라 호기심에 하우스에 구멍을 뚫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자 학교에는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교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회의를 진행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았다.

센터에서 배운 대로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명, 모둠,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아이들과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업은 그다지 매끄럽지 못했다. 의사소통 도구에 낯설어 있는 아이들과 매개자가 없는 수업은 양꼬 없는 찌빵과 같은 수업이었다. 특히, 매개자의 부재가 컸다.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매번 많은 교사가 수업에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모둠뿐만 아니라 교실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을 혼자 해야 했기 때문에 버겁고, 뼈격거리는 수업이었다.

매 수업 매개자 대신 나는 모든 모둠을 돌아다니며 의사소통 도구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했다. 매개자가 없다 보니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매력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럴 때마다 의사소통 도구의 의미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모으는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며 의견을 모아갔다.

그러나 나에게 다시 시련이 왔다. 현장 실행!!! 두 모둠으로 나누어 현장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교사가 한 명이다 보니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되었다.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 움직이는 반경도 커졌고, 고등학생이지만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교사 혼자서 인솔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가는 길 또한 험난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는 어르신에게 말 붙이는 것 하나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합지졸 같아 웃기면서도 과연 이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시골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우리는 이장님을 만났다. 이장님을 찾는데 허둥대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큰 기대감 없이 아이들의 뒤편에 서서 아이들의 인터뷰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의 착각이었을까? 아이들의 태도는 진지했다. 너무 멋있고 젠틀했다. 마을과 학교가 다투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장님의 의견을 진중하게 경청하며 때론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30분을 훌쩍 넘겨 장장 2시간 동안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멋진 마무리 단체 사진을 찍고 이장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홍시를 먹었다.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웅담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길 물어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걸 제 인생의 최고의 용기였어요' 하며 어린양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아이들은 이 작은 것 하나가 도전이고 용기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매개자 없는 부족한 프로젝트였지만 나름 만족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매개자의 도움은 크다. 물론, 학부모 매개자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학교는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학부모 매개자는 그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또, 이 전문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한다는 것도 또한 어렵다. 그래서인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고 어렵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로 불안해 하는 아이, 삶과 죽음을 놓고 고민하는 아이, 친구와 이성의 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 무기력함에 매일 자는 아이 등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을 담임 또는 교과 선생님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다.

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부터 MBTI,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이 학교들과 연계되어 진행된다면 교사도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baby.)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난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 현장에 적용한 가장 큰 틀이었다. 새학기를 앞둔 나는 수업계획을 짜고 있다. 물론 교육통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만날 아이들, 어떤 전개와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며 오늘도 설레임을 가득 안아 본다.

성일고등학교 교사 **양귀임**

2019 - 2021

“

통합하줘



세부추진사업

교육동아리
순회미팅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공감실험실

- 부단히 묻고
또 묻는 허물기와
쌓기



전북교육협력지구
타운홀



2020년
유관기관 간담회

- '통합하위'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20년
사업추진성과

2020년 제언



2020

교육동아리 순회미팅

2020년도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교육동아리 순회미팅은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와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차 순회미팅은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어 각 동아리의 운영계획과 초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각 동아리는 자체적인 운영 원칙과 계획을 세웠으며, 예산 사용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차 순회미팅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어 동아리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동아리들이 계획 변경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각 동아리별로 주요 활동과 고민, 성과를 살펴보면, ‘고동소리 교육동아리’는 신규 동아리로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계획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담 교육동아리’와 ‘맘소리 교육동아리’는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수업과 연극 활동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이외에도 ‘맘키움’, ‘봄꿈’, ‘아기자기’ 등의 동아리들은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러한 동아리들의 활동을 통해 2020년도 완주군의 교육 환경과 지역사회 참여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각 동아리의 세부 활동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다.

‘고동소리’ 교육동아리

2020년에 새롭게 시작된 ‘고동소리’ 교육동아리는 따뜻한 학부모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했다. 2월의 첫 모임에서는 학부모들이 모여 동아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8월에는 8명이 모여 강사 초빙 대신 프로그램 진행비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동아리는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꿈담’ 교육동아리

‘꿈담’ 교육동아리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의 첫 모임에서는 회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극 관람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8월에는 저학년 대상으로 활동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반기에는 아동극 시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을 느꼈다. ‘꿈담’은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을 위한 동아리로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성장과 창의성 개발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맘소리’ 교육동아리

‘맘소리’ 교육동아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극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며 소규모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모색했다. 이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깊은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동아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능력을 드러냈다. 이 동아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맘키움’ 교육동아리

‘맘키움’ 교육동아리는 자녀의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원예와 미술 수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동아리 활동은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부모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회원들의 자녀들은 원예수업에서 만든 다육테라리움과 미술수업에서 제작한 쿠션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동아리 운영은 회장 문여정 씨가 주도했으며, 향후 동아리 지원금 확장을 통해 더욱 풍부한 프로그램 제공이 기대된다.

‘봄꿈’ 교육동아리

‘봄꿈’ 교육동아리는 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육아 사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이를 자신의 아이에게 적용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의 모임을 기약하며 유년기 자녀를 위한 간식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기자기’ 교육동아리

‘아기자기’ 교육동아리의 이야기는 학부모들의 따뜻한 마음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학연계 프로젝트 논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들의 성실한 노력을 보여준다. 아기자기 동아리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며,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아이들과노라조’ 교육동아리

‘아이들과노라조’ 교육동아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며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빠와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용기종기’ 교육동아리

‘용기종기’ 교육동아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규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 간의 연결을 유지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다. 비록 대규모 활동이 어렵지만, 이러한 소규모 모임들은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용진중’ 교육동아리

‘용진중 교육동아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이다. 중학생 자녀들의 진로와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부모 교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부모와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용진초’ 교육동아리

‘용진초 교육동아리’는 환경 친화적인 활동에 집중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이 동아리는 EM 흙공 환경정화 체험과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전달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계획된 많은 활동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마스크 제작과 같은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며, 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한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매모’ 교육동아리

‘이매모 교육동아리’는 부모와 성인들의 내면 소양을 키우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 깊이 있는 소통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강의는 부모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수제청 만들기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과 나눔을 위해 기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동아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미 있는 교류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서골목FC’ 교육동아리

‘이서골목FC 교육동아리’는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동하며, 동아리의 확장과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서FC와의 협약, 리그전 참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동아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회원 수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예산 부족의 문제는 동아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이서골목FC’의 모습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이 어우러진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다.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2020년 완주군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찬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순회미팅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 인큐베이팅된 동아리들을 소개했다.

아기자기, 봄꿈, 이매모 등의 동아리가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으며, 교육동아리 지원금 사용과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이 행사는 교육동아리 회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서골목fc의 김철희 코치가 즉석 노래공연을 펼쳤고, 코스프레 복장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여했으며, 이것은 비대면 결산보고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Q&A 시간에는 질문이 없었지만, 참가자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었다. 완주군청 한혜영 주무관도 이 중요한 행사에 함께했다.

동아리 이름	인원수	동아리 이름	인원수
꿈담	8명	맘키움	10명
맘소리	11명	아기자기	8명
용진중 학부모회	10명	이서골목fc	40명
용진초	16명	용기종기	16명
고동소리	4명	이매모	10명
봄꿈	8명	아이들과 노래조	10명

2020년도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교육동아리 순회미팅은 다양한 도전과 성과가 공존하는 한 해였다. 각 동아리는 자체적인 목표와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교육동아리들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동아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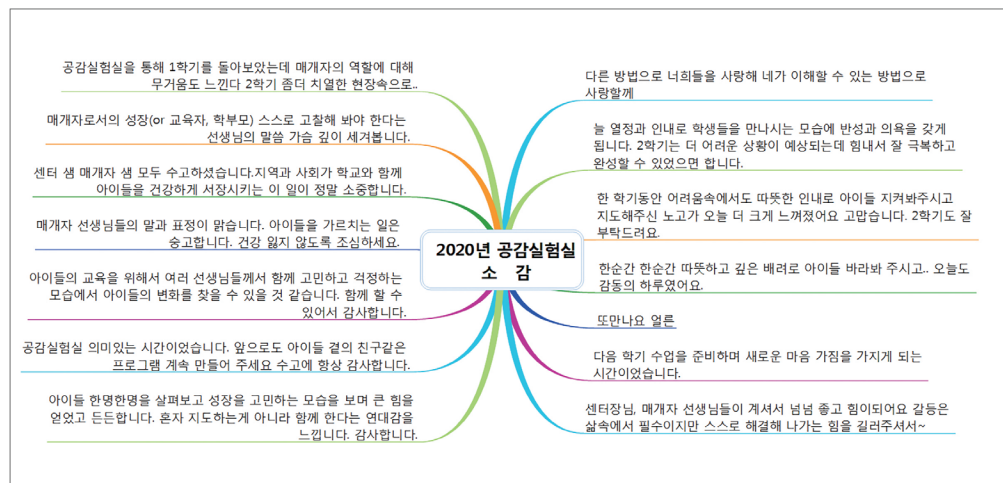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며 주목을 받으려 했지만, 매개자의 관심과 지도를 통해 점차 차분해지고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연 학생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수업 참여가 달라졌고, 때로는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이 어려웠으나, 현장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과 각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번 공감실험실을 통해 교육통합 모델의 실제 적용 결과와 그 영향력을 목격했다. 김찬주 매개자의 사례관찰 일지는 이 모델이 학생 개개인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김○현, 이○형, 유○연 등의 학생들은 매개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모델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교육 방향은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북교육협력 지구 타운홀

전라북도 교육협력지구의 타운홀미팅은 지역사회,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장을 통해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의제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교육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타운홀미팅의 주요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4개 시군의 관계자들은 의제 발굴 방식을 시연하고 이를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협력지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각 지역별로 적합한 교육 의제를 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운홀미팅의 의제 논의 결과는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관련 주제들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육·지역사회 상호 간 협력한 연계 이해’에 대한 의제가 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참석자들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교육협력지구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를 공유’하는 의제에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지역 교육의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타운홀미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지역 교육의제 발굴과 일맥상통한다.

‘교육 현장을 위한 중간지원의 실현체’에 대한 의제는 24%로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교현장 및 지역교육 공동체’에 대한 의제는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았다. 이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찰과 결과들은 전라북도 교육협력지구의 미래 활동에서 지역사회와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한다' 들으면 떠오르는 것

1. 효율적 예산 배정 및 사용	0%
2. 교육청, 지자체 상호 간 충분한 업무 이해	33%
3. 현장조사(연구)를 통한 목적 설정	0%
4.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 공통 합의	30%
5. 학교현장 및 지역교육 공동대응	12%
6. 교육 협력을 위한 중간지원 실행체	24%

더욱 깊은 협력, 교육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교육 현장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타운홀미팅 주제들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전략과 실행 계획에 깊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2020년 유관기관 간담회 '통합하줘'

2020년 1월 29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2020년 교육관련 유관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와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가 주최하고 완주군이 후원한 이 행사는 지역 교육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교육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간담회는 지역 내 교육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자년 쥐띠해를 맞아 '교육통합하줘~'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한 각 기관이 생각하는 '통합'의 의미를 단어로 선택하여 쥐모양의 카테고리에 붙여보면서 자신의 기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함께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앞으로 완주군 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협력적 접근은 지역 교육 공동체를 강화하고, 모든 관계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성과홍보 보도자료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교육 통합 하~ 쥐~ 교류의 장 열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은영 이하 ‘센터’)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완주가족문화교육원 2층 가족홀에서 70여개 기관들과 ‘교육통합 하~쥐’의 주제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날 유관기관 간담회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완주군의회 의원, 완주관내 학교 관계자, 진로체험처, 학교-마을 강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교육동아리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과 성장을 향한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누었다.

유관기관 간담회는 각 기관 소개와 함께 경자년을 맞아 쥐 모형에 ‘교육통합하~쥐~’로 기관의 키워드를 찾아 함께 채워(통합)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기관별 정보 교류와 함께 자발적 연대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뜻있는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교육통합하쥐~ 라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면서 완주군은 민관과의 소통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말했으며, 이어 적극적인 소통과 꾸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교육(통합적 지원과 통합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은영 센터장은 완주군의 선도적인 교육정책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HOME > 자치행정 > 원주

완주진로체험센터 '어쩌다 꼐머의 들보잡' 간담회 개최

원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5.08 15:44 | 댓글 0

네이버 메인에 #전북도민일보 추가



완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20 일상의 삶과 만나는 진로특강 시즌 2 어쩌다 꼐머의 들보잡(job) 이하 들보잡(job)'을 완주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6월 8일 구이중학교를 출발로 12월 초까지 총 5개교 35학급 400여 명이 들보잡(job)과 마주할 예정이다.

그 첫 만남이 지난 7일 완주가죽문화교육원 2층에서 있었다. 이번 미팅은 '어쩌다 연구원이 된 시골소녀' 이야기를 풀어줄 광금옥 꼐머(30대)이하 10여 분의 꼐머들이 같이했다.

간담회는 꼐머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김광집

전북도민일보

완주진로체험센터 '어쩌다 꼐머의 들보잡' 간담회 개최

2019년도 들보잡(job)을 보완해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20~30대 멘토단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특강의 주요 맥락은 엄마의 꿈이 나의 꿈인가? 쓸데없는 짓은 없다. 세상에 아무도 가지지 않은 직업으로 살아가기. 니 맘대로 해. 무엇이 되어도 괜찮아. 귀를 기울이면 등 특별한 꼐머들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진로와 만나게 된다.

완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이은영)는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으로부터 위탁받아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은영 이하 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한 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은 꼐머를 '꼐머라 표현하고 은어로 '선생님'을 칭하고, 어쩌다 꼐머의 들보잡은 아이들을 상대로 나이 있는 사람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특별한 삶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직업탐색의 시야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멘토단은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만나 나 또한 배움을 얻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역시 나다운 것이 남다른 것이다"며 "처음에는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간담회였으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새 옆집 언니, 오빠, 동생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수업실험

한국농어촌방송

농림축산 해양수산 식품/유통 **종합** 산업 IT/과학 문화/예술 전국 날씨 오피니언 영상/포토

정치 경제 사회 교육·환경 위산

홈 > 종합 > 교육·환경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포스트코로나 대비 완주군교육의 새로운 언택트교육 방향 제시

※ 양평호 기자 | © 입력 2020.08.28 18:37 | 댓글 0

가 가

언택트 시대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에 고민을 담다 - 완주군교육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제시

[소기자TV한국농어촌방송/완주=양평호기자]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지난 26일(수) 완주가속문화교육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극복을 위한 비대면 수업인 언택트(untact)실험실을 열었다.

한국농어촌방송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포스트코로나 대비 완주군교육의 새로운 언택트교육 방향 제시

가 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극복을 위한 언택트(untact)실험실을 열었다(사진=완주군청)

상반기 완주중학교(교장 조계복)에서 실시한 온라인 수업 기반의 경험 공유와 외부전문가인 두어&미디어아카데미(대표 권민식)와의 콜라보로 진행된 이번 언택트 실험실은 비록 완주군이 코로나 징정지역이지만, 8.15 광화문 집회 영향으로 지역 감염의 확산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비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학습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기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학습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이 필수화되면서 실제 학교에서는 각 유형별로 다양한 IT플랫폼과 콘텐츠의 활용이 일상화 되고 있는데, 학교-마을강사와 면대면이 핵심인 사회적 약자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였다. 이에 대한 방법론-기술적 기반과 지원을 검토하고 실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대책을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어&미디어아카데미 권민식 대표는 "전라북도 도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이미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어 언택트에 대한 제안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센터의 빠른 대처는 코로나 위기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신뉴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71개 구간 갖길 ...
- [포토]실 민심 듣는 더불어민주당.. 귀성길 인사
- [포토]실 앞두고 활기찬은 전통시장
- 아우야오 작가 'Muah, muah!' 출간기념 토크 ...
- 하이브로, 드래곤빌리지 '용(龍)'기 시리즈 '이마트...

포토뉴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71개 구...

인기뉴스

- 1 민주,尹 거부한 양국법 '새 개정안'으로 단독 처
- 2 '영화계 거목' 원로 배우 남궁원 별세, 향년 90세



HOME > 자치행정 > 완주

자원양성을 위한 놀이체육지도사 양성과정 진행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11.19 15:28 | 댓글 0

네이버 메인에 #전북도민일보 추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 이하 센터)는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일환으로 놀이체육지도사 양성과정을 한국리더레이션센터 한상준 대표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5여 명의 교육생과 함께 3주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놀이체육지도사란 놀이체육활동을 배우고 지도법을 습득하는 전문자격과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놀이를 체육시스템과 접목해 신체발달과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즐거움까지 가져다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며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즐기는 활동이다.

전북도민일보

자원양성을 위한 놀이체육지도사 양성과정 진행

인력풀 확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학교-마을 마을교육과정의 폭넓은 체험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의사소통도구 활용 시연, 놀이체육의 의의와 목적, 놀이와 레크리에이션과의 차이점, 아이스 브레이크와 스팟, 놀이체육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자기의 진행방식과 나에게 맞는 방안을 찾고 실습서를 만들어 보는 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의 소감으로는 '3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딱 찬 만두 속 같은 알찬 수업이라 좋습니다. '놀이의 전략, 전술, 생각지 못한 이끄는 수업 배웠고 한가지의 놀이보단 한 가지를 통한 여러 개의 놀이가 좋았습니다' 등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오는 24일 8회차 수료식을 끝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2021년 감사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비고
교육자원 발굴육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동아리 발굴 및 육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동아리 발굴 지원 (20개) 교육공동체 육성(5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체험처 멘토 교육 및 관리(2회)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발굴 꿈길 전산망 자료 등록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동아리 발굴 및 지원(9개지역 15개) 동아리 인큐베이팅 (소양, 고산, 화산, 운주) 동아리 순회미팅 (30회, 230명) 동아리 결산보고회 (4개권역, 150명) 교육공동체 교육 및 간담회 개최 (21개 기관, 22명) 교육공동체 인프라 구축-지역출신 멘토 발굴 진로직업체험처 멘토 교육(상/하반기) 진로멘토발굴 (15개분야 14명) 신규 진로체험기관 실사 (1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집 1종 영상 9건 PPT 3건 보도자료 결과보고
교육통합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 프로그램 개발 실행 교육통합 모델 확산 및 연계 지원 자원양성 및 매개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연계 (3개교) 매개자 및 마을 강사 연계 및 배치 학교 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매개자 기초·심화 교육(2회) 워크숍(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프로그램 실행 (3개교, 131명) 용진·완주·고산중학교 프로젝트 매개자교육 기초·심화 (2회, 20명 수료) 연계 매개자 실습과정 - 타운홀미팅(3회) 고산고 진로프로그램 연계 실행 드림스타트 연계 프로젝트 실행 교육통합모델확산 연계지원 일상의 삶과 만나는 진로특강 '어쩌다 끈머의 들보잡' (6개교 24개반 72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6종 영상 20건 PPT 수업자료 보도자료 결과보고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비고
교육통합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7개교 23개반 690여명) • 대학탐방 '새내기예고편' (2개교 70명 지원) • 미술공연 (9개교 630여명 지원) • 누에체험 (2개교 50여명 지원) • 2020 완주교육한마당 진로체험부스 운영 (9개 기관 11개 진로체험 부스 운영) 	
교육통합 연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합 모델 적용 체계화 사례 발굴 • 토론회 및 워크숍 • 교육과정 연구 및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실험실운영(2회) • 질적 사례연구 • 토론회 및 워크숍(2회) • 정책제안 • 학부모, 학생, 마을 강사 모니터링(4회) • 진로직업체험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실험실 운영(1회) • 전라북도 교육청 타운홀 미팅(60명) • 컨설팅 자문회의(2회) • 모니터링단 회의(12회) • 사전·사후 모니터링 (20회) • 언택트 실험실 운영 (5회) • 어찌다 끈머의 들보잡 멘토단 사전/사후 간담회 (2회) 	보도자료 결과보고
홍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 운영 • 연계협력 (신년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소식지(12회) • 홍보물제작(3종) • MOU 체결(15건) • 연계협력 신년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실험실 운영(1회) • 전라북도 교육청 타운홀미팅(60명) • 컨설팅 자문회의(2회) • 모니터링단 회의(12회) • 사전·사후 모니터링 (20회) • 언택트 실험실 운영 (5회) • 어찌다 끈머의 들보잡 멘토단 사전/사후 간담회 (2회) 	보도자료 결과보고

2020년 제언

2020년은 생활의 숨은고수의 또 다른 이름인 지역출신 진로 멘토인 ‘꼰머’발굴에 주목했다. 또한 고산·화산·운주 지역의 교육동아리 인큐베이팅 작업을 진행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타 지역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 중간지원조직 시스템 즉,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연결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사람자원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양성된 전문인력이 학교마을 교육과정과 연결되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였다.

완주군과 완주교육청이 함께 하는 협력구조를 통해, 교육 정책과 실행에 대한 더 긴밀한 협력과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들이 과거와 다르게 쉽지 않은 현상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는 저조하고 발굴은 쉽지 않은 지역사회 현실을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 할지 고민된다. 이런 연유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지역적 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완주군 차원의 해소책이 필요해 보인다.

※ 2020년 운영위원회 자료 참조

2019 - 2021

“

디딤,
이 자리가 꼭 필요했어요



세부추진사업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완주군 타운홀미팅

- 서로 다르다는 것은(?) 챌린지 100℃



군산타운홀미팅

- 디딤, 이 자리가 꼭 필요했어요



자존감향상
프로젝트

- 용진중학교



2021
교보교육 대상



미래교육지구
온라인 연수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21년
사업추진성과
2021년 제언



2021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온라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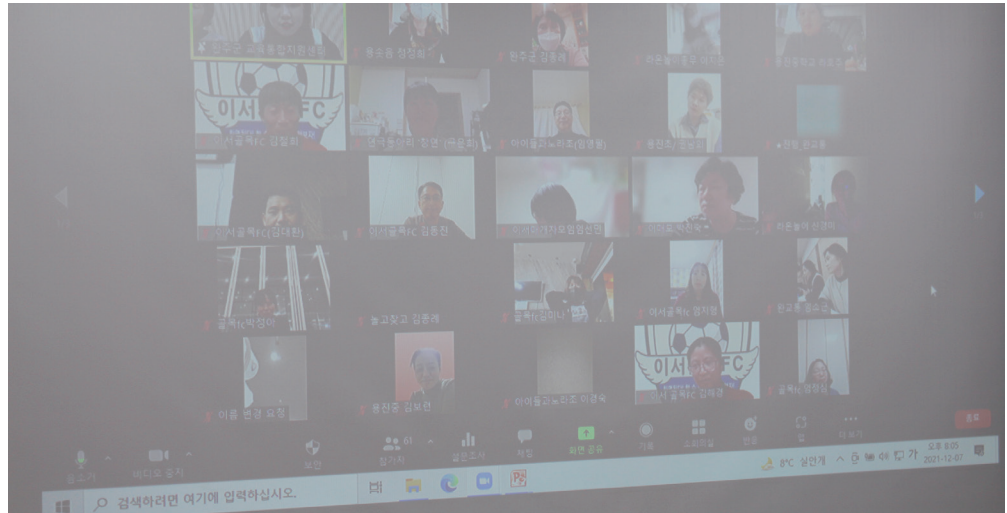
2021년 완주군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는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이 보고회는 각 교육동아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장이었다. 이 자리는 학습과 성장의 여정을 공유하고, 교육 커뮤니티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라운하제, 숲조아, 맘키움 등 7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각 동아리의 참여 인원은 이멤버리멤버 6명, 아기자기 5명 등으로 다양했으며, 행사 순서는 개회사, 동아리 활동 안내, 동아리 소개 및 활동 보고, 소감 작성 및 사진 촬영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용진초학부모 동아리, 아이들과노라조, 창연 등 8개 동아리가 참여해 총 56명이 함께했다. 이 세션의 순서도 첫 번째 세션과 유사했다. 이 행사는 동아리들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는 다채로운 교육 활동의 향연으로 시작된다. 각 동아리는 창의성과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와 활동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교육 커뮤니티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참가자들 사이의 교류는 이야기와 경험의 공유로 이어지며, 이들의 대화는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갔다.





보고회는 또한 미래 지향적인 논의의 장이 되며, 교육 커뮤니티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성장과 성취를 축하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결산보고회는 교육동아리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결산보고회는 완주군 교육동아리의 중요성과 성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 간의 따뜻한 교류와 공유는 교육 커뮤니티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결산보고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정신은 교육동아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완주군
타운홀미팅**
서로 다르다는 것은(?)
챌린지100℃



“서로 다르다는 것은(?)”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호와 인식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여정으로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목표로 하며, 조직 생활에서의 갈등 해소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MBTI 검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선호성과 주기능, 부기능을 이해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선호 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주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했다.

개인의 성장 배경과 환경을 되돌아보며, 조직 내 업무 스타일과 관점의 다양성을 경험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조직 생활에서의 조정과 협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조직과 실생활에서 보다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직 내 협력과 조정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됐다. 개인적인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이해는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었다.



군산 타운홀미팅 디딤, 이 자리가 꼭 필요했어요

군산 타운홀미팅은 군산교육협력지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 행사는 교육지원청의 제3기구 설립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주체적인 사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참가자들은 의사소통 구조를 통한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군산교육협력지구의 발전 방향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팅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2021년 군산교육협력지구 타운홀미팅은 군산교육의 발전과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자리는 교육 전문직의 의견을 공유하고, 군산교육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장이다. 타운홀미팅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특강을 듣고, 의사소통 구조와 합의 과정을 통해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특화 교육과정, 주민설계형 마을방과후와 같은 역점 사업에 대한 환류와 제3기구 구성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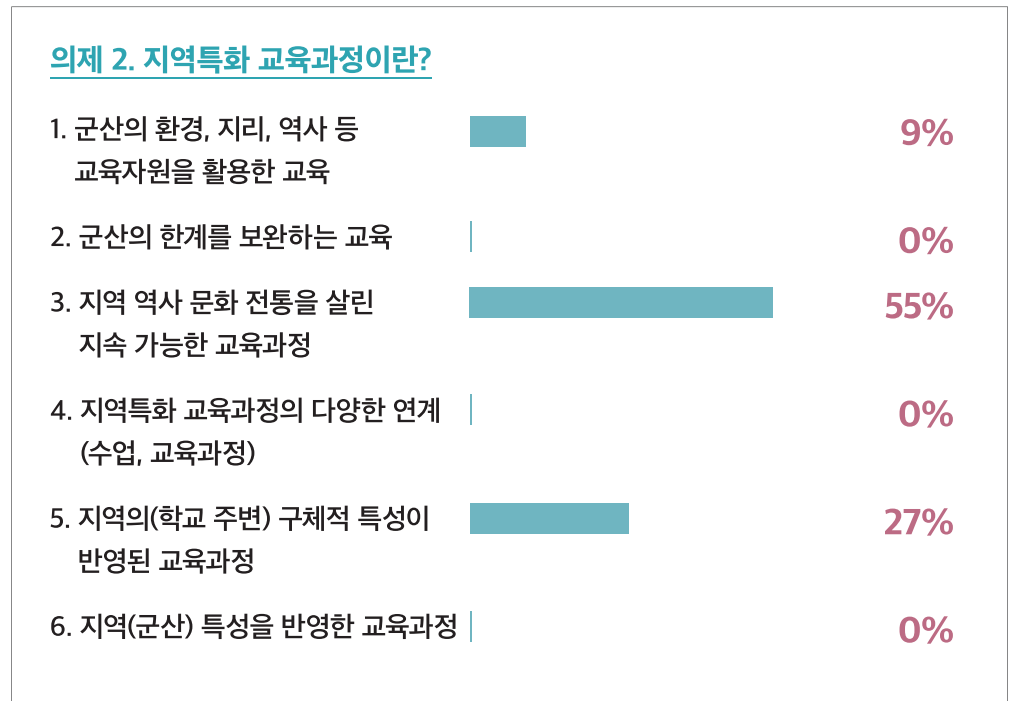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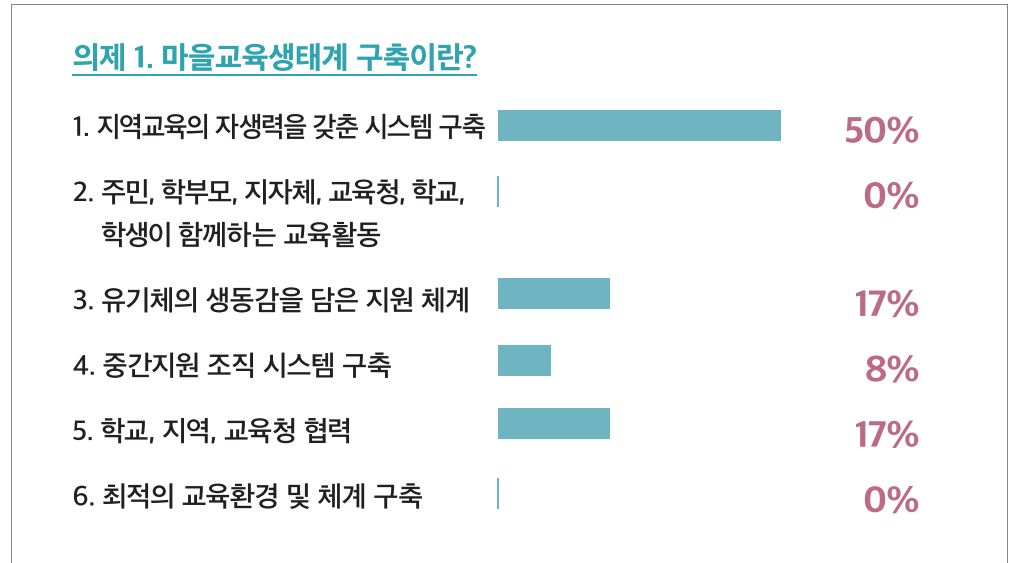
제1의제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50%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2의제는 ‘지역특화 교육자원의 발굴’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대다수(55%)가 ‘지역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제3의제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활동’에 관한 것으로, ‘마을의 주제



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하기'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교육과정에 마을의 다양한 특성을 접목시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보여줬다.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용진중학교



2020년 용진중학교에서 진행된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아 발견과 개성을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체험 학습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경험했다.

매개자 송미경 선생님과 김순애 선생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기대를 표하며,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형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행 미션지 전달, 교외에서의 물품 구입, 모듬별 현장실행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실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협력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협력과 공감의 가치를 배운다.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생들의 소감 중 한 예로, 한 학생은 패션쇼 준비 과정에서의 창의성과 팀워크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는 프로젝트가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학생은 환경 보호 영상을 보고 난 후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보며, 이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느낀다.

활동을 통해 협력의 기쁨을 배우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들의 솔직하고 순수한 반응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에 있어 진정한 가치를 전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2021 용진중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동영상(QR)



2021 교보교육대상



2021년의 한 특별한 날,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2021 교보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가 미래교육콘텐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교육의 중요성을 기리며 참사람을 육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과 조직에 수여되는 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의 리더십 아래 센터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이 수상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은 순간이며,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상징할 것이다.

이날 송미경 매개자, 임소근 국장, 최진실 연구원이 함께 했다.

미래교육지구 온라인 연수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교육의 통합적(총체적)접근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매개자, 학교마을 강사)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과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을 전제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대응'하자는 제안이며 실천이다.

프로젝트에 한한다면 교육통합이란 교실 안의 학생들과 교사(매개자 또는 학교마을 강사)가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구조적 문제(불평등, 양극화, 빈곤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3년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에서 확인된다. 완주군의 교육적 실천은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완주군의 앞선 교육적 실험은 교육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초기 F.G.I조사연구를 할 당시 지역사회 저항이 작지 않았다. 혹자의 '지역에 살지 않는 당신이 지역교육을 한다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 저항에 답해야 했다. 불편한 진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고민을 현장에서 찾아보기로 했고 지역사회 관계자와 주민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저항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기존의 정책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 교차대조하면서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나고 보니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가르침을 주었던 선배였고 동지였다.

성과홍보

보도자료

(전북도민일보)
2021.03. 31. 발취

용진중학교 자존감향상프로젝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 이하 ‘센터’)는 용진중학교(교장 고송식) 1학년(26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3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총 29회차로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유 학년제 시행 대상인 1학년 신입생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시험이란 압박에서 벗어나 모두가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학습을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보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수업 전에 앞서 사전인터뷰와 청소년 성격유형 CATI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과 지지체계 행동패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매개자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협업 활동을 진행한다. 매개자는 지역의 학부모로 구성된 마을교사로 센터에서는 매년 매개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매개자 송미경(매개자 7기) 선생님은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신의 의견을 한 장 한 장 포스트잇에 적어가며 서로의 의견을 협의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다. 앞으로 아이들이 그려낼 성장드라마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용진중학교 프로젝트 담당 김순애 선생님은 “이번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형성하여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즐거운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 자문회의

공정과 혁신으로 경제성체 도약 나사자
전북도민일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통합모델 자문회의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통합모델 자문회의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1.05.18 15:55 | 댓글 0

네이버 메인에 #전북도민일보 추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 이하 센터)는 교육통합모델 및 체계화·사례연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발맞춰 단위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위한 지역차원의 배우기와 준비를 주제로 진행됐다.

자문회의 참가자는 지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관계자와 고교학점제 연구지원단 소속 교원들로 구성되어 교육자치지구 완주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학교 간의 협력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북형 고교학점제'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1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전북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젊은층의 수도권, 대도시 이탈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연관지어 학령인구 및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을 배경상야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회의는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센터의 교육협력체제 구축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다.

좌장을 맡은 A고등학교 최모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지역성을 담은 교육과정이다. 아이들에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성패이다"며 "지역에 특화된 인재육성과 지역대학의 협력방안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혁신으로 경제성체 도약 나사자
전북도민일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통합모델 자문회의

자원에 집중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교실을 이동해 수업을 들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개인별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으로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양대 기관이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담중간지원조직이다.

완주=배종갑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완주=배종갑 기자
다른기사 보기

2021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교육자원 발굴육성 네트워크	교육동아리 발굴 및 육성	• 교육동아리 발굴 지원 (20개)	• 교육동아리 발굴 및 지원 (9개지역 16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교육공동체 육성(5개)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 체험처 멘토 관리 1회 (10개 기관, 10명) • 지역사회 전문직업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1회 6명)	• 동아리 순회미팅(16회, 48명) • 체험처 멘토 관리 1회 (10개 기관, 10명) • 지역사회 전문직업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2회 5명)
	자원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발굴 • 꿈길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	• 동아리 인큐베이팅 (소양, 고산, 화산, 운주) • 꿈길 홈페이지 프로그램 관리 10개
교육통합 실행	교육통합 프로그램 개발 실행	• 교육통합 프로그램 연계(3개교) • 워크숍(연2회) • 일상의 삶과 만나는 진로특강(어쩌다 끈 머의 들보job) 1개교 80명	• 학교지원프로그램 모니터링 (상반기 학교-마을 교육과정 15개 프로그램)
	교육통합 모델 확산 및 연계 지원	• 매개자 및 마을 강사 연계 및 배치 • 학교 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상반기/하반기)	• 학교지원프로그램 모니터링 (상반기 학교-마을교육과정 15개 프로그램)
	자원양성 및 매개자 배치	• 워크숍(연2회) • 매개자 기초-심화 교육 (2회)	• 매개자교육 기초-심화 교육 (2회 7명 수료) • 완주군 정책특강 챌린지 100도 연계 매개자 실습 과정: 사전시연(2회)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교육통합 연구 (사례)	교육통합 모델 적용 체계화 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실험실운영(2회) • 질적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고교학점제 (2회) • 교육사례 공감실험실 운영 (1회 13명 참여)
	토론회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및 워크숍(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마을교육과정 기관 강사 타운홀미팅(60명) • 완주군 정책특강 챌린지 100도 연계
	교육과정 연구 및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 학부모, 학생, 마을 강사 모니터링(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모니터링 (20회)
홍보 협력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소식지(12회) • 홍보물제작(3종) • MOU 체결(1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뉴스레터 68호 ~ 75호 발행 (900명) • MOU 체결(5건)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상시) • 홈페이지 방문(27,823명)
	연계협력 (신년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협력 신년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련 유관기관 신년 간담회 개최(80명)

2021년 제언

2021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9개의 지역에서 총16개의 교육 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하였으며, 용진,고산중학교 프로젝트 실행을 기반으로 총5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체험처 멘토 10명의 역량을 학교에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진로 탐색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교육통합실행 즉 프로그램 개발 실행과 교육통합 모델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정 지원의 확대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모둠활동을 통한 학교 교육지원은 코로나 상황에 위기 극복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활동 모델을 재구조화하고, 청년 진로멘토 발굴 및 다양한 전문 직업군의 확대에 주력했다. 이러한 다양한 개선 방향은 교육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코로나 19상황은 많은 것을 좌초시켰고, 대외 활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경험하는 시기였다. 특히 비대면회의는 중요한 하나의 회의 방식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21년 운영위원회 자료 참조

2022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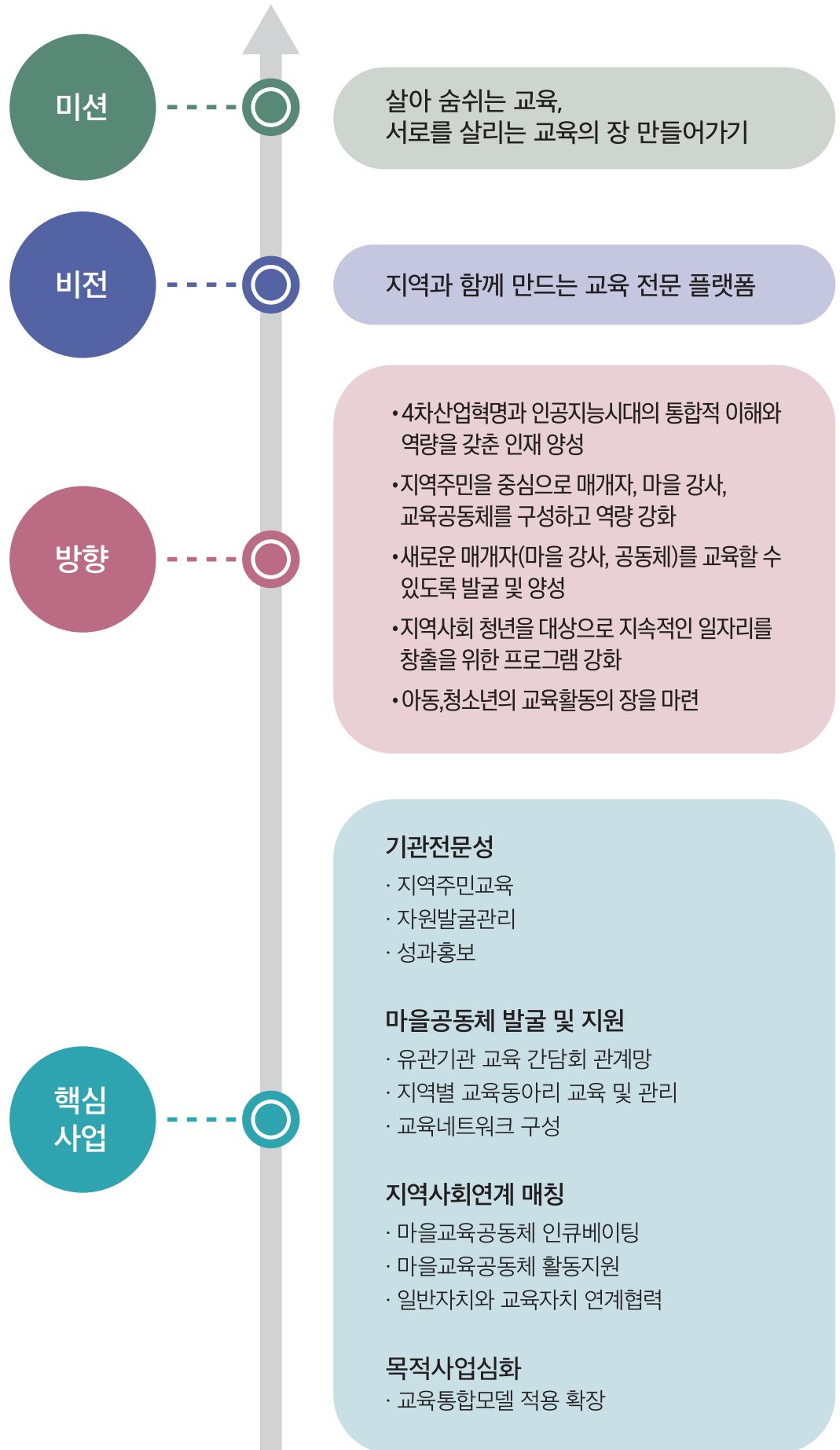
“

꼰머에
빠져 보실라우?



2022 - 2023

도약기 비전과 방향



연도별 사업요약

첫째, 전문 매개자의 독립적 활동 및 동료 양성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시범운영, 순환구조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멘토와 매개자, 동아리간의 교류를 형성하도록 활동을 지원했다.

둘째, 마을 강사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설요구를 받아들여 마을기록가 기초과정을 운영하였고 마을의 역사, 문화, 기록가치에 대한 소재를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 및 강화하도록 운영했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기반인 교육동아리는 매년 지역주민 발굴 및 교육의 초석이 되어 발굴된 동아리는 매개와 마을 강사로 전문화되어 학교현장 정보를 상호교류하며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넷째,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부각에 따라 미래사회 전환을 위한 준비를 위해 ChatGPT와 같은 고급 인공지능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본 역량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세부추진사업

곶머간담회

- 곶머다이브, Dive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 에필로그



마을기록가기초과정

- 기억을 기록으로, 마을을 기억하다



어린이날 축제

- 솜사탕메이커 부스



연결과 매칭을 통한 그룹핑

교육자치연계협력 간담회



전북미래학교 대토론회 타운홀미팅



신규강사 기초교육

- 신규강사만족도 조사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22년 사업추진성과 2022년 제언



끈머 간담회 끈머다이브, Dive

진로멘토, 끈머에 빠지다 / 멘토 15인과 함께 / 2022. 5. 27.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후배 끈머들을 위해 지난해 센터와 함께 ‘어찌다 끈머의 듣보잡(job)’으로 활동한 선배 끈머들의 활동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끈머란? 이야기 보따리꾼, 좋은 으른이 되어주는 거요! 끈대처럼 보였지만 말해보니깐 웬걸 내편이네 공감해주고 함께 생각해주는 사람 맛있는 밥사주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향하는 끈머는?”

선배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끈머로서의 역할과 스토리 전달 방식, 아쉬운 점 등을 통해 후배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앞으로 진행될 진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수현 쏬머

생각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맑았다.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당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여러회 구성되어서 멘토로서 아이들을 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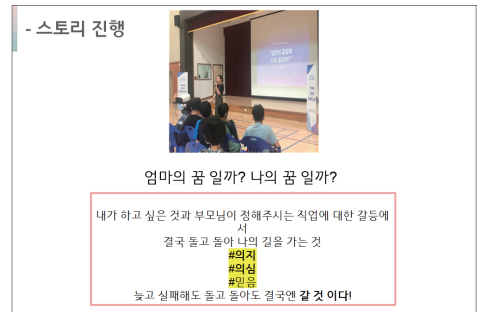
임지영 쏬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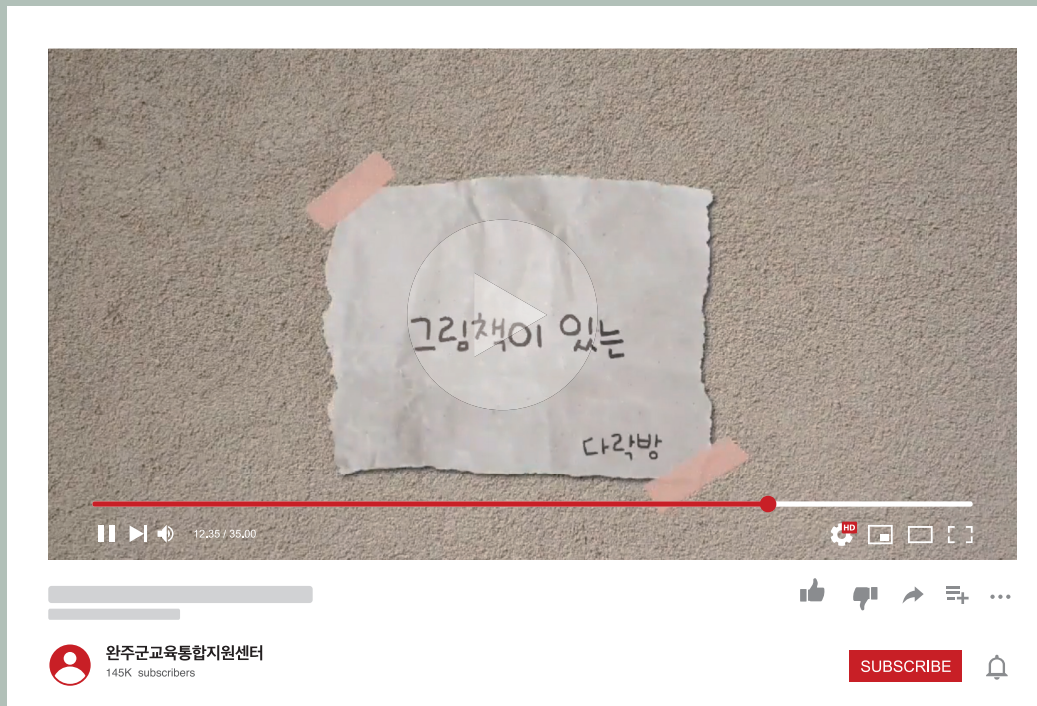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는 주제로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소리 부모님의 소리가 아닌 내마음의 소리를 따라 경험해보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했다. 강의 마지막에는꿈카드를 써보게 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것에 더 집중했다.

한송지 쏬머

저는 쏬머 활동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 주제는 엄마의 꿈일까? 나의 꿈일까? 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아 이렇게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서 나의 삶에서 이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1시간짜리 PPT 내용보다 훨씬 기억에 남는 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그림책이 있는 다락방 동영상(QR)



지역아동센터 마을기관연계 프로그램 지원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 이하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와 마을기관 연계프로그램 지원했다.

화산지역아동센터와 봉동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원예프로그램을, 비봉 다들 싱기방기 놀이터는 놀이체육을, 가족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한 스피치 교육을, 고산 모두의 놀이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즐거운 야외수업을, 삼례 참소리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음악 줄넘기를, 상관아란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만드는 즐거움을 주는 토탈공예를 진행했다.

각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유관기관 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 에필로그

2022. 12. 8.(목).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가족문화교육원에서 13개 읍·면에, 16개 교육동아리 100여 명과 함께 2022년 교육동아리 결산보고회를 진행했다.

결산보고회는 그동안 진행된 주요 내용을 동아리별로 영상과 PPT로 만들어 공유하고 소통하여 올해 성과를 통해 내년 활동방향을 정하고 함께 마무리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진행내용으로는 오프닝공연(동아리 극단 창연), 교육동아리별 활동내용 공유, 메시지 컵케이크 만들기, 설문조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마을기록가 기초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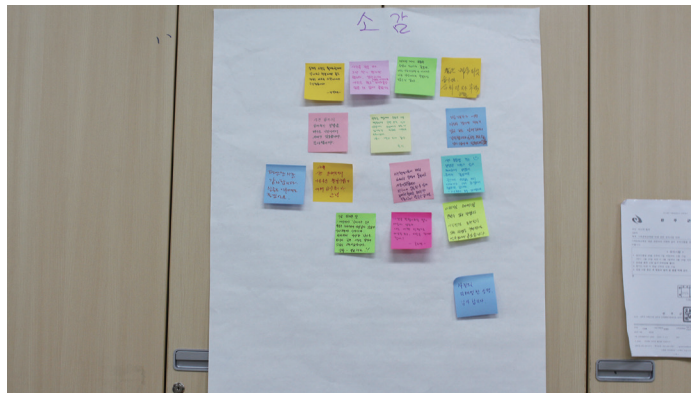
기억을 기록으로,
마을을 기억하다



2022년 12월 16일(금)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김인순 외 15명과 함께 마을기록가 기초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의 목적은 마을기록가를 통해 마을의 문화, 역사, 보존가치가 있는 삶을 기록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아카이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강의 너무 좋았다. 기록가의 진행에 따라 마을에 대한 역사실습을 통해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어 유익했고, 이 교육을 통해 완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어린이날 축제 솜사탕메이커부스



완주군청 잔디밭 일대

2022년 5월 5일(목) 완주 군청에서 개최한 어린이날 축제에 ‘솜사탕 메이컵 (CUP)’ 부스를 운영했다. 센터 부스에서는 교육동아리 홍보 및 모집과 어찌다 끈머의 듣보잡(job) 진로 특강 멘토 발굴 및 교육과정 참여 기관 모집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아이들이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센터 부스 이용자는 300여 명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이다 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시중에 판매하는 솜사탕 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이 직접 솜사탕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그려진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연결과 매칭을 통한 그룹핑



서두정보화마을 / 2022. 9. 27

9월 27일(화) 서두정보화마을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그룹핑 작업 1차 회의를 서두마을, 인덕마을, 도계마을, 경천애인 관계자들과 진행했다.

그룹핑은 마을교육공동체들의 콘텐츠를 엮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사회에 연결 매칭하는 작업이다.

각 마을의 스토리와 특산품 및 농업문화유산 등을 엮어 이론수업 후 관련 체험활동을 프로그램화하여 그룹핑작업을 진행했다.

봉성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총 70명, 교육동아리(라운하제), 마을교육공동체(4개 기관)를 연결 매칭한 후 완주 농업문화 유산알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생강청 만들기 이론과 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자치연계 협력 간담회



가족문화교육원 평생배움터 / 2022. 11. 28.

11월 28일(월) 가족문화교육원 평생배움터에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마을공동체 관계자를 포함한 완주지역민을 모시고 일반자치 교육자치 연계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의 하나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교육정책 권한 이양이 확대되면서 학교가 처한 상황과 지역 사회 및 학습자 등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의 마을과 교육이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지역 교육정책 논의, 지역민이 생각하는 지역교육 사례 공유, 지역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자체와 교육자치 기관의 지역교육정책 안내를 토대로 지역민이 생각하는 지역교육의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 속에서 지역교육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나누었다.



신규강사 기초교육



가족문화원 가족홀 / 2022. 11.19.(토)

2022년 11월 12일(토), 19일(토) 두 차례에 걸쳐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학교마을 신규 강사 40명을 대상으로 교육 강사와 함께 기초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강의식 교육과 영역별 분임 토의 교육을 병행하였다.

이론 교육내용은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로 실행해 기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의 의미와 이해, 학교-마을교육과정의 이해, 학교체계의 이해, 청소년을 만나는 자세, 교수학습지도안 작성법, 교육공동체 준비서류로 이루어졌다.

신규강사 만족도 조사

본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주변의 권유		27%
2. 교육활동 준비		42%
3. 교육활동 영역의 확대		27%
4. 기타		3%

본 교육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1. 매우 그러함		24%
2. 그러함		55%
3. 보통		21%
4. 그렇지 않음		0%
5. 전혀 그렇지 않음		0%

어떤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1. 교육과정의 의미와 이해 강사: 이등		6%
2. 학교-마을교육과정의 이해 강사: 임성희		29%
3. 학교체계의 이해 강사: 윤영준		10%
4. 청소년을 만나는 자세 강사: 최용철		6%
5. 교수 학습작성법 강사: 백승철		26%
6. 교육 공동체 준비 서류 강사: 송현주		16%
7. 교수 학습지도안 모듬 활동		6%

전북미래학교 대토론회 타운홀미팅



전주비전대 세미나실 / 2022. 11.21.

2022년 12월 21일(수)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혁신담당 교육전문직원 26명과 함께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2층 세미나실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하였다.

2023 전북 미래 학교 어떻게 꾸려 갈까? 를 주제로 전북 미래 학교의 정체성, 전북 미래 학교가 추구해야 할 과제 및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타운홀미팅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되었다.

성과홍보 보도자료 (전북도민일보) 2022. 11.21. 발취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지원 / 2023 학교-마을교육과정 신규강사 기초교육 진행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 이하 '센터')는 11월 12일(토), 19(토) 두 차례에 걸쳐 2023년도 학교-마을교육과정에 진입하는 신규강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의 의미와 이해, △학교-마을교육과정의 이해, △학교체계의 이해, △청소년을 만나는 자세, △교수학습지도안 작성법, △교육공동체 준비서류, △완주교육협력지구 프로그램 등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신규강사 기초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함께 지역의 교육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연대·협력하여 완주만의 교육 현안을 찾아 공동대응하기 위함이다.

2022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주체세움 기관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교육 자원발굴관리 성과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교육 (연 4회)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연중) 뉴스레터발간 및 홈페이지 관리 (연 10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교육(연 7회)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3회) 뉴스레터 발간(12회) 보도자료(50건)
협력세움 마을교육 공동체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교육간담회 관계망 교육동아리 교육 및 관리 교육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교육지원 (연 4회) 마을공동체 순회미팅(연 5회) 교육영역별 네트워크 구성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교육지원(11회) 유관기관 간담회(2회) 업무협약체결(57회) 교육 네트워크 구성(22회) 교육동아리 활동지원(17개)
확장세움 지역사회 연계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인큐베이팅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지원 일반자치 교육 자치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단위 공동체 발굴(연 2회) 외부자원 연결 및 매칭(연중) 협력구조 타운홀미팅(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단위 공동체 발굴(4회) 꿈길 체험처 실사 및 컨설팅(25회) 외부자원 연결 및 매칭(4개 기관) 협력구조 타운홀미팅(1회) 일반자치 교육자치 연계협력 간담회(1회) 진로특강(3개교, 4회, 364명 참여)
깊이세움 목적사업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모델 적용확장 마을교육과정연계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모델 확산 연계(연 2회) 마을 강사 관리 및 운영지원(연중) 교육공모사업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합모델 확산 연계(2회) 마을 강사 관리 및 운영지원(11회) 교육공모사업(2회)

2022년 제언

2022년도 완주군통합지원센터는 전문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즉 매개자, 끈머, 교육동아리가 교육주체가 되어 교육을 진행하여 동료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교-마을 교육과정 및 교육동아리, 매개자 등 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교육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장하는데 일조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만들었다.

꿈길 진로체험을 체험처별로 순회하여 프로그램별 재정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지역주민교육을 통해 발굴된 끈머들을 3개학교 진로특강에 배치하여 학교와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왔다.

마을기록가과정은 교육이수생들에게 마을, 지역에 대한 이해와 활동 분야를 확장시켰고, 많은 교육생들이 심화과정을 원하셔서 심화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취소되었다. 차후에는 담당자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강사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취소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 - 2023

“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세부추진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간담회

- 지역사회
소통하다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 10주년 기념행사



발상의 전환 오묘한 재판기

- 완주군 가족축제



용진중 명량운동회

- 용진중자존감
UP 프로젝트

용진중 명량인터뷰

- 진로멘토와
심화인터뷰



지역사회 캠핑 한마당

마을 강사 역량강화 연수

- 마을 강사의
우(羽)아한
교육여정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간담회

내부역량 강화

- 소셜공작소와
연대



매개자 역량 강화교육

- 챗지피티와
함께하는
톡톡talk



성과홍보

- 보도자료



2023년 사업추진성과

2023년 제언



2023

마을교육공동체 간담회



지역사회 소통하다 / 2023. 10. 17.(화)

2023년 10월 17일(화) 가족문화교육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학부모교육동아리, 마을 강사, 매개자, 끈머)와 함께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양성한 학부모교육동아리, 학교-마을 강사, 매개자, 끈머 등 마을교육공동체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군수와의 만남을 가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공동체 일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현장을 자유롭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10주년 기념행사 / 2023. 10. 21.(금)

2023년 10월 20일(금) 완주군청 1층대회의실에서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센터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센터와 함께 10년 동안 성장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마을 강사, 진로멘토, 학교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나온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향후 10년에 대한 센터의 방향을 모색하여 전국유일의 교육전담조직다운 위상을 재정립하고 완주군의 교육발전에 함께한 관계자들과 축하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발상의 전환, 오묘한 자판기



완주군 가족축제 / 2023. 5. 20.(토)

5월 20일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에서 주관하는 제2회 완주군 가족축제 부스지원을 위해 ‘발상의 전환, 오묘한 자판기’ 체험을 진행했다. 센터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체험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폐종이박스로 만든 “고래야 플라스틱 먹지 말고 새우깡 먹어.” 일명 <고래밥주기 자판기>와 사람이 직접 손금을 스캔해주는 <손금자판기>, 추억의 쌀보리 게임을 할 수 있는 <쌀보리 게임 자판기>을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축제를 방문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종이자판기체험 참여 행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문제성을 쉽게 공감하고,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진중 명량운동회



자존감 UP 프로젝트 / 2023. 4. ~ 7.

용진중학교(교장 조영민) 1학년 37명 새내기 학생들과 ‘공감과 존중’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를 4월 4일 마음열기를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총 14회차로 진행했다. 명량운동회는 1등만을 위한 스포츠경쟁이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종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학교만의 운동회를 표방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소재를 찾아 참여 학생들이 채워가는 학생 중심형 활동으로 구성해 ‘명량운동회’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용진중 명랑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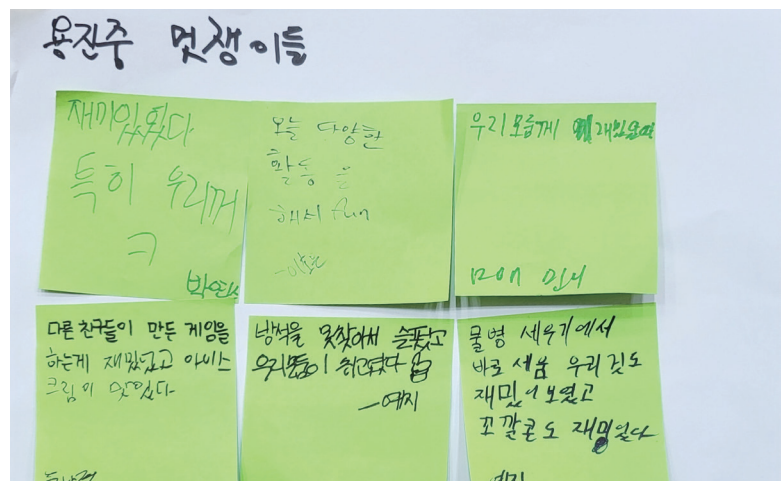


진로멘토와 심화인터뷰 / 2023. 7. 5.

용진중학교(교장 조영민) 1학년 43명 학생들과 함께 7월 5일 용진중학교 강당에서 지역 연계형 진로프로그램 ‘어쩌다 끈머의 든보잡’ 심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명랑인터뷰에 참여한 백중수멘토는 “멘토로서 진짜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고민했다. 누구에게나 꿈을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다. 앞선 나의 경험이 현재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과 다양한 기회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캠핑 한마당



2023. 7. ~ 11.

2023년 7월 ~ 11월 완주군 일원 관내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교육동아리, 공동체, 단체)로 구성된 선공동체, 용진별하, 이서골목fc, 품앗이놀이터로 총 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고 300여 명이 참여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4개 기관의 평가지표는 인원 모집 및 참여도 /프로그램 & 지역연계성/ 장소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지역순회(동아리미팅, 공동체미팅, 유관기관미팅)를 통해 이러한 평가 결과의 요건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차기 년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마을 강사 역량강화 연수



마을 강사의 우(羽)아한 교육여정 / 2023. 8. 10.

2023년 8월 10일 35개 기관 70여 명의 학교-마을 강사(이하 마을 강사)를 대상으로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마을 강사들은 ChatGPT에 대한 강의를 듣고, 4차산업의 변화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의 발빠른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맞춘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했고, 학생들 성향에 따른 맞춤교육에 대한 전문가 수준에 맞는 연수교육을 진행하였다.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간담회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양을 시작으로 완주군 내 읍·면의 학부모, 지역공동체, 군의회,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 교육관계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풀뿌리관계자 외)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완주군 교육 분야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교육정책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관·학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역량 강화 소셜공작소와 연대

센터 MISSION & VISION 수립 워크숍

소셜공작소(이하 황성진 대표)와 센터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 및 방향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황성진 대표는 미션이란 궁극적으로 도달해 가야 하는 목적이며 비전이란 힘들고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곳으로써, 센터가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목표, 전략, 핵심가치를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워크숍을 통해 미션과 비전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회의를 통해 의사소통도구를 이용하여 진행한 바, 2023년 8월 14일 회의에서 미션(살아숨쉬는 교육·서로를 살리는 교육의 장 만들어 가기)과 비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전문 플랫폼 교육통합지원센터 센터 존재 이유(잠자는 교실 깨우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매개자 역량 강화 교육 챗지피티와 함께하는 특특talk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학교-마을 강사, 그리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와 지역주민 13명을 대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교육을 주최하였다. 이 교육은 가족문화교육원 1층 컴퓨터실에서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걸쳐 총 5회 진행되었다. 본 교육의 주요 목표는 참여자들에게 AI 인공지능의 기초를 교육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수업 내용에 AI를 융합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교육의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챗지피티 교육은 새로운 영역의 학습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 이었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챗지피티를 중심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성과홍보
보도자료
 (전북도민일보)
 2023. 10. 21. 발췌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10년의 기다림, 10년의 만남'

10년간 이어온 마을교육공동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완주군의 교육발전에 함께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센터와 함께 10년 동안 성장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마을 강사, 진로 멘토, 학교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완주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난희 완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 각 분야의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또한 완주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의 교육활동가들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한국외국어대 교육학과 김용련 교수를 초청해 '교육전담 지원 조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교육통합지원센터의 그간 역할과 앞으로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완주군 관계자는 "10주년 동안 한결같이 완주군 교육을 위해 애써온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에 감사하다"며 "10주년 기념행사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센터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완주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국 최초 교육전담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구조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마을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2023년 사업추진 성과

사업 분야	사업명	목표량	달성량
주체세움 기관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교육 자원발굴관리 성과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교육 (연 15회)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지원(16회) 홈페이지 관리 (연중) 리플·백서제작(1회) 성과보고회(1회) 뉴스레터 발간 (10회) 보도자료(4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머간담회 1회 - 끈머교육 4회 - 매개자교육 3회 - 동아리 교육지원 7회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례컨설팅 2회 - 프로그램지원 4회 - 교육관계자 간담회 1회 신규끈머 발굴 14회 홈페이지 관리(연중) 리플·백서제작 1회 성과보고회 1회 보도자료 48회 뉴스레터 발간 11회
협력세움 마을교육 공동체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네트워크 구성 유관기관교육 지원 교육동아리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교육지원 (연 8회) 교육동아리 순회 미팅(연 10회) 교육영역별 네트워크구성(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교육지원 15회 교육동아리 순회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14회 - 하반기 12회 교육영역별 네트워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네트워크 14회 - 업무협약 44회 - 학교미팅 42개교
확장세움 지역사회 연계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일반자치·교육 자치연계 지역사회캠핑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인큐베이팅 및 그룹핑 지원(연 1회) 진로공동체 운영·발굴(10회)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활동지원(연중) 교육정책 간담회 (연 1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프한 마당(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특강 3회 진로공동체 운영·발굴(13회) 교육정책 간담회 1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프 한마당(1회)

깊이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합모델 적용확장 • 마을교육과정 연계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합 플랫폼 조성(2회) • 교육통합모델 확산연계(연 2회) • 대외모델이식(5회) • 마을 강사 관리·역량 강화(2회) • 마을 강사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5회) • 학교-마을교육과정 위탁운영(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합 플랫폼 조성(2회) • 교육통합모델 확산 연계 - 프로젝트 3회 • 대외모델이식(5회) • 마을 강사 관리·역량강화(4회) • 마을 강사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3회) • 학교-마을교육과정 위탁운영(1회) - 지역사회 순회미팅(13읍·면)
목적사업 심화			

2023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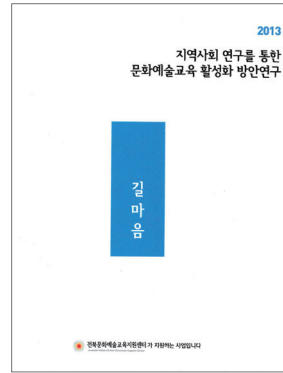
2023년은 센터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하여 10년의 기록을 백서로 제작하고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을 주제로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중간지원조직이 가교역할로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교육컨텐츠의 개발이기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컨텐츠개발을 위한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 다시 시작된 찾아가는 교육간담회를 진행하면서 42개 학교를 순회 미팅하며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답하였으며, 지역사회캠핑한마당을 기획하고 개최하여 선정된 4개기관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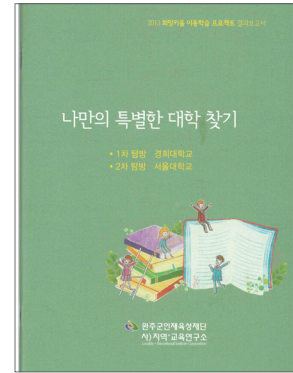
챗지피티(Chat-gpt)를 진행할 당시 강사진의 수준높은 강의가 수요자의 이해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다음 교육과정 기획시 수업시간 조정과 수요자의 수준 및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2024년도에는 교육컨텐츠를 확장하고 융합하여 마을 강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학령기 아동의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 마을별(아파트별) 문화공간 및 공동생활터에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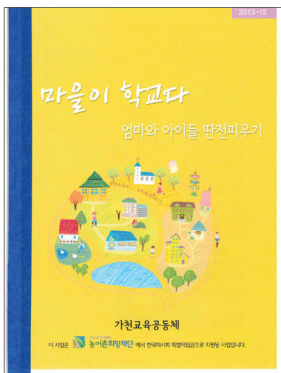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자료집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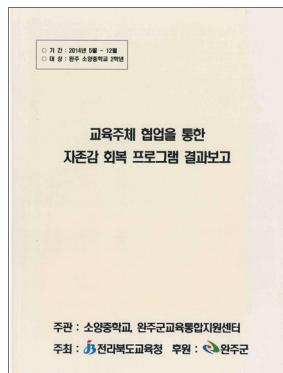
2013
지역사회활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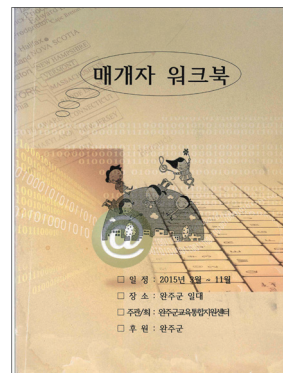
2013
희망키움 아동학습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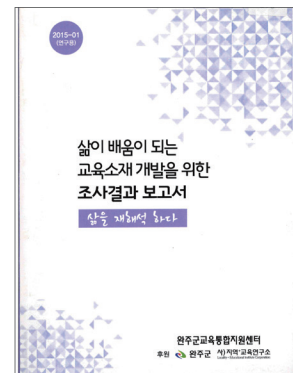
2013
가천교육공동체
마을이학교다



2014
교육주체협업을 통한 자존
감회복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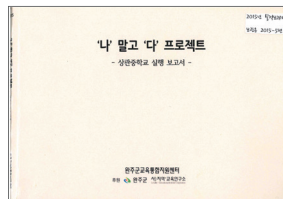
2015
매개자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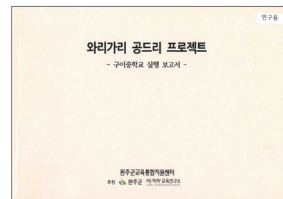
2015
삶이 배움이 되는
교육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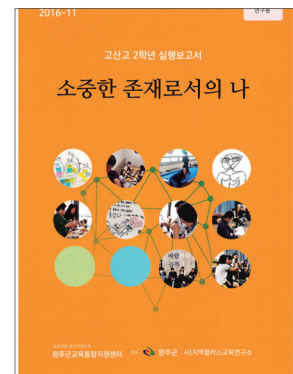
2015
삶이 배움이 되는
교육조사 보고서



2014
상관중학교프로젝트



2015
와리가리공드리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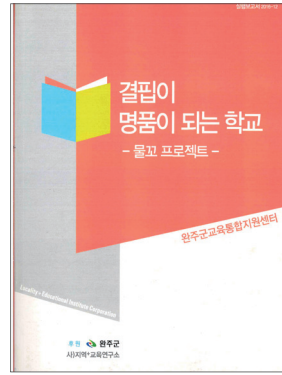
2016
고산고2학년 실험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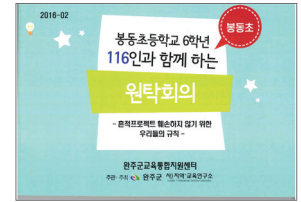
2016
교육기관 관련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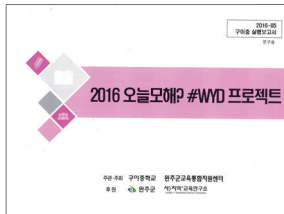
2016
매개자교육과정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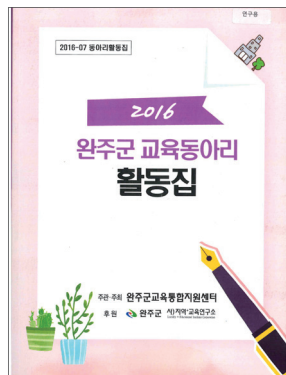
2016
물꼬프로젝트



2016
봉동초6학년 원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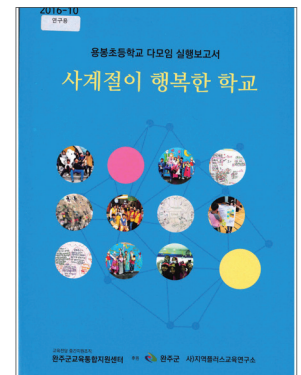
2016
오늘모해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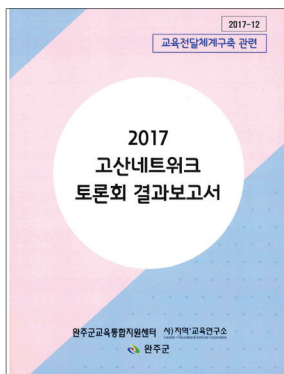
2016
교육동아리 활동집



2016
학과별이있는 진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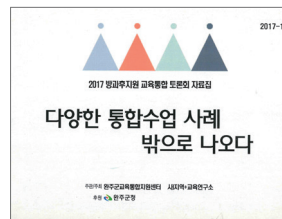
2016
사계절이 행복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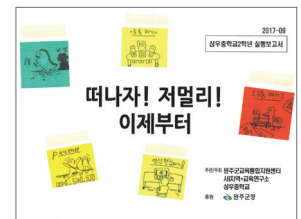
2017
고산네트워크 결과보고서



2017
공부도 좀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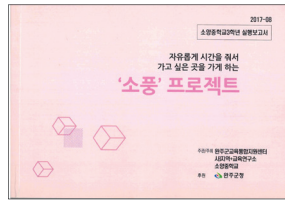
2017
다양한 통합수업사례
밖으로 나온다



2017
떠나자! 저멀리!
이제부터



2017
매개자자료집



2017
소상공프로젝트(소양중)



2017
운주중
블랙홀 점점빠져든다



2018
삼례중2학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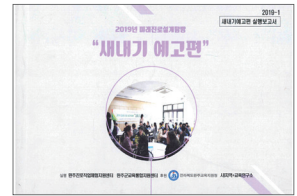
2018
완주혁신교육
성장보고서2.0



2019
이따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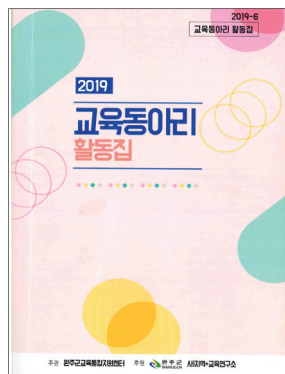
2019
존중 딱 좋다 프로젝트



2019
새내기예고편 실행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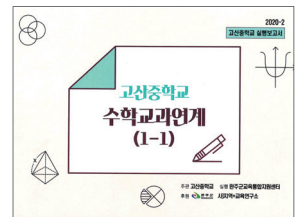
2019
매개자교육자료집



2019
교육동아리활동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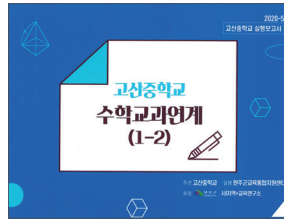
2020
뭉쳐야 한다 프로젝트



2020
고산중 실행보고서(2월)



2020
매개자심화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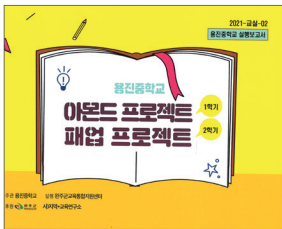
2020
고산중 실행보고서
(수학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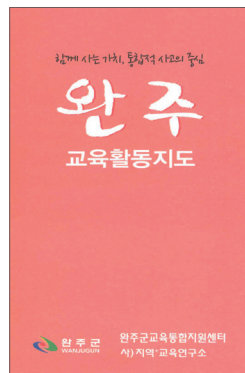
2020
고산중 실행보고서(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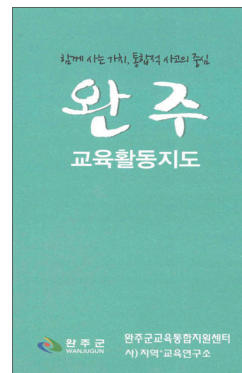
2021
전체이용가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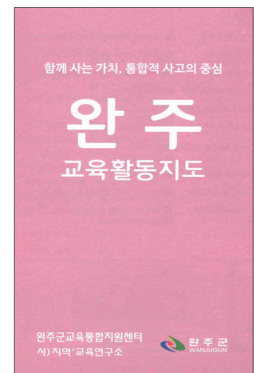
2021
용진중실행보고서



완주교육활동지도 1



완주교육활동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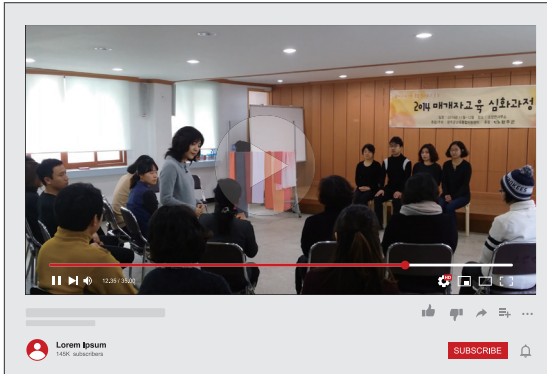


완주교육활동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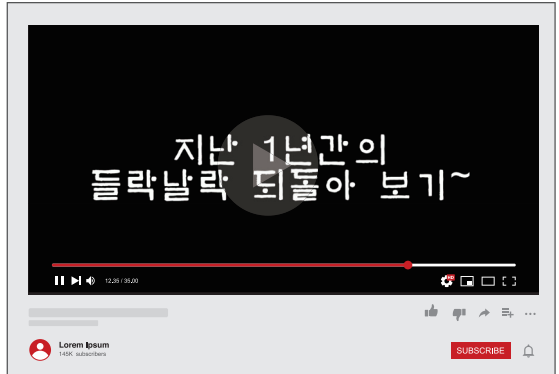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동영상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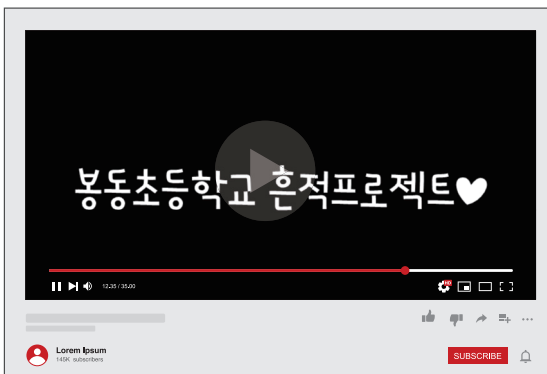
2013
희망키움 프로젝트 경희대 탐방



2014
매개자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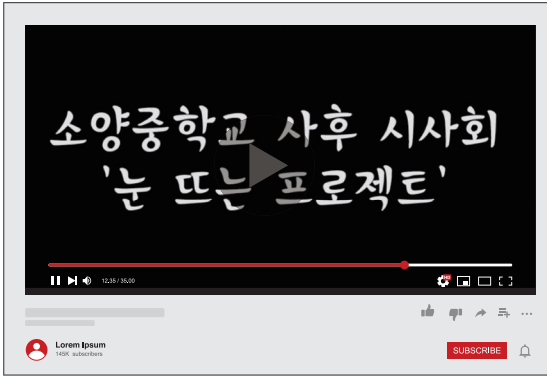
2015
소꿈사 개소식



2016
봉동초 흔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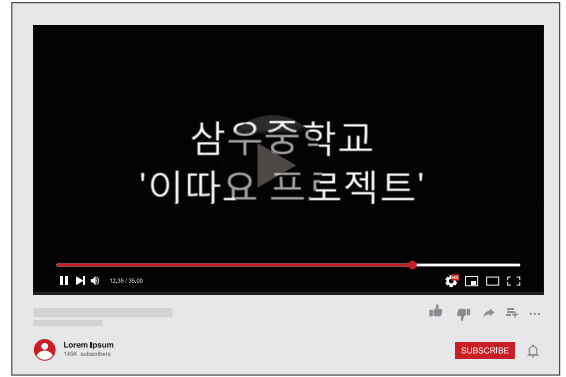


2017
봉서중 탐방왔소 프로젝트



2018

소양중 눈뜨는 프로젝트



2019

이따요 삼우중 프로젝트



2021

용진중 자존감향상 프로젝트



2022

그림책이 있는 다락방



2023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센터 직원들 소감



18년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 인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간의 백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센터와 함께 했던 직원분들의 노고가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백서의 산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현재 센터가 우뚝 설수 있었고 닦아놓은 그 길에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임소근 올림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여정은 이곳에 헌신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협력이 우리 센터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육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됩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 정명훈 올림 -

10년의 발자취에 치하의 뜻을 전하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져진 기틀 위에 미흡하게나마 이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10년, 교육통합지원센터는 더불어 포용하는 한그루의 무성한 나무로 성장하며 모두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 임소영 올림 -



백서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걸어온 1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면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백서가 우리 센터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번 백서 제작은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제가 센터에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되고, 항상 발전하고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인선 올림 -

백서 제작을 하면서 10년의 지나온 발자취를 마치 눈발 위에 발모양을 따라 길을 가듯이 걸어보니 센터의 시작인 '잠자는 교실을 깨워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수 있게 되었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노력과 헌신,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기반이 되어 센터가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열정을 담았던 그 마음을 되새기며 센터의 미래가 더 큰 성장과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 양민경 올림 -

고맙습니다.

- 임성희 올림 -

10년의 만남, 10년의 기다림

발행인 : 임성희

기획총괄 : 임소근 임소영 정명훈 양민경 이인선

후원 :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완주군·완주교육지원청

자문 : 양윤신 김진아 김지훈

발행일 : 2023. 12.

발행처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가족문화교육원 2층)

홈페이지 : <http://wjedu.or.kr/>

ISBN 979-11-92264-05-9

※ 이 책의 저작권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에 있습니다.

※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사)지역+교육연구소

Locality + Educational Institute Corporation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2층)
T.063-714-4601~2 | F.063-714-4603 | E.wjedu21@daum.net

<http://wjedu.or.kr>

